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度 秋季學術大會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탐색

일시: 2021년 10월 02일(토)

장소: 온라인 진행(Zoom)

주최 및 주관: 한국한문교육학회 및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度 秋季學術大會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탐색

일시: 2021년 10월 02일(토)

장소: 온라인 진행(Zoom)

주최 및 주관: 한국한문교육학회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度 秋季 學術大會

1. 대회 주제명 및 일정별 세부 계획

가. 기획 주제 :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탐색

나. 개최일시 : 2021년 10월 2일(토), 13:00~19:00

다. 장소 :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3층 소강당

라. 세부 계획

일정		발 표 및 내 용
1부: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1부 사회: 정경훈 (원광대)	13:00~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 성격, 교과 역량, 목표 설정 방안 탐색 ■ 발표: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15~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위계 설정 방안 →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한 위계화 방안 탐색 ■ 김왕규(한국교원대)
	13:30~1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 교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 설정 방안 탐색 ■ 발표: 함영대(경상대)·구수연(갈월고)
	13:45~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과 한문과 ■ 발표: 정효영(등촌중)
	14:00~14:10	중간휴식
		종합토론
	14:1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김우정(단국대) ■ 토론: 김경익(울산광역시교육청), 강미향(광명교육지원청), 김세욱(유신고), 김진봉(연천중)
	14:50~15:00	중간휴식
2부: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 관련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 실제 학교 수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해야 할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2부 사회: 정효영 (등촌중)	15:00~1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중등학교 한자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발표: 허철(단국대)
	15:15~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중등학교 한자 어휘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발표: 안세현(강원대)·배희정(원곡고)
	15:30~1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발표: 정동운(동덕여중)·김성중(계명대)
	15:45~15:55	중간휴식
	15:55~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중등학교 한문 산문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발표: 이군선(원광대)·박기성(화순고)
	16:00~1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중등학교 한시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발표: 정경훈(원광대)·정훈기(대전서중)
	16:25~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중등학교 인성·문화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발표: 이성형(공주대)
	16:40~16:50	중간휴식
	16:50~17:50	<p>종합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김병철(군포고) ■ 토론: 조환문(청주IT과학고), 장재익(광주공고), 김동규(낙생고), 최식(성균관대), 정규돈(경민중), 백광호(전주대)
	17:50~18:00	연구 윤리 교육
	18:00~18:30	총회 및 폐회식

1부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 성격, 교과 역량, 목표 설정 방안 탐색

발표자: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자: 김경익(울산광역시교육청)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위계 설정 방안 →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한 위계화 방안 탐색

발표자: 김왕규(한국교원대) / 토론자: 강미향(광명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 교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 설정 방안 탐색

발표자: 함영대(경상대), 구수연(갈월고) / 토론자: 김세욱(유신고)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과 한문과

발표자: 정효영(등촌중) / 토론자: 김진봉(연천중)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서론
2. 교과 역량 재구조화 방향
3. 교과목 재구조화 및 내용 설정 방향
4. 결론

1.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이 목전에 다가왔다. 교육부는 올 11월 초순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22년 하반기(9월 경)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창의력과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과목 구조 개편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의 향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계획(안)」을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가지의 기본 원칙을 개정 방향으로 제시해 놓았다. 문서에 제시된 6가지는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으로¹⁾,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하고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학습자와 교사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지난 9월 9일에 발표한 국가교육회의의 2022 개정

1) 교육부(2021.4.),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참조.

교육과정 권고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에 배려와 책임감, 창의, 문제해결, 주도성 등을 포함하고,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며,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²⁾ 따라서 총론이 이와 같은 방향에서 개발될 것임을 감안할 때, 총론의 영향을 받는 각론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학교급별·교과목별 교육과정의 성격, 교과 역량, 목표, 내용 체계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격적인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앞서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교과 역량과 함께 교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우선 살펴본 후, 교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설정 방안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교과 역량 재구조화 방향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총론)과 교과 역량(각론)이 처음 도입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을 기반으로 교과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과별 내용 중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역량을 그 내용 체계에 끼워 넣는 형태로 개발되었다.³⁾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이란 개념을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하다보니 교과 고유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을 교과 입장에서 수용하고,⁴⁾ 각 교과를 구성하는 영역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추려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요소와 기능을 추출하여 체계화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다.⁵⁾ 하지만 사회의 변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 사회도 이전보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량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역량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계획(안)」을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미래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지능정보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중심으로 학교급별·교과별 학습 경험 재구조화’를 개발 방법으로 제시해 놓았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한문 교과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교과 내용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OECD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해 왔던 DeSeCo 프로젝트를 이어 2015년부터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에 성인이 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2) 대학저널(2021.09.09.), 「국가교육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권고안 발표」(<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18>, 2021.09.23. 확인)

3) 박지애·소경희·장연우·허예지(2019),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역량 교육: Deleuze의 존재론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연구』 37(2) 참조.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한문과 교과 역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역량						비고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총론							핵심 역량
한문	인성 역량		창의적 사고 능력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교과 역량

5) 이광우(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 핵심역량」,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Education 2030’은 역량의 궁극적 가치를 ‘개인과 사회의 ‘잘 삶’(well-being)’으로 설정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역량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Education 2030’은 ‘DeSeCo’ 프로젝트와 달리 역량 함양을 통한 교육의 목표를 개인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량의 핵심을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으로 보고 있다. 또한 ‘Education 2030’은 기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디지털 활용 능력(Digital Literacy), 데이터 활용 능력(Data Literacy)을 강조하고 있는데,⁶⁾ 이를 종합해 보면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개념 기반 및 역량 함양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Education 2030’은 교과 역량 설정에서 외재적 변인에 해당한다. 온전한 교과 역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교과 고유의 내재적 변인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몇 편의 논문은 한문 교과 고유의 교과 역량 설정에 긴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김왕규는 한문과 교육과정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비 작업의 일환으로 한문과 교육의 지속가능목표 범주를 선정하면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역량 중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의사소통능력은 교과 고유의 특성과 호응하면서도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며, 심미적 감성은 교과 특성에는 높게 호응하지만 사회·문화적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부응하며, 정보 처리 능력은 사회·문화적 요구는 높지만 교과의 부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았다.⁷⁾ 또한 김우정은 역량 기반 교육의 의미를 살피고, 향후 한문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논문에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해 의사소통 역량, 정보활용 역량, 심미적 역량을 기초 역량으로 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 인성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대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⁸⁾ 한편, 김은경은 경기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의 목표와 내용에 실용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⁹⁾ 허철은 한문이 인문학의 보고란 점에 착안하여 창조적 사고력을 토대로 미래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문학 담당 교과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⁰⁾

이상의 한문 교과를 둘러싼 대내외적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5개의 교과 역량은 한문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맺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일단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바, 한문 교과의 교과 역량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교과 학습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식 또는 기능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기본 역량으로, 특정되지 않는 형태로 형성되는 태도나 가치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기대 역량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이 깊고 한문과 기본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역량을 지원 역량으로 추가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이상은·소경희(2019),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 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참조.

7) 김왕규(2020), 「한문과 교육과정의 과거와 미래-한문과 지속가능목표 범주 선정-」, 『한문교육연구』 54 참조.

8) 김우정(2020), 「역량 기반 교육의 대두와 한문과 교육」, 『한문교육연구』 54 참조.

9) 김은경(2020), 「학부모·학생의 한문 과목에 대한 요구 읽기-단일 일반계 고등학교 대상 한문 교과 목표, 성격, 내용 요소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문교육연구』 54 참조.

10) 허철(2018), 「미래사회의 변화와 한문교과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한문학논집』 49 참조.

역량 범주	교과 역량
기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역량 • 한문 문해 역량 • 문화 이해 역량
지원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활용 역량(자료 활용 및 정보 검색·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학습 과정·결과 분석 및 동기화 능력)
기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사고 역량 • 인성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이고, ‘한문 문해 역량’은 한문 단문, 한문 산문, 한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처리 능력’에서 한문 독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특화한 것이다. 그리고 ‘문화 이해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기대 역량에 ‘창의적 사고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해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인성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한문 기록에 담긴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원 역량의 ‘정보활용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처리 능력’ 중 자료 활용 및 정보 검색·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분리하여 특화한 것으로, 한문 자료와 한자를 기반으로 한 언어 자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식하고 찾아내고 수집된 정보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학습 과정과 결과 분석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¹¹⁾

그런데 이들 역량이 한문 교과의 모든 과목을 관류하는 것이지는 하나, 각각의 역량이 학교급별·교과목별로 동일하게 기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격과 목표, 교육 내용을 유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학교급별·교과목별로 성격과 목표, 교육 내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이에 적용되는 교과 역량의 비중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과의 교과목 재구조화 방안과 그에 따른 교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설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11) 윤영순·이미영·김경량·손민정·이용백·김영춘·임병필·강하나·윤지훈·박동훈·이강혁·윤미재,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1-10

3. 교과목 재구조화 및 내용 설정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과목의 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확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회의 자료로 제시한 고등학교 편제표(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2외국어, 기술·가정, 교양 교과목과 함께 생활·교양군에 속해 16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한문 교과목의 위상은 아쉽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제하에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¹²⁾

현행 ※ 17회 수업량 기준					개정안 ※ 16회 수업량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단위	자유선택단위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단위	자유선택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	기초	국어	국어(8)	8	
	수학	수학(8)	10			수학	수학(8)	8	
	영어	영어(8)	10			영어	영어(8)	8	
	한국사	한국사(6)	6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통합사회(8)	10		탐구	사회	통합사회(8)	8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예술	체육		10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예술		10	
생활·교양	제2외국어/한문 기술·가정/교양		16		생활·교양	제2외국어/한문 기술·가정/교양		16	
소 계			94 (180)		소 계			84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24		창의적체험활동			18	
총 이수 단위			204		총 이수 학점			19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고등학교 교과목 개편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보통교과를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놓았다. 또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하던 분류를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¹³⁾ 따라서 기초 영역에 속하지 않는 한문 교과목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과목 분류 체계에 따른 교과목 재구조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과목 1과목(한문 I), 진로선택과목 1과목(한문 II)만 존재했던 기존의 교과목 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한문 교과에서 새롭게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교과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에서 한문 교과가 보다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문 교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상당수의 흥미로운 과목에 대한 제안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¹⁴⁾ 하지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

12) 다만 생활·교양군이란 교과 영역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만약 생활·교양군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한문을 제2외국어와 함께 분리하여 별도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설정하고 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확정된 안은 11월 초순에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13) 교육부(2021.2.16.),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참조.

14) 지금까지 제안된 한문 교과목의 선택과목은 김왕규(2021),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및 단위 구성 방안-‘고교학점제’ 도입과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한문교육연구』 56 참조.

과별 선택과목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한 학기에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7~8개 정도이므로, 각 교과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의 수도 기존의 과목 수에서 크게 늘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교과에서 제한한 다양한 선택과목 중 상당수는 학교장 개설이나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책 연구팀과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문 교과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현행 2과목에서 1~2과목 늘어난 3~4과목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필자를 비롯한 몇 명의 전공자들이 모여 두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가한 전공자들은 대체로 일반선택과목의 경우 수능 시험에서 존속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재 한문 I 수준에서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고, 융합선택과목은 실용적 성격을 강화한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목의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성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한문 교과의 고등학교 교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작성해 보기로 하였는데, 필자가 개인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분류	과목구분	과목명
한문	일반선택	한문
	진로선택	심화 한문(또는 한문의 세계), 한문 과제 탐구
	융합선택	언어생활과 한자

먼저 일반선택과목은 I 과 II의 구분 없이 ‘한문’으로 설정해 보았다. 과목명에 위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고교학점제에서는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의 이수 경로 및 위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문 교과와 함께 묶여 있는 제2외국어 과목도 I 과 II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의 일관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언어생활과 한자’로 과목명을 설정해 보았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의 활용’ 영역, 그중에서도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부분을 특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진로선택과목은 두 과목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심화 한문’으로 일반선택과목인 ‘한문’의 내용 중 한문 독해에 방점을 두고 심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과목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심화’라는 용어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화 한문’이 부담스러울 경우 ‘한문의 세계’와 같은 과목명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문 과제 탐구’인데, 이 과목은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한문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과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정해 보았다. 특히 ‘한문 과제 탐구’는 일선 학교에서 자투리 학점의 소화를 위해 필요한 1~2학점짜리 ‘미니 과목’의 개설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였다.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을 위와 같이 구상한 것은 한문 교과에서 지향하는 교육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개념에 집약되어 있고, 그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판단되는 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각 선택과목의 성격과 목표, 학습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각 선택과목의 과목별 성격 및 목표, 주요 학습 내용을 범박하게나마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한문		언어생활과 한자	
<p>○ 성격과 목표</p> <p>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 주요 학습 내용</p>		<p>○ 성격과 목표</p> <p>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와 한자 어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 주요 학습 내용</p>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한자의 모양·음·뜻	한문의 이해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단어의 갈래
	한자의 필순	한문의 활용	일상용어
	한자의 짜임		학습 용어
	단어의 짜임		성어
	실사와 허사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품사의 활용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의 유형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풀이하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p><진로선택과목></p> <p>심화 한문(또는 한문의 세계)</p> <p>○ 성격과 목표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며, 한국 한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 주요 학습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역</th><th>내용 요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9">한문의 이해</td><td>한자의 모양·음·뜻</td></tr> <tr> <td>단어의 갈래</td></tr> <tr> <td>문장의 구조</td></tr> <tr> <td>문장의 수사</td></tr> <tr> <td>소리 내어 읽기</td></tr> <tr> <td>끊어 읽기</td></tr> <tr> <td>풀이하기</td></tr> <tr> <td>내용과 주제</td></tr> <tr> <td>이해와 감상</td></tr> <tr> <td rowspan="3">한문의 활용</td><td>선인들의 지혜와 사상</td></tr> <tr> <td>한문학의 이해</td></tr> <tr> <td>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td></tr> </tbody> </table>	영역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한자의 모양·음·뜻	단어의 갈래	문장의 구조	문장의 수사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풀이하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학의 이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p><진로선택과목></p> <p>한문 과제 탐구</p> <p>○ 성격과 목표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문 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한문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과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데 중점을 둔다. 한문은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로, 한문으로 기록된 각종 전적 속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에 관한 선인들의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한문 과제 탐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에 학습한 한문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교과와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한다.</p> <p>○ 주요 학습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역</th><th>내용 요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과제 탐구의 이해</td><td>• 한문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td></tr> <tr> <td>• 과제 탐구 방법과 절차</td></tr> <tr> <td>• 연구 윤리</td></tr> <tr> <td rowspan="5">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td><td>• 탐구 주제 선정</td></tr> <tr> <td>• 탐구 계획 수립</td></tr> <tr> <td>• 탐구 수행</td></tr> <tr> <td>•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td></tr> <tr> <td>• 반성 및 평가</td></tr> </tbody> </table>	영역	내용 요소	과제 탐구의 이해	• 한문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	• 과제 탐구 방법과 절차	• 연구 윤리	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	• 탐구 주제 선정	• 탐구 계획 수립	• 탐구 수행	•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	• 반성 및 평가
영역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한자의 모양·음·뜻																												
	단어의 갈래																												
	문장의 구조																												
	문장의 수사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풀이하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학의 이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영역	내용 요소																												
과제 탐구의 이해	• 한문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																												
	• 과제 탐구 방법과 절차																												
	• 연구 윤리																												
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	• 탐구 주제 선정																												
	• 탐구 계획 수립																												
	• 탐구 수행																												
	•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																												
	• 반성 및 평가																												

위는 고등학교 교과목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 구상해 본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다. 고등학교 교과목이 이상과 같이 재구조화될 경우, 중학교 과목은 현재와 같이 ‘한문’을 과목명으로 하고 내용 요소도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과 유사한 방향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한문이 생활·교양군에 속해 제2외국어 과목들과 경쟁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중학교의 과목명을 ‘생활 한자’ 또는 ‘생활 한문’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목명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에서 교수·학습되는 내용 수준을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는 가급적 편폭이 긴 산문을 다루지 않고, 단문과 한자, 한자 어휘, 전통문화에 초점을 맞춰 교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조직할 필요가 있거니와,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도 본문에 수록하는 글감의 내용과 편폭을 현재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교과목의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분		핵심 개념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중학교	한문	유지 (단, 문법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고등학교	한문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언어생활과 한자	비중 ↓ (단, 한자의 특징 ↑)	—	비중 ↑	—	—
	심화 한문	비중 ↓	비중 ↑	—	비중 ↑	비중 ↑

※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의 ‘한문 과제 탐구’는 별도의 내용 영역 설정 필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의 지향점이면서도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사용 여부도 완화하여 보다 흥미로운 한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기 때 편찬된 교과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기 때 편찬된 교과서까지를 대상으로 본문에 사용된 한자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상당수가 본문 이외 자료, 특히 한자 어휘와 관련된 자료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구분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중학교	중학교 900자	865	840	784	750
	고등학교 900자	207	477	295	265
	1,800자 이외 자	46	382	236	158
고등학교	중학교 900자	822	822	862	845
	고등학교 900자	586	586	679	592
	1,800자 이외 자	335	335	572	501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가 모두 교과서 본문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자 어휘가 교과서의 주요 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해당 학교급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대한 학습이 교과목 제일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어 부득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부한 글감과 활용도가 높지 않은 한자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되, 그것이 갖는 구속력을 낮춰 다양한 한자·한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만약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5) 허철(2019), 「코퍼스에 기반한 교육용 한자·한자계 어휘 위계화 연구(1) -기존 교육용 한자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52, 한국한문교육학회, 99~103쪽 참조

기존	개선안
(2) 한자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2000.12.30. 교육부 제정) 900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범위를 초과하는 한자는 100자 이내로 하되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초과 한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한자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2000.12.30. 교육부 제정) 900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범위를 초과하는 한자가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교과 역량 및 교과목 재구조화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각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몇 명의 손에서 좌우될 성질이 아니다. 각론 개발의 연구진은 그간 학계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내용을 총론에서 정한 문서 체제에 맞게 조직·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해 보는 본 학술대회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에 개정될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교과의 입장에서 좋던 싫던 간에 보다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과의 위상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이미 총론에서 교육과정 편제의 방향이 정해진 이상 한문을 필수교과로 해야 하거나 국어과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지금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문 교과가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길 고대해 본다.

漢文科 教育課程 學校 級別 (教育 內容) 位階 設定을 위한 基礎 研究

金王奎(韓國敎員大學校)

[目次]

- I. 序言
- II. 教科別 教育 內容 位階化 分析
 - 1. 教科別 教育 內容 位階化
 - 2. 漢文科 教育 內容 位階化
- III. 漢文科 教育課程 學校 級別 位階 設定
- IV. 餘言

I. 序言

이 글은 국가 수준 한문과 교육과정 次元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 교육 내용의 位階를 세우기 위한 ‘基礎[豫備]’ 연구이다. 교육 내용의 위계를 수립하는 것 곧, 位階化는 이론 층위의 문제인데,¹⁶⁾ 분명히 밝히거니와,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을 選定하고, 이를 構造化·體系化하는 가운데, 위계를 세울 수 있는 작업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그래서 ‘基礎’로 免責한다.

몇 가지 前提한다. 먼저, 한문과 ‘교육과정’ 차원에서 작업을 進行한다.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選定 및 위계 設定은 다기한 變因이 작용한다. 헤아릴 수 없는 要因들, 예컨대, 학습자, 교사, 단위 교육청과 학교, 시대 潮流와 요구, 국가 語文 정책, 그리고 입시 정책 등이 그것이다.¹⁷⁾ 이 글은 교육과정 교육 내용 위계 설정의 標準을 지향한다. 표준의 실제 適用 및 變容은 언제든 열려 있다.¹⁸⁾ 다음으로, 교육 내용 위계화인가, 학교 급별 위계화인가, 교육 내용의 학교 급별 위계화인가? 이 글은 일차적으로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개의 학교 급별 위계에 焦點을 두었지만, 학교 급별 교육 내용의 위계화 작업과 길을 달리하지 않는다. 한편, 교육 내용의 학교 급별 위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16) 송병렬(2003a); 김정익(2011). 참조. 송병렬(2003a)은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위계성과 연계성 문제를 검토하면서, “내용의 위계성은 학습 내용 제재를 쉬운 것에서 높은 것으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감으로써 한문 학습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연계성은 개별 소단원 또는 소단원과 소단원 간에 앞뒤 내용이 서로 조응하여 반복 학습과 동시에 학습 수준을 자연스럽게 위계를 높일 수 있도록 확장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교과서 층위에서의 위계성과 연계성을 정의했다. 한편, 김정익(2011:24)은 ‘한문교육의 위계화’란 말을 사용하면서, “학습자의 한문 학습 발달 수준과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선정, 배열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로 재개념화했다.

17) 김왕규(2013b). 참조. 교육 내용을 포함한 漢文科 교육과 한문 교육 정책에 작용하는 變因에 대해 따지고 대안을 마련했다.

18) 2021년도 한문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부 발표 주제는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 관련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실제 학교 수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加減해야 할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인데, 바로 국가 교육과정 표준의 교실 수업으로의 변용, 적용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 및 변용 층위는 크게 교실 수업 현장과 교과서인데, 교육과정의 교과서 수용의 구체적 실제 양상을 검토한 보고로 김연수(2016)를 들 수 있다.

있는 經路를, 필자는 한문과를 포함한 各論 教科別 教育課程에서 찾고자 한다. 새로운 展望은, 때론, 지금 딛고 있는 地點에서 端初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한문과를 포함한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結集體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良質의 이론은 (수업)실제를 牽引하고, 교실 수업 현장은 이론을 推動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한문 교실 수업의 指南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위계화 작업은 至難하고, 堪當키 어렵지만, 한문교육학 연구자로서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학교 급별 교육 내용의 위계화 課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힘을 내기로 한다.

II. 教科別 教育 內容 位階化 分析

1. 教科別 教育 內容 位階化

한문과 교육 내용 위계 설정을 위한 基礎 作業을 교육과정에 구현된 교과별 교육 내용 위계화 분석에서 始作한다. 한문과의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言語 教科인 국어(과), 영어(과), 그리고 외국어[생활외국어](과)를, 內容 教科인 수학(과)를 선택하여, 교과별 위계화 양상을 考察한다.¹⁹⁾ 교육과정 문서 體裁-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등-를 기준으로 분석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텍스트[언어 자료]에 주목하였는데, 범박한 분석이지만, ‘他山之石’으로 삼는다.

19) ‘언어 교과’와 ‘내용 교과’라는 용어, 개별 교과의 그것에로의 歸屬, 그리고 한문 교과의 교과 성격에 대한 규정은 교과교육학자[한문교육학 연구자]의 연구 및 분석 觀點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 1〉 각론 교육과정에 구현된 교과별 교육 내용 위계화 분석

	성 격	목 표	내용 체계 [영역/핵심개념/일반화된 지식/내용 요소/기능]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 습 평가	텍스트
국어(과)	중고 同一	중고 同一	· (초)중고(고1) 내용 체계 틀 同一 -영역:듣기말하기·읽기·쓰기· 문법·문학[5]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공통 -학년(군)별 내용 요소 補充·深化	· 학교 급별 相 異 · 내용요소 관 련 진술 · 성취기준 해 설 選擇的	· 학년(군) 별 성취기준 에 따른 교 수·학습 방 법 제시 · 평가는 학교 급별 同一	· 국어 자 료의 예
영어(과)	중고 相異	중고 相異	· (초)중고(고1) 내용 체계 틀 同一 - 영역 :듣기·말하기·읽기·쓰 기[4] -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공통 · 학교 급별 내용 요소 보충·심 화 · 언어 재료	· 학교 급별 相 異 · 내용 요소 관 련하여 진술 · 성취기준 해 설 選擇的	· 학교 급 별 성취기 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 법 과 평가 제시	· 언어 재 료
수학(과)	중고 相異	중고 同一	· 학교 급별 영역 共通 · 학교 급별 핵심 개념, 일반화 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相異	· 학교 급별 相 異 · 내용 요소 관 련하여 진술 · 성취기준 해 설 省略	· 학교 급 별 성취기 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 법 과 평가 제시	
외국어(과)	[중] 생활 외국어 [고] 외국어	중고 相異	· 내용 체계 틀 他科와 相異 -영역, 핵심요소, 내용, 기능 · 학교급별 내용 체계 틀 同一 -어휘 位階	· 학교 급별 相 異 · 내용 요소 관 련 진술 · 簡略한 성취 기준 해설	· 학교 급 별 성취기 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 법 과 평가 제시(簡略)	· 의사소 통기본표현 · 기본 어 휘표

‘성격’²⁰⁾과 ‘목표’²¹⁾ 차원이다. 크게 보아, 학교 급별[학년(군)별] ‘同一’과 ‘相異’이다. 영어과의 경우, 교과 공통 성격[총괄 성격]과 목표[총괄 목표]는 학교 급별로 공유 하되, 과목별 성격[세부 성격]과 목표[세부 목표]는 학교 급별로 다르게 진술했다.²²⁾ 중학교 ‘생활외국어’의 경우, 8개 ‘생활외국어’의 성격과 목표는 同一하고,²³⁾ 고등학교 ‘중국어’의 경우, 성격과 목표는 학교 급별, 과목별로 相異하다.²⁴⁾ 수학과와 영어의 경우, 학교 급별 성

20) 교육부(2015a;2015b). 참조. ‘성격’은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교과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본질, 의의 등), 교과 역량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1) 교육부(2015a;2015b). 참조. ‘목표’는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 점, 교과의 총괄 목표, 세부 목표, 학교 급 및 학년 군 별 목표 등을 진술한다.

22) ‘성격’ 및 ‘목표’ 기술 내용에서 교과 공통의 성격[총괄 성격] 및 목표[총괄 목표]를 共有하고, 이어서 과목 별 성격[세부 성격], 목표[세부 목표]를 기술했다. 총괄 목표, 세부 목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용어인데, 이를 準用하여 이 글에서 ‘총괄 성격’, ‘세부 성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23) 중학교 ‘생활외국어’의 경우, 8개 ‘생활외국어’의 개별적 언어 특성 보다는 ‘생활외국어’라는 層位에서 성격과 목표를 共有했다고 판단된다.

24) 외국어(과)라고 표에 명명했지만, 중학교는 ‘생활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가 정식 교과명이다. 그리고 중

격은 相異하되, 목표는 同一하다. 이와 달리, 국어과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同一하다. 적어도 성격 및 목표 차원에서는 위계를 考慮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位階는 ‘내용 체계’에서 試圖되었다.²⁵⁾ 내용 체계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 팀에서 작업했는데,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그리고 기능이라는 틀을 마련했다. 교과별로 이를 準用했고, 일부 교과는 교과 특성에 맞게 變容했다.²⁶⁾ 국어과, 영어과, 외국어과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동일한 틀을 사용했고, 수학과는 영역만 동일하며, 외국어과는 他科와 다른 틀을 사용했다. 동일한 틀을 사용했다고 해서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학년(군)별, 학교 급별로 내용 요소를 省略, 追加, 補充, 深化하는 方便을 사용했다. 위계화의 방편은 내용 체계에 제시된 ‘언어 재료’에서 強調되는데, ‘텍스트’에서 集中 분석하기로 한다. 위계는 ‘성취기준’²⁷⁾과 이에 대한 [성취기준]해설 층위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예컨대,

‘국어’는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段階化’하여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제시²⁸⁾

라는 기술에서, ‘段階化’라는 말이 그렇다. 한편, 예시 교과의 경우, 성취기준은 학교 급별로 相異한데, 학교 급별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진술했고, 성취기준 해설은 省略, 簡略, 擴張, 詳細 등으로 그 위계가 區別된다. 끝으로, ‘교수·학습’²⁹⁾인데, 학년(군)별, 학교 급별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보다 詳細化하여 기술하였다.贅言이지만, ‘同一’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活動’ 층위에서의 학교 급별 ‘위계’ 시도는 필자의 관심 분야이지만, 여기서는 端緒만 기록한다.³⁰⁾

학교 ‘생활외국어’는 8개의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는 8개의 외국어를 과목별로 I, II로 구분했다. 한문과도 그러하지만, I, II 標識가 바로 교육 내용의 深化를 전제로 한 위계화 方便이다.

25) ‘試圖’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計劃하거나 試驗 삼아 하여 봄[표준국어대사전]”인데, 표준화된 교육 내용에 대한 계획이나 시험이 이론 층위에서, 교실 수업 현장 층위에서 如實하게 적용되었는지는 未知數이다. 그래서 ‘試圖’란 어휘를 선택, 사용했다.

26) ‘내용 체계’의 교과적 변용은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수정, 보완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용 체계의 기능 및 틀에 대한 탄력적 해석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컨대, 국어과의 “‘국어’의 교수·학습 내용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은 하위 범주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각 영역이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학년(군)별로 제시한 내용 요소는 해당 학년(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되, 학년(군)간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학년(군)에서도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다. 또한,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영역의 성취기준을 같은 학년(군)의 다른 영역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진술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부(2015a), 39면. 참조.

27) 교육부(2015a;2015b). 참조.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다. ‘성취기준 해설’은 제시한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28) 교육부(2015a), 45면. 참조.

29) 교육부(2015a;2015b). 참조. ‘교수·학습’은 2개의 層位가 있다, 하나는 내용 체계의 성취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체계의 큰 구성 부분인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전자 곧,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을 위해 제안한 방법과 유의 사항, 그리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유도하는 내용을 말한다.

30) 교과의 위계화 방안은 교육 내용 선정의 구조화, 체계화, 그리고 先·後行 학습 내용의 排列 층위에서 일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지만, 필자는 동일 교육 내용[내용 요소, 혹 성취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 층위에서의 위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가령 ‘예측하기’라는 내용 요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은 필자

교육 내용의 位階 設定과 관련하여 우리의 注目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텍스트’이다. 영어과의 경우, 내용 체계에 기술된 ‘언어 재료’가 그 것인데, 영어과에서 활용 가능한 언어 재료를 문화, 소재, 언어[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 어휘, 언어형식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 문건에 [별표] 1~4를 제시하여, 언어 교과와 핵심 내용의 하나인 ‘언어 재료’를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위계화했다.³¹⁾ 좀 더 들여다보자. [별표 1] 소재³²⁾에서는 19개로 範疇化하였고, [별표 2]에서는 언어 곧,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11개의 범주별로 제시하였고, [별표 3] 어휘에서는 각 학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제시하는 한편, 기본 어휘 목록 3,000개를 제시하여 학년 군별, 학교 급별로 사용을 勸奨하였다.³³⁾ 또한 [별표 4]에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제시하여 文章 차원에서의 위계를 시도했다. 외국어과 ‘중국어’의 경우, 내용 체계 틀은 중학교 ‘생활중국어’, 고등학교 ‘중국어Ⅰ’, 고등학교 ‘중국어Ⅱ’가 同一하지만, ‘생활중국어’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국어Ⅰ’, ‘중국어Ⅱ’의 [별표1]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별표2]의 기본 어휘표를 제시하여 학교 급별, 과목별 위계를 設定했다.³⁴⁾

한편, 국어과의 경우, 비록 외형적으로 (초)중·고 학교 급별로 동일한 내용 체계 틀을 사용했지만,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補充, 擴張, 追加, 深化하는 작업과 학교 급별 성취기준의 相異한 기술을 통해 위계를 도모하는 한편, 학년(군)별 ‘국어 자료의 예’를 위계화의 방안을 삼았다. “‘국어 자료의 예’는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내용의 位階性과 학습의 系列性을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³⁵⁾할 수 있음을 前提하면서, 교실 수업에서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한 언어 재료 곧, 텍스트를 예컨대

대화, 토의, 토론, 논설문, 건의문, 면담, 연설, 광고, 발표, 강의, 설명문, 뉴스, 발표, 보고서, 사설, 기사문, 수필, 전기문, 평전,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영상물, 한국 및 외국 문학 작품³⁶⁾

의 注目을 끈다.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읽기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기술 내용인데, ‘내용 요소’는 ‘내용 예측’이다. “성취기준 [9국02-02] 독자의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① 예측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읽기 전과 읽기 중에 적절한 질문을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글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경험을 활성화하도록 사진이나 그림, 신문 기사나 글 등의 여러 가지 관련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책의 차례나 제목 등을 통해 글의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것도 글의 이해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교육부(2015a), 49~50면. 참고.

31) 교육부(2015a), 326~383면; 교육부(2015d), 934~991면. 참조.

32) 교육부(2015a), 326면. 참조. [별표 1] 소재에서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학습자들의 의사 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는 목적 아래 19개의 내용을 제시했다. 예컨대,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 것이다.

33) 교육부(2015a), 339~373면. 참조. [별표 3] 어휘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서 각 학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초등학교 3~4학년군 240 낱말 내외, 5~6 학년군 260 낱말 내외, 중학교 1~3 학년군 750 낱말 내외(총계 1,250 낱말 내외), 고등학교 영어(공통과목) 550 낱말 내외(총계 1,800 낱말 내외)로 제안했다. 고등학교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전문 교과Ⅰ은 교과목별로 별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한 3,000개의 어휘 가운데, *표를 한 어휘는 800개로 초등과정에서 사용하기를, **표를 한 어휘는 400개로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Ⅰ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했다.

34) 교육부(2015a), 457~467면; 교육부(2015d), 1135~1176면. 참조. ‘어휘’의 경우, [별표 2]에 제시된 기본 어휘 가운데, ‘생활중국어’는 250개 내외의 낱말을, ‘중국어Ⅰ’은 400개의 낱말을, ‘중국어Ⅱ’는 800개의 낱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낱말 수로 학교 급별, 과목별 교육 내용의 위계를 시도했다.

35) 교육부(2015a), 45면. 참조.

36) 교육부(2015a), 60면. 참조.

등으로 제시하였다. 필자의 관심은 텍스트의 분류, 소개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한** 대화 토의, 토론, 논설문, 건의문”³⁷⁾, “**동일한 글감이나 대상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는** 둘 이상의 사실, 기사문”³⁸⁾, “**삶의 방식, 이념, 문화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해결을 담고 있는** 글이나 문학 작품”³⁹⁾ 등과 같이, ‘具體的 場面’과 ‘特定 脈絡’을 결합하여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기술하는 방식이, 한문교육학 연구자에게 더욱 흥미와 관심을 誘發시키는 記述이다.

2. 漢文科 教育 內容 位階化

이 글의 주제인 학교 급별 위계화에 焦點을 두고,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분석한다.⁴⁰⁾ 나는 이 글에서 ‘位階化’의 층위 곧, 위계 설정 관점에서 따진다. 한문과를 포함한 국가 수준 各論 교육과정은 네 부분 곧,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그리고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構成되었다. 한문과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곧, 學校 級別로 區分하고, 중학교는 ‘한문’, 고등학교의 경우 ‘한문Ⅰ’, ‘한문Ⅱ’ 科目別로 교육과정 문건이 개발되었다.

‘1. 성격’의 경우, ‘한문’, ‘한문Ⅰ’, ‘한문Ⅱ’에 기술된 내용이 同一하다. 곧,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그리고 ‘한문’, ‘한문Ⅰ’, ‘한문Ⅱ’ 과목별로 다르지 않다. ‘2. 목표’의 경우, 한문과의 總括 目標은 동일하지만, 細部 目標은 ‘한문’, ‘한문Ⅰ’, ‘한문Ⅱ’ 과목별로 달리했다.⁴¹⁾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⁴²⁾ 또한 학교 급별로, 그리고 ‘한문’, ‘한문Ⅰ’, ‘한문Ⅱ’ 과목별로 다르지 않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⁴³⁾은 위계화와 관련하여 注目을 요한다.⁴⁴⁾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기술의 편의상 記號로 略稱한다. <표 2>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분석한다.

37) 교육부(2015a), 60면. 참조. <중학교 1~3학년 국어 자료의 예>

38) 교육부(2015a), 60면. 참조. <중학교 1~3학년 국어 자료의 예>

39) 교육부(2015b), 56면. 참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자료의 예>

40) 장호성 외(2015); 장호성(2016). 참조.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은 이미 동학들의 연구 보고가 자세한데, 특히 장호성(2016)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을 이전 교육과정 곧,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하게 기술했다.

41) 주지하듯이, 세부 목표 가운데, 중학교 ‘한문’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문Ⅰ’의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한문Ⅱ’의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라는 진술이 주목되는데,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의 量으로 학교 급별, 과목별 위계화를 시도했다.**

42) 교육부(2015a;2015b). 참조. ‘교수·학습 방향’은 교과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 측면에서 교수·학습의 철학 및 방향, 교수·학습의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고, ‘평가 방향’은 교과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 측면에서 교과의 평가 철학 및 방향,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한다.

43) 교육부(2015a;2015b). 참조. 다시 확인한다. ‘내용 체계’는 교과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명칭 및 개념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면서, 총론팀의 ‘신상품’으로, 이름을 달리하여 소개된다.

44) 원용석(2004; 2007); 안재철(2003); 송병렬(2003b); 김왕규(2005); 김우정(2019). 참조. ‘내용 체계’ 관련 연구 성과는 동학들에 의해 꾸준히 학계에 보고되었다. 김왕규(2005)에서 교과 일반의 내용 체계의 기능과 관점, 영역 구분의 기준과 범주화 및 구조화의 원리를 언어 교과의 관점에서 보고했다. 최근 김우정(2019)에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내용 체계 시안을 보고했다.

<표 2>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⁴⁵⁾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기능
A	A-1	A-1-가	A-1-가-a	A-1-가-a-(㉠) [9한01-01]	①~⑧
			A-1-가-b	A-1-가-b-(㉡) [9한01-02]	
			A-1-가-c	A-1-가-c-(㉢) [9한01-03]	
			A-1-가-d	A-1-가-d-(㉣) [9한01-04]	
		A-1-나	A-1-나-a	A-1-나-a-(㉤) [9한01-05]	
		A-1-다	A-1-다-a	A-1-다-a-(㉥) [9한01-06]	
B	A-2				
	B-1				
	B-2				
	B-3				

영역은 A, B이다. 영역 A 곧, ‘한문의 이해’의 핵심 개념은 A-1~2이다. 핵심 개념 A-1 곧, ‘한자와 어휘’의 일반화된 지식은 A-1-가~다이다. 일반화된 지식 A-1-가 곧,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의 내용 요소는 A-1-가-a~d이다. 영역 A를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인 기능은 ①~⑧이다. 한편, 내용 요소 A-1-가-a 곧, ‘한자의 모양·음·뜻’의 성취기준은 A-1-가-a-(㉠)인데,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이다.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 A 영역 가운데, 핵심 개념 A-1의 성취기준의 표기 방식과 개수는 [9한01-01] ~ [9한01-06]이다. 그리고, 성취기준 [9한01-04], [9한01-05], 그리고 [9한01-06]과 관련하여 성취기준 해설을 기술했다.

교육 내용의 構造化, 體系化에 주목한다.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경우, 2개의 영역, 5개의 핵심 개념, 11개의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18개의 내용 요소로,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의 경우, 2개의 영역, 5개의 핵심 개념, 11개의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20개의 내용 요소로, 그리고 고등학교 ‘한문 II’ 교육과정의 경우, 2개의 영역, 5개의 핵심 개념, 10개의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16개의 내용 요소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 체계화했다. 참고로, 기능은 학교 급별, 과목별 39개로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교육 내용의 ‘位階化’에 集中해 보자. 영역, 핵심 개념은 학교 급별 上·下 및 先·後의 等級 곧, 位階를 두지 않았다. 일반화된 지식은 ‘한문 II’의 경우,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를 省略하였는데, 先行 학습 내용의 ‘省略’은 위계화의 한 方便이란 점에서, 학교 급별 위계를 두었다. 내용 요소는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경우, 중학교 ‘한문’의 내용 요소에 ‘품사의 활용’,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를 追加하였고, 고등학교 ‘한문 II’의 경우,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내용 요소에서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문장의 유형’을 省略하였는데, 追加와 省略은 위계화의 方便이란 점에서, 학교 급별 위계를

45) 교육부(2015a; 2015b). 참조. 주지하듯이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두 부분으로 독립되어 기술되었고,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기능 4부분으로 구성되었지만, 기술의 편의상 ‘성취기준’을 ‘내용 체계’에 함께 기술했는데, 點線으로 표시해서 이 점을 밝혔다.

두었다.

‘성취기준’은 精緻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취기준의 위계화는 일차적으로 학교 급별, 과목별 성취기준 個數의 增加와 減少로 확인되는데, 중학교 ‘한문’은 19개, 고등학교 ‘한문 I’은 21개, 그리고 ‘한문 II’는 17개로 증가하거나 감소되었다. ‘增加’는 교육 내용의 수량적 늘어남 혹은 교육 내용의 보충, 심화라는 점에서 ‘위계’의 설정이며, ‘減少’ 곧, 줄이거나 덜어서 數量을 적게 하되, 낮은 단계의 교육 내용을 상급 단계에서 줄이거나 더는 것 또한 위계의 방편으로 판단된다. 성취기준 개수의 增減은 앞의 기술에서 예상되는 것이지만 내용 요소의 추가, 생략과 관련된다. 교육 내용 위계화는 성취기준 個數의 增減과 다른 층위 곧, 내용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 기술 層位에서도 試圖되는데, [사례 1~3]을 통해 확인해 보자.

[사례 1]

내용 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가) 한자의 모양·음·뜻	[9한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12한문 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12한문 I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나) 품사의 활용	[12한문 I 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다)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12한문 I 02-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내용 요소 (가)에 대한 성취기준은 학교 급별, 과목별로 同一하다. 성취기준 해설은 省略 곧, 기술하지 않았다. 성취기준 진술 내용으로 보면, 位階가 없는데, 주지하듯이,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그리고 보다 확장된 한자를 前提한 진술이기 때문에 위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⁴⁶⁾ 이 점은 내용 요소 ‘학습 용어’의 경우, 학교 급별, 과목별로 동일한 성취기준이지만, 성취기준 해설에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상·하의 등급을 구분한 것⁴⁷⁾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경우, 내용 요소 (나), (다)의 追加로 인해 성취기준 [12한문 I 01-07], [12한문 I 02-02]가 추가로 진술되었고, 성취기준 個數가 增加했다. 내용 요소의 追加로 인한 성취기준 개수의 增加는 바로 位階化의 한 方便이다. 數量, 追加, 增減 등이 바로 위계 설정이다.

46) 김경익(2011), 248면. 참조. 김경익은 이 글에서 “한문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학년·학교급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적용 범위”라고 하면서,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 따른 구분 이외에도 일부 내용의 추가, 확장, 삭제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의 위계를 의도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47) 교육부(2015a;2015b). 참조. ‘[9한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중학교 한문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교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술했고, ㉠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등학교 한문 I에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고등학교 한문 II에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로 기술한 점에서 위계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2]

내용 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가) 한자의 짜임	[9한01-01]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12한문 I -01]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나) 단어의 짜임	[9한01-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12한문 I 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다) 끊어 읽기	[9한02-04]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12한문 I 02-05]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사례 2]는 동일한 내용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이 학교 급별로 다른 경우인데, 성취기준 진술을 달리하여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꾀했다. (가)의 경우,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한자의 짜임’으로 진술했는데, 위계의 실체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보이는 바, [9한01-01]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12한문 I -01]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전주, 가차를 補充, 擴張했다. (나)의 경우, ‘단어의 짜임’을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으로 진술했는데, [9한01-05]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5개의 단어의 짜임을, [12한문 I 01-05]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과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補充, 深化했다.⁴⁸⁾ (다)는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우, ‘문장 부호’를 보충하여 진술했는데, 교육 내용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補充, 擴張[擴大], 深化 등이 바로 위계 설정이다.

[사례 3]

내용 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내용과 주제	(가) [9한01-06] 한문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9한문01-07]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12한문 I 02-07]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12한문 I 02-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사례 3]은 교육 내용의 위계화가 3가지 層位에서 구현됨을 보여 주는데, 먼저 (가)의 경우, 동일학교 급에서 동일한 1개의 내용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을 2개의 성취기준으로 진술함으로써 ‘내용과 주제’라는 내용 요소를 詳細化했다. 다음으로 (나)의 경우, ‘다양한 서술 방식’,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보충 진술함으로써 동일 내용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

48) 교육부(2015b), 1377면. 참조.

을 학교 급별로 擴張했다. 한편, 성취기준 해설 층위에서, [12한문 I 02-07] 성취기준 해설의 경우,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하는 예시를 추가로 상세화하여 진술하였고, [12한문 I 02-08] 성취기준 해설의 경우,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더해 “한시의 시체, 압운, 대우” 등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보충 진술하여 교육 내용의 擴張을 도모했다. 성취기준 個數의 增加, 詳細化, 擴大[擴張] 등은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전제한 작업의 一環이다.

Ⅲ. 漢文科 教育課程 學校 級別 位階 設定

‘학교 급별 위계 설정’이라는 갈 길이 어려워 迂廻했고, 교과별[국어, 영어, 수학, 외국어] 교육과정과 한문과 교육과정의 위계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端緒를 확인했다. 작은 꼬트 머리지만 부여잡고, 우리가 가야 할 地點 곧, 한문과 교육과정 학교 급별 교육 내용 위계 설정으로 향한다. 거듭 고백하거니와, 위계 설정에 이른바 ‘神의 한 수’는 없는데, 있다 한들, 두기 어렵고, 나는 그 한 수를 둘 공부도 부족하다. 記述의 편의에 기대고자, <표 3>를 마련하여 논의를 시작한다.

<표 3> 한문과 교육과정 학교 급별 位階 설정 구성 요인[기준]

학교 급	과목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성취 기준 해설	한자	텍스트	교수·학습 및 평가	기타 요인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									
(2022개정) 고등학교	일반선택									
	융합선택									
	심화선택									

주지하듯이, 각론 교육과정 문건 체제와 내용 체계 틀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팀)이 기본 설계를 구안, 제공하면, 이를 각론 교과별로 수용, 혹 일부 變容한다.⁴⁹⁾ 여기서는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大體를 따른다. 세로는 학교 급(별), 가로는 위계 설정 구성 요인[基準]이다. 학교 급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 것은 현행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것이다.⁵⁰⁾ 이 장에서는 위계 설정의 요인[기준]에 대한 방향만 제시하고, ‘기

49) 김우정(2019); 장호성(2016). 참조. 이 점을 장호성(2016; 48)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교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거대한 공통 밑에 종속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50) 윤지훈(2019); 배희정(2020); 김왕규(2021); 손영태(2021). 참조. 고교학점제,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에 對 備한 논의가 최근 동학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김왕규(2021)에서 특히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방안에 대한 관련 학계의 대안을 소개했고, 한문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일반, 융합, 심화] 교과목 편제 시안을 마

준의 구체적 진술 내용과 기술 방식’은, II장의 분석과 동학들의 연구 성과⁵¹⁾에 기대는 한편,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동학들의 協業을 기다리기로 한다.

‘性格’은 “교과의 고유한 특성”, “교과교육[한문과교육]의 필요성 및 본질”을 제시한다.⁵²⁾ 이 점에서 학교 급별로 共有한다. ‘目標’은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⁵³⁾인데, 총괄 목표는 공유하되, 세부 목표는 학교 급별로 補充, 深化, 혹은 詳細가 필요하다.⁵⁴⁾ 이 점에서 학교 급별 위계를 설정한다.

‘내용 체계’는, 개별 교과의 교육 내용의 ‘總體’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의 기술 및 현장 실행 과정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範疇[예컨대,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등]로 區分한 것인데, 특정 範疇의 省略, 補充, 追加에 따른 增減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급별 위계 설정이 요구된다. 성취기준은 특정 범주의 생략, 추가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고, 성취기준 해설 또한 補充, 擴張, 深化, 詳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급별 위계 설정이 자유로운데, 기술 原理⁵⁵⁾와 構造[틀]에⁵⁶⁾ 대한 정치한 작업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은 내용 체계의 그것과 교과 전체 층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동일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 대한 ‘活動’의 보충, 심화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급별 위계 설정 시도가 필요하다.

한자[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를 포함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는 교육 내용의 학교 급별 위계 설정과 관련하여 핵심 과제임은, 예컨대,

한문과가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범위는 너무나 넓다. 그것을 어떻게 수준별로 系列化·位階化 할 것인가?⁵⁷⁾

라는 질문⁵⁸⁾에서 확인된다. 이 질문, 곧 텍스트[언어 재료]의 학교 급별 위계화 문제에 대해,

런했다.

51) 예컨대, 내용 영역 설정 및 조직 원리는 송병렬(2003b; 2005)을, 창의·인성 영역의 내용 선정과 조직, 그리고 그 교육 방안은 정재철(2013), 김왕규(2013a), 한은수(2013), 강민구(2013), 김병철(2013)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급별 ‘성취기준’의 기술 내용 및 그 방식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성취기준 및 성취 수준 개발 연구’ 보고서를 개발했다. 그리고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는 ‘한문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의 내용 분석과 적용 방안 모색’이라는 기획 주제를 마련했고, 장호성(2012)의 10여명의 동학들이 영역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발표했다. 동학들의 연구 보고 내용은 『漢字漢文教育』 29집에 자세히 다.

52) 교육부(2015a;2015b). 참조.

53) 교육부(2015a;2015b). 참조.

54) 진재교(2004); 김우정(2018; 2019). 참조. 최근 김우정(2019)에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시안을 마련하였다.

55) 교육과학기술부(2007), 24면. 참조. 성취기준 기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성취기준은 ①담화 또는 글의 유형+ ② 주요 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 ③행동(분석, 해석, 평가, 조사 등)을 결합하여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참고할 만하다.

56) 백광호(2012). 참조. “성취수준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수 단위’를 도입하였는데, 특정 교수 단위에 학습 목표, 관련 자료, 학습 문제·활동, 배경 지식, 성취수준”을 포함하는 틀을 학계에 보고했다.

57) 윤재민(2011), 6~7면. 참조.

58) 김연수·송혁기(2011: 121)의 “텍스트의 수준을 논한다는 것은 위계화 문제와 직결”, 김우정(2011: 69)의 “문학 산문의 학교급별, 학년별 기준과 범위는 과연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 된다는 말 또한 같은 질문이다.

동학들은⁵⁹⁾ 애써 위계화 基準⁶⁰⁾을 설정하는 한편, 구체적 代案⁶¹⁾을 보고했다. 한자 곧,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교 급별 字種 선정 및 字數 결정과 관련하여 학계는 참으로 오랫동안 노력을 쏟았는데,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그리고 ‘보다 확장된 한자’라는 기준(?)을 어렵게 마련했다. 한자를 포함한 텍스트의 학교 급별 수준 설정은 동학들의 ‘기준’과 ‘대안’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참여진들의 精緻한 分析과 協業에 도움을 받기로 한다.⁶²⁾

IV. 餘言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개의 端緒를 겨우 찾았는데, 共有[共通]와 區別, 省略[減]과 追加[增], 數量, 補充, 擴張, 深化, 詳細 등이 위계 설정의 주요 標識이다. 各論 개발진의 입장에서 總論의 제 규정이 그러하듯, 현장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학습 環境에서 한문과 교육과정의 체제와 구성 요소는 ‘특정’ 시기 교육과정의 표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문과 교육과정 학교 급별 교육 내용 위계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多岐한 要因 예컨대, 총론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수능 정책, 현장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한문 운영 실태, 한문 교사와 한문 학습자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反影하면서, 한문교육학 구성원들이 애써 찾은 표지의 運用, 變容, 成敗는,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동학들의 眼目, 調和, 協業에 달려있다. 늘 갈 길은 멀고, 마음은 慘憺하다.

[參考 文獻]

교육과학기술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국어』

교육부(2015a),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3](교육부 고시 제2015-74의 부칙 개정)

교육부(2015b),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4](교육부 고시 제2015-74의 부칙 개정)

교육부(2015c), 『고등학교 교육과정(Ⅱ)』,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4](교육부 고시 제2015-74의 부칙 개정)

교육부(2015d), 『고등학교 교육과정(Ⅲ)』,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4](교육부 고시 제2015-74의 부칙 개정)

강민구(2013),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漢文教育研究』 40, 韓國漢文教育學會, 85~138

59) 윤재민(2008; 2011); 이군선(2011); 임완혁(2011); 김성중(2011); 김우정(2011); 김연수·송혁기(2011). 참조. 2011년 한문교육학회는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기획 주제로 설정했는데, 短文, 散文, 寓話·說話·小說, 儒經·諸子, 그리고 漢詩로 구분했다. 한편, 유영봉(2005)은 한시 학습 다네 설정을, 김정익(2011)은 단문 교육의 위계화 방향을 탐색한 보고를 제출했다.

60) 백광호(2009); 김연수·송혁기(2011). 참조. 백광호(2009)의 경우, (교과서)산문 체제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체제별 점수로 체제의 위계 설정을 시도했고, 김연수·송혁기(2011)는 한시 텍스트의 빈도별 수록 양상을 통해 중학교 ‘한문’ 교과서 한시 체제 선정 기준을 도출했다.

61) 임완혁(2011). 참조. 예컨대, 임완혁(2011)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언, 설화, 소설의 수준과 범위를 정리, 제시했다.

62)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種 및 字數와 관련하여 허철(2008; 2010; 2012; 2015; 2019a; 2019b)의 독자적 작업이 한문교육학 동학으로서 참 고맙다. 한자 수준 설정과 관련하여 김왕규·박상우(2017)의 시도가 새롭다. 한편, 최근 한문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이독성’에 주목한 연구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었는바, 김창호·김대희(2012), 김왕규·박상우(2014), 박상우(2018 ; 2019)를 들 수 있다. 특히 박상우(2019)는 텍스트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이독성’ 개념을 한문과 텍스트 선정 및 독해 자료 수준 평정에 활용한 연구를 보고했다.

면.

- 김경익(2011), 「한문 단문 교육의 위계화를 위한 방향 탐색」, 『한문학논집』 32집, 근역한문학회, 245~264면.
- 김병철(2013),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방법」, 『漢文教育研究』 40, 韓國漢文教育學會, 155~210면.
- 김성중(2011), 「한문교과서에서 儒經·諸子書의 제재 선정 수준과 범위」,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159~182면.
- 김연수(2016),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의 한문 교과서 적용 양상 연구」, 『漢文教育研究』 46, 韓國漢文教育學會, 305~344면.
- 김연수·송혁기(2011), 「한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1)-중학교 한문 교과서 한시 텍스트의 수록 양상 분석」,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면.
- 김우정(2011), 「한문과 교육에서 문학 산문의 수준과 범위」,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49~76면.
- 김우정(2018), 「한문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漢文教育研究』 50, 韓國漢文教育學會.
- 김우정(2019),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견-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겸하여-」, 『漢文教育研究』 53, 韓國漢文教育學會.
- 김왕규(2005), 「언어 교과의 ‘내용 체계’의 몇 가지 쟁점」, 『漢文教育研究』 24, 韓國漢文教育學會, 117~135면.
- 김왕규(2013a), 「한문과 창의·인성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漢文教育研究』, 韓國漢文教育學會, ~면.
- 김왕규(2013b), 「한문, 국가 어문 정책에 길을 묻다」, 『동양한문학회연구』 37집, 동양한문학회, 33~48면.
- 김왕규·박상우(2014), 「한문텍스트 이독성 요인 분석을 통한 이독성 공식 개발 연구」, 『漢文教育研究』 43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59~322면.
- 김왕규·박상우(2017), 「한자 수준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아이트래커를 활용한 학습자의 한자 인지 특성 파악」, 『漢文教育研究』 49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17~280면.
- 김왕규(2021), 「高等學校 漢文科 ‘選擇科目’ 教科目 編制 및 單元 構成 方案-고교학점제 도입과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漢文教育研究』 56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9~58면.
- 김창호·김대희(2012), 「이독성 논의를 통해 본 한자 어휘 수준의 결정 요인에 관하여」, 『漢字漢文教育』 29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87~105면.
- 박상우(2018), 「한문 易讀性 공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우(2019), 「한문 이독성 공식을 활용한 평정의 실제」, 『漢文教育研究』 52, 韓國漢文教育學會, 63~94면.
- 백희정(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과 교육의 현재와 과제」, 『漢文教育研究』 54, 韓國漢文教育學會, 123~150면.
- 백광호(2009), 「제7차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산문 제재의 유형과 위계에 관한 시론」,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학회, 259~289면.
- 백광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수준 개발을 위한 일고」, 『漢文教育研究』 38, 韓國漢文教育學會, 141~175면.
- 손형태(2021),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漢文教育研究』 56, 韓國漢文教育學會, 59~94면.
- 송병렬(2003a), 「한문 교육의 위계성과 연계성 문제-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위계성과 연계성」, 『한문학보』 9집, 354~386면. (『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 재수록)
- 송병렬(2003b), 「한문과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체계의 문제」, 『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 문자향.
- 송병렬(2005),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설정 및 내용 조직의 원리 모색」, 『漢文教育研究』 24, 韓國漢文教育學會, 21~46면.
- 송병렬(2006), 『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개정·증보), 문자향.
- 안재철(2003), 「한문과 교육과정의 영역에 대한 문제 검토」, 『漢文教育研究』 20, 韓國漢文教育學會, 443~486면.
- 원용석(2004),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고찰」, 『漢文教育研究』 22, 韓國漢文教育學會, 39~70면.
- 원용석(2007), 「한문과 교육과정 변천과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봉(2005), 「한시 학습 단계 설정을 위한 문제의 제기」, 『漢文教育研究』 24, 韓國漢文教育學會, 71~94면.

- 윤재민(2008), 「한문 텍스트의 중학교 교과서 수용 범위와 수준-단문, 산문, 한시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31호, 韓國漢文教育學會, 19~33면.
- 윤재민(2011), 「한문과 교육에서의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5~20면.
- 윤지훈(2019), 「고교학점 대비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漢字漢文教育』 47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5~40면.
- 이군선(2011), 「한문과 교육에서 단문의 수준과 범위」,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면.
- 임완혁(2011), 「한문과 교육에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우화, 설화, 소설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시론」,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면.
- 장호성(2016),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 『漢文教育研究』 46, 韓國漢文教育學會, 5~52면.
- 장호성·윤지훈·윤재민·송병렬·김왕규·이군선·이경우·김경익·김성중·최정윤(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호성·윤지훈·윤재민·김왕규·이군선·김우정·김은경·이승현·최현선·정효영·배희정(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재철(2013), 「한문교육과 창의·인성교육-이론적 기반의 모색」, 『漢文教育研究』 40, 韓國漢文教育學會, 9~39면.
- 진재교(2004), 「제7차 교육과정 한문과의 성격, 목표에 대한 단상」, 『漢文教育研究』 22, 韓國漢文教育學會, 13~38면.
- 한은수(2013), 「초등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 『漢文教育研究』 40, 韓國漢文教育學會, 41~84면.
- 허철(2008), 「국어사전 등재 어휘를 통해 본 어휘 구성 분석과 한자의 조어 능력 조사」,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89~333면.
- 허철(2010),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1,2>를 통해 본 한자어의 비중 및 한자의 활용도 조사」, 『漢文教育研究』 34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21~244면.
- 허철(2012),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상용도, 활용도 연구」, 『동방한문학』 53, 동방한문학회, 213~247면.
- 허철(2015),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상용도, 활용도 연구」, 『漢文教育研究』 44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27~266면.
- 허철(2019a), 「코퍼스에 기반한 교육용 한자·한자계 어휘 위계화 연구(1)-기존 교육용 한자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52호, 韓國漢文教育學會, 95~114면.
- 허철(2019b), 「코퍼스에 기반한 교육용 한자·한자계 어휘 위계화 연구(2)-한자계 어휘 학습용 한자어 및 한자의 선정 방안과 결과 검토」, 『漢字漢文教育』 46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177~202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 교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 설정 방안 탐색

구수연(갈월중학교 연구부장) · 함영대(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목차

- I. 서론
- II. 고교학점제에서 한문 교과의 현황
 - 1. 학교별 한문교과 개설 현황 - 경기도의 경우
 - 2. 한문 등록 과목의 현황
- III.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 방안
 - 1. 한문과 선택과목 편제 방안
 - 2. 한문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 방안
- IV. 결론

I. 서론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로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사 수급 및 지역별 인프라 격차 등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강행이라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막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선 중등학교에서 한문교과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대학 입시로 중등교육이 수렴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에서 주요 교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한문 과목은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제도적 보완이나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과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흥미를 유발하고 필요를 자극하는 과목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나 교육과정상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등 국면마다 적지 않은 고민과 기민한 대응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 먼저 고교학점제 초기 단계에서 있는 현 시점에서의 한문 교과의 현 주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한문이 얼마나 선택되었는지, 또 한문이 어떤 과목과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이 한문과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한문 교과가 개설된 학교의 비율을 알아보고,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한문 교과의 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에서 한문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재 개설된 한문 교과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살피고,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어떤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자료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의 진척이 되어 있으므로 적극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고교학점제에서 한문 교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과목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시론적인 단계로 여러 아이디어들을 경청하고 종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II. 고교학점제에서 한문 교과의 현황

1. 학교별 한문교과 개설 현황

1) 고등학교 한문 교과 개설 현황

이 장에서는 현재 경기도 고등학교에서의 한문 교과 편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경기도 내(478개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도시 형태와 학교 형태가 공존하기에 지역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¹⁾

〈표1〉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한문 교과 개설 현황

	전체	개설	미개설
고등학교수	478	334	144
특성화고	74	29	45
특목고	13	1	12



1) 해당 통계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공시된 경기도 내 고등학교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전체 고등학교(478개교)에서 한문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30%에 달하는 144개교이며,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 특성화고 및 특목고에서의 비율은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특성화고의 경우는 29개의 개설학교 가운데 18개교가 사립학교이다. 기존에 있던 한문 교사의 시수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만약 한문교사가 정년 퇴임을 할 경우 신입 교사를 채용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외고와 국제고인 특목고의 경우는 13개교 중 김포외고만이 유일하게 중국어과에 한문이 편성되어 있어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5년도 특목고가 폐지되는 이후에 과연 기존에 없던 한문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을지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한문 교과 학년별 편성 현황

다음으로 한문을 개설한 334개교에서 한문이 학년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야말로 한문과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1학년은 학생의 선택권을 최소화한 공통교과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교과목들은 1학년에 배치되기를 기대한다.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다.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는 2, 3학년의 경우는 여러 과목들 중에 제한된 몇 과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교사들간의 반목과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표2>는 고등학교에서 한문 교과의 편성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2> 한문 교과 학년별 편성 현황

학년별	1개 학년만 편성									2개 학년 편성	
	1학년			2학년			3학년			1년단독 +선택/ 집중	2년 선택/ 집중
	단 독	집중 이수	선택	단 독	집중 이수	선택	단 독	집 중 이 수	선택		
학교수	42	39	4	43	9	26	66	5	39	22	39
합계	85			78			110			61	

〈표2-1〉



〈표2-2〉



〈표2-3〉



〈표2-4〉



위 〈표2-1〉를 보면 집중이수나 선택이 아닌 한문 교과가 ‘단독’으로 편성된 경우는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수시원서를 쓰는 8월 이후로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기피하는 학년이다. 즉 한문 교과의 경우 타 교과와의 선택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교육지책으로 3학년에 수업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긍정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지만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경우와 비길 수는 없다.

한문이 단독이 아닌 집중이수나 선택과목이 될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묶이게 된다.

1. 정보 혹은 기술가정 둘 중 한 교과와 묶여 2개 교과를 학기당 집중이수하거나 택1.
(주로 1학년에 많음. 〈표2-2〉 참조)
2. 수능체제와 같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외국어 영역으로 묶는 경우.
(대체로 2학년에 많음. 〈표2-3〉 참조)
3. 다양한 과목의 진로선택 과목들을 총망라한 것 중에 선택하는 경우.
(3학년이 많음. 〈표2-3〉참조)

〈표2-4〉를 보면 한문은 1개 학년에만 배정되는 경우가 82%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당 한 명 뿐인 한문 교사의 수업 시수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한문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한문 I, II로 너무나 제한적인 상황임도 부정할 수 없다.

2. 한문 등록 과목의 현황

그렇다면 지금까지 등록된 한문 교과는 얼마나 될까? 나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이 총 8개 과목이다.

〈표3〉 현재 등록된 한문 교과 현황

과목명	등록기관
교양한문	경상북도교육청
생활과 한문	전라북도교육청
생활한문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문	교육부
*한문 I	교육부
*한문 II	교육부
한문고전	경상북도교육청
한의학 한문	전라북도교육청

(*은 고시과목)

교육부 고시 과목인 한문, 한문 I, 한문 II 외에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교양한문, 생활과 한문, 생활한문, 한문고전, 한의학 한문이 있다. 하지만 고시의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구할 수 없고, ‘생활한문’의 경우는 대안학교 수업을 위해 등록한 과목이라 다른 학교에서도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²⁾

즉, 8개 과목 중 실제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문 과목은 ‘한문 I, II’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고교학점제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고등학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334개 한문 개설교 중에서 ‘한문고전’을 채택한 6개교, ‘생활 속의 한자’를 채택한 1개교를 제외하고는 327개교가 모두 한문 I 과 한문 II 만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가 주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가뜰이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목명 또한 이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하니 학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고교학점제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III.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방안

위에서 살펴보았듯 한문 교과가 고교학점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과목 신설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그럴듯한 제목만 붙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한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문교육 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안된 한문과 선택

2) 손형태(2021),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한문교육연구』 56, 한국한문교육학회, 12면.

과목 방안을 살펴보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문과 선택과목 편제 방안

여기서는 현재까지 학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발표된 시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것은 한문과교수협의회 및 한문교육학 학회 시안이다.³⁾

〈표4〉 한문과교수협의회 및 한문교육학 학회안

교과(군)	필수 과목	선택과목			
		기초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한문			실용한자, 한자문화권의 이해, 기초 한문	중급 한문, 동양고전 기초, 한국한문고전 기초	고급 한문, 한시 감상, 한문산문 감상, 동양고전 독해, 한국한문고전 독해
수학	수학	기본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 II,...

일반 선택의 경우, 기존의 한문 I, II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실용한자, 한자문화권의 이해, 기초 한문 등으로 많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선택과 심화선택의 경우는 중급한문, 고급한문과 같은 수준별 한문 교과와 동양고전, 한국한문고전, 한시, 한문산문 등 한문의 내용영역을 구분하여 교과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2021년 3월 24일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안된 한문 과목 예시이다.⁴⁾

〈표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세미나안

교과	과목		과목 예시(1안)	과목 예시(2안)
보통 교과	공통과목		기본 한문	기본 한문
	선택 과목	일반선택과목	한문 I, 한문 II ¹⁵⁾	한문 I
		융합선택과목	여행 한문, 실용 한문, 고사성어 한문 등	여행 한문, 실용 한문, 고사성어 한문 등
		진로선택과목 ¹⁶⁾	한문 산문 감상, 한시 감상, 동양고전의 이해, 한국한문고전의 이해 등	한문 산문 감상, 한시 감상, 동양고전의 이해, 한국한문고전의 이해 등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2개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2020. 7. 1, 김왕규(2021),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및 단위 구성 방안」, 『한문교육연구』 5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34면 재인용

4) 김왕규(2021), 앞의 논문, 36면.

위에서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기본 한문’은 중학교에서 한문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 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다. 융합선택과목은 문화재나 명승·고적 여행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자 및 한문 관련 내용을 교과 내용으로 하는 ‘여행 한문’,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하는 한자 어휘 및 명언 명구를 교과 내용으로 하는 ‘실용 한문’, 고사성어의 내력을 교과 내용으로 하는 ‘고사성어 한문’ 등이 있다.⁵⁾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는 <표4>와 큰 차이 없이 한문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영역별로 독립된 교과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김왕규 교수가 제안한 과목의 시안이다.⁶⁾

<표6> 한국교원대 김왕규 교수 제안 시안

교과	과목		과목 예시(안)
보통 교과	공통과목		기본 한문/한문 ²²⁾
	선택 과목	일반선택 과목	* 과목 성격 :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 실용한자와 한자어, 실용고사성어, 실용한문, 한문단문[명언·명구·격언], 한시 감상, 한문 소설 감상, 한국한문고전읽기
		융합선택 과목	* 과목 성격 :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 국어 어휘와 한문, 국문학과 한문, 역사학과 한문, 동양 철학과 한문, 의학과 한문, 사회문화와 한문, 우주 천문과 한문, 자연 생태와 한문, 인문 지리와 한문, 여행 지리와 한문, 예술과 한문, 동양 미학과 한문, 글쓰기와 한문, 인성교육과 한문, 가정교육과 한문, 문화유적답사와 한문, 평생교육과 한문
		진로선택 과목	* 과목 성격 :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동양고전읽기, 인문학[인문계열]과 한문, 자연과학[자연계열]과 한문, 사회과학[사회계열]과 한문, 예체능[예체능계열]과 한문, 의학계열과 한문, 한의학과 한문, 의학 한문, 한국문화관광과 한문, 글쓰기와 한문, 자연[풍수]지리와 한문, 문헌정보[출판문화]와 한문, 평생교육과 한문, 경제·경영과 한문, 정치학과 한문, 스토리구성(작가)과(와) 한문, 문화컨텐츠학과 한문, 교육(학)과 한문

교육부가 규정한 선택과목의 성격에 따라 한문 교과와 접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와 영역을 총망라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안에서는 기존의 한문 I, II의 체계를 배제하고 실용성과 타교과와의 연계성, 다양한 문화영역과 한문을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 많은 영역과 분야를 실질적으로 ‘독립된 교과’로서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어 교과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과서를 무작위로 펼쳤을 때 나오는 용어의 대부분이 한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사회 과목의 경우 수업의 상당 부분을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를 풀어서 개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그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 한문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는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 교육과정평가원(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82-83면. 위 논문에서 재인용

6) 김왕규(2021), 앞의 논문, 38면.

2. 한문 선택 교과재구조화 방안

위에서 한문 선택 교과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과연 이 과목들이 학생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2018년 고등학교 교사(99.2%) 및 장학사, 연구사,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총 10,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과별 선택 과목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한문의 경우 ‘폐지’나 ‘제2외국어에 포함’ 등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⁷⁾ 응답자 중 한문 교사가 있어 ‘필수지정’이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교사의 상당수가 한문을 향후 ‘폐지’되어야 할 교과로 보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끼리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교학점제에서 한문 교사는 그 어느 과목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기서는 한문 교과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과 과목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1) 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폭넓은 과목 선택의 자유 보장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진로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자기 진로와의 연관성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다른 과목과 한문 I 중 한문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60.97%에서 진로와 연관이 있을 때는 82.92%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⁸⁾

〈표7〉 타교과와 한문 중 선택에 대한 질문

질문	답변 내용	응답 수
다른 과목들과 ‘한문 I’ 중 선택해 수강해야 할 경우 한문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선택한다	25명(60.97 %)
	2번) 선택하지 않는다	16명(39.02 %)

질문	답변 내용	응답 수
만약 한문 수업의 내용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면, 다른 과목들과 ‘한문 I’ 중 선택해 수강해야 할 경우 한문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선택한다	34명(82.92 %)
	2번) 선택하지 않는다	7명(17.07 %)

< 참고 예시 >
역사 관련 학과 진학 예정: 역사서 독해 및 관련 용어
자연계열 / 의료계열 진학 예정: 과학, 의료 관련
고전 및 용어사회계열 진학 예정: 사회과학(법학, 행정, 경제) 용어나 관련
고전 콘텐츠 창작 계열 진학 예정: 고전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창작(광고, 문학, 시나리오 등)

또한 전북의 한 고교의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7개교의 총 9명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한의학 한문’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한 학기 동안 생명 윤리 발표와 한의학

7) 김진숙외(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42쪽, 윤지훈(2019),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한자한문교육연구』 47, 한자한문교육학회, 27면, 재인용.

8) 배희정(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과 교육의 현재와 과제」, 『한문교육연구』 5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41~142면 표인용.

용어 관련 수업, 의학 윤리 주제로 연극하기 등의 수업 활동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 과정은 기존에 의학계열 및 이공계열을 진로로 정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문 과목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⁹⁾

앞의 <표6>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이공계열 등의 다양한 교과 및 영역과 한문과의 접목 가능성은 무궁하다 할 것이다. 인문 사회계열에서는 지리, 역사, 사회, 법, 정치 분야의 각 영역과 한문을 연결할 수 있고, 자연 과학계열 또한 관련 개념 용어 및 생명 윤리 등의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목들을 1년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로 집중이수를 하여 사회과 및 과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묶어서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와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1학기에는 ‘경제와 한문’을, 2학기에는 ‘지리와 한문’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수업을 위해서도 유용할 뿐 아니라 각 해당 과목 관련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 과목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의 고교별 한문 교과 편성 현황 <표3>에서 보듯 3학년 때 다양한 교과목들과의 경쟁에서 한문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진로와의 연계성이 없을 경우 외면 당하기 쉽다. 또한 <표1>의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한문 과목 개설 현황에서 보듯 ‘특성화고’와 ‘특목고’의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비율로 한문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특성화고와 특목고의 성격에 맞는 진로 연계 한문 교과를 개발한다면 기존에 한문이 없던 학교라도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공동교육과정¹⁰⁾’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과목 구성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다 보면 아주 기초적인 한자도 모르는 학생부터 혼치는 않지만 교육용 기본 한자(1800자) 이상을 아는 학생까지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경우 학생간에 어휘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흥미도와 습득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인 학습 영역에서 낮은 성취도인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한자 지식을 갖춘 학생의 경우는 상위권 성적일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의 학생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간에 가르쳤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수준별로 학급을 나누어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성취도의 학생들로 구성된 반에서는 기초 한자, 생활 한자와 같이 가볍고 쉬우면서 실용적인 교과를 가르치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한문 고전을 끌어와 논술과 글쓰기 위주의 교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한 학기에 수준이 다른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더 한층 향상될 것이다.

9) 손형태(2020), 13-14면.

10)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학기별로 교과목을 선정하고 수업 디자인하기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문은 ‘한문 I’의 교과명으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문 I은 한자와 한자어를 시작으로 고사성어, 한시, 경전, 산문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다루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는 수업 시수라는 구조적인 한계부터 학생의 수준, 교사의 성향 등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수가 주당 3시간이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대개가 주당 2시간으로 편성된 한문과의 경우 흡족할 만큼의 내용을 담아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문 I이라는 두루뭉술한 교과가 아닌 좀 더 세분화 된 한문 영역을 학기당으로 나누어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실용한문’으로 교과를 개설하여 실생활에서 쓰이는 한자와 어휘 위주로 구성하고, 2학기에는 ‘한시 감상’으로 한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한시를 다루어 한문의 문학적인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어과 혹은 사회과, 과학과와 연계한 교과로 한 학기를 배정하고 나머지 학기는 한문 고유의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기별로 나누어 배정하면 학생으로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사 입장에서든 영역에 맞는 수업을 집중도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렇게 배정하기 위해서는 한문 교과 뿐 아니라 전체 교과를 편성할 때 학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학점제로의 과도기로서 1년을 단위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¹¹⁾ 학기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4) ‘과목 안내서’ 속 한문 관련학과의 다양화 확보

고교학점제에서 한문교과의 선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구성 뿐 아니라 학교 외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지와 맥락이 다르지만 한문 교과 선택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육 과정 외적인 부분 중에서도 ‘고교학점제 과목 안내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초기 단계에서 학생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 김성천 외(2019),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맘에드림, 123면 참조. 핀란드의 경우 1년을 5학기로 나누어 같은 과목이어도 단계를 구분함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 고등학교 1년 과정 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모국어1	영어1	모국어2	영어3	스웨덴어
수학1	수학2	영어2	지리	수학3
역사1	철학1	스웨덴어1	역사2	물리1
화학1	종교1	철학1	보건	사회1
예술1	물리1		음악1	

각 대학별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과목 선택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사이트에서 과목 선택 안내 메뉴를 들어가보면 다음 <표8> 과 같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안내자료를 게시해 놓았다.¹²⁾

각 학과별로 ‘고교에서 이수하면 좋은 관련 교과’를 상세히 제시한 자료부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영상 자료까지 교육청에 따라 다른 나름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면 안내서의 내용이 만든 주체별로 상이한 경우도 많고 제대로 된 안내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실한 정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문 교과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로희망 학과와 ‘연관’이 있거나 전공 공부를 위해 ‘도움’이 되는 교과라는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북) 한문 교과와 연관이 있는 학과는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는 관련학과를 ‘한문학과, 한문교육과, 동아시아학과 등’으로 더욱더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 자료의 경우 영어·불어와 같은 서양언어학과와 이공계열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과(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의료보건계열, 예체능계열 등)에서 한문이 이수하면 도움이 되는 교과로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지역 교육청별로 자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히 통일된 내용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자료를 만들어가는 현 단계에서 한문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지역 교육청 혹은 대학 안내서에 다양한 전공 공부를 위해 한문 교과가 도움이 된다는 정보가 명시된다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현장의 한문 교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표8> 교육부 ‘고교학점제’ 사이트의 ‘과목 안내’ 페이지

고교학점제	소식·홍보	고교학점제 운영	게시판	자료실	온라인 수강신청
○ 시도교육청 발간 자료					
사도교육청	자료명	바로가기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2020)	바로가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교육청	아서와 수강신청은 처음이지?(핸드북)	바로가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과목선택 편선 박람회(출판)	바로가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과목선택안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선택 안내서	바로가기			
울산광역시교육청	선택과목 안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0 보인다 1.0 고등학교 과목 전공 안내서	바로가기			
강원도교육청	전공연계 선택과목 가이드 북	바로가기			
충청북도교육청	선택과목 안내(온라인)	바로가기			
전라북도교육청	2020 과목선택안내서	바로가기			
전라남도교육청	고교 과목 선택 및 전공 선택 길라잡이	바로가기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에게 소개하는) 선택과목 이야기 UCC	바로가기			

12) 교육부, 고교학점제 사이트

〈표9〉 예시 - 전북교육청 자료

선택
(일반)

한문 I

한문 교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중학교 '한문'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는 과목이다.

▶ 과목 관련 정보

관련 과목

일반
한문 I

진로
한문 II

관련 인증 및 자격증

한문 교사자격증, 한자능력검정시험, 한문국가공인자격증, 아동한자지도사자격증, 한문예절지도사 등

관련 학과

한문교육과, 한문학과, 한약학과, 한의학과, 철학과, 서예 : 문자예술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관련 직업

한문 교사, 한의사, 한의학약사, 교수, 전통문화 연구원, 한문고전 번역가, 방송인, 비평가, 저널리스트, 향토 연구가 등

〈표10〉 예시 - 강원도교육청 자료

[체육교육과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과]				
교과영역	교과(군)	공동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언어와 매체, 독서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 도덕)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생활 교양	교양		제2외국어 I, <u>한문 I</u> 철학, 논리학, 법리학	

IV. 결론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초기 단계에서 한문 교과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선택 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조사하지 못하고 경기도에 국한된 자료라는 한계가 있지만 한문 교과의 현황과 위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전국 단위로 조사를 넓혀 좀 더 넓은 안목에서 교과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 적실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 교과의 선택 과목 재구조화 방안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여러 시안들을 살펴보고 실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다양한 진로와 한문을 연계시킨 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선택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과목 선정과 분반 수업, 현행 1년 단위가 아닌 학기별로 나눈 과목 구성으로 내용의 집중도 높이기 등은 학교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문 교과 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편성에 있어 학기별 개설키 자유롭고 유연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한 교사가 한 학기, 혹은 일 년 동안 맡아야 할 과목의 수가 늘어나 수업 부담이 가중됨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사들에게 과목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안내자료의 내실화는

학교 외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교육청별로 상이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통일시키고 좀 더 친절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안내서에 빈약하게 소개된 한문과 관련 분야 및 한문 이수 필요 학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이는 한문 교과 재구조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본다.

수많은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 속에서도 학교 현장은 학교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 안에서 한문 교사는 그 어느 과목 교사보다도 더욱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한문 과목 개발에 학계 및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담아 한문과 고유의 가치를 담으면서도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과목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성천 외(2019),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맘에드림

김왕규(2021), 「고등학교 한문과 선택과목 교과목 편제 및 단원 구성 방안」, 『한문교육연구』 5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배희정(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과 교육의 현재와 과제」, 『한문교육연구』 5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손형태(2020), 「언택트 시대와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자유발행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한문교육연구』 56, 한국한문교육학회

윤지훈(2019),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한자한문교육』 47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교육부, 고교학점제 사이트, 시도교육청 발간 과목안내자료

학교알리미사이트, 경기도내 고등학교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과 한문과

정효영(등촌중)

<목차>

1. 서론
2. 자유학기(년)제의 한문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서울 소재 중학교 한문과 편성·운영 현황
4. 결론

1. 서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¹⁾ 2013년부터 연구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운영하며 약 7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2016년 전면 시행되었다. 그 후 자유학년제로 확대 발전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유학년제 한 학년동안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은, 홍원표(2020)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탄력성을 중심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탄력성을 학습의 내용,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내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실태, 선택 과목 운영 실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선택 과목 운영 실태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수안, 박범준, 김민규, 신혜숙, 김진호(2019)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역적 관심 사항의 특징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보고서나 논문은 해당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된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학교 현장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각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를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교육정보공시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는 본 연구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서울지역과 강원지역의 top 10 단어를 분석하였는데 한문 교과 관련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서울지역은 교육과정 구성, 운영 교과 및 내용, 운영 방식, 평가 방법, 교사 활동으로 구분하여 주요 단어를 분석하였다.

황은희, 장지현, 양현경(2019)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KCI

1) 교육부(2015)

등재(후보)지에 발행된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169편의 초록을 분석하였다. 앞의 연구와 비슷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대상이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와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논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아람, 김아미(2018)는 특정 학교의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를 연구 발표하였다. 혁신학교인 연구 대상 학교의 교사 문화 분석, 자유학기 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개별학교의 특징을 밝혔으며 새로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논하였다.

김성수, 이근모, 장승현(2018)은 부산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체육활동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부산광역시 소재 175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교육계획서, 개별 학교의 활동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체육교사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자유학기제에서의 체육 활동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진로 교육의 부재, 스포츠클럽과 차이가 없는 목적 잃은 체육활동, 부족한 시설과 공간 등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노윤숙(2017)은 2016학년도 단위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임의 추출된 학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부천시 33개 중학교, 서울 성북구 18개 중학교의 선택과목, 개설학년, 단위수, 자유학기 활동단위,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을 조사하였다. 주제융합수업, 지역공동체 연계 융합수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학기제 한문과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위 연구와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는 임의 추출이 아니라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민정(2019)은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으로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주제 선택 활동 수업 사례를 보고하였고, 공민정(2021)은 진로 탐색을 위한 주제선택 활동 사례를 보고하였다. ‘산문 읽고 인성 담은 UCC 제작 수업’, ‘한문 인성 동화 창작 수업’, ‘문자 도안 디자인-한자 타이포그래피 엽서 제작’, ‘웹툰 작가-고사성어의 주제를 만화로 표현한 책 제작’, ‘작가&출판 기획자-단문의 주제를 활용한 손바닥 소설 창작’, ‘공연 기획자-한시로 패러디 뮤직비디오 제작’,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산문 활용 오디오 그림책 제작’ 등의 사례는 개별 학교에서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보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문 교사들의 자유학기 수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위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자유학기(년)제 연구는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개발, 학생평가,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진로체험 등에 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전국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한문과 시수 편성 영향을 분석하고, 차기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유학기(년)제의 한문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초기에 운영 방향을 놓고 진로탐색과 수업 개선 중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5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수업 개선에 주력하면서 진로탐색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²⁾

2) 최상덕(2018), p.6.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 활동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운영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170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유학년제의 경우는 221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활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 여기서 170시간, 또는 221시간의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과목의 시수를 감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이 된다. 따라서, 교과 과목의 시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문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시수 배정 현황이다.

구 분		1~3학년	2009 대비
교 과 (군)	국어	442	동일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동일
	수학	374	동일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34
	체육	272	동일
	예술(음악/미술)	272	동일
	영어	340	동일
	선택	170	-34
	소계	3,060	동일
창의적 체험활동		306	동일
총 수업 시간 수		3,366	동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선택 교과목의 시수가 감축되고,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의 시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이었던 정보 교과목은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으로 조정된다. 기존에 정보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학교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보 교과가 신설된 경우는 어느 교과(군)에서 시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택 과목인 한문 교과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유학기 활동 편성 현황이다.

구 분		기준 시수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년 (2021학년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1학기	
								편성	조정	운영	편성	조정	운영	운영	조정	2학기	1학기	2학기
								편성	조정	운영	편성	조정	운영	운영	조정	2학기	1학기	2학기
A. 교 과 (군)	국어	442		391		-51		68		68	68	-17	51	119	-17	68	68	68
	사회/도덕	170		153		-17		51	-17	34	51		51	85	-17	34	34	
		170	510	170	476	-34										51	51	34
		170		153		-17		34	-17	17	34		34	51	-17		51	51
	수학	374		357		-17		68		68	68	-17	51	119	-17	68	68	51
	과학/기술·가정/정보	374		357		-17		68		68	68	-17	51	119	-17	51	51	68
		272	680	238	629	-34	-51									51	51	68
		34		34												17	17	
	체육	272		306		34		51		51	51		51	102		51	51	51
	예술	136		119		-17		34	-17	17	34		34	51	-17	17	17	17
		136	272	119	238	-17	-34	17		17	17	-17		17	-17	34	34	17
	영어	340		340				51		51	51		51	102		51	51	68
	선택	한문		85				51	-17	34	51		51	85	-17			
		환경																
		생활외국어(중국어)																
		생활외국어()	170		187	17												
		보건		34													17	17
		진로와직업		68				17		17	17		17	34		17	17	
		기타																
	자유학년 교과시수													884	-136			
	교과 시수 합계	3060		2924		-136		510	-68	442	510	-68	442	884	-136	510	510	510
B.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72				12		12	12		12	24		12	12	12
	동아리활동			102				17	-17		17	-17		-34		17	17	17
		학교스포츠클럽	306		102	408	102	17	-17		17	-17		-34		17	17	17
	봉사활동			30				5		5	5		5	10		5	5	5
	진로활동			102				17	-17		17		17	17	-17	17	17	17
C. 자유학기 활동	창제 시수 합계	306		408		102		68	-51	17	68	-34	34	51	-85	68	68	68
	진로탐색활동			17		17				17				17				
	주제선택활동	221이상		85		85	221			51			34	85				
	예술체육활동			85		85				34			51	85				
	동아리활동			34		34				17			17	34				
	자유학년활동 시수 합계									119			102	221				
	총계 (시간수)	3,366						578	-119	578	578	-102	578	1156	0	578	578	578
	이수과목수(체, 음/미, 교양 제외)							7		7	7		7	7		8	8	7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음악, 미술, 한문에서 각각 1단위를 감축하여, 총 136시간의 시수를 확보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진로활동에서 각각 17시간을 감축하여 총 51시간을 확보하였다. 교과에서 감축한 136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감축한 51시간을 합한 221시간을 활용하여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의 4영역의 자유학기 활동을 구성한다. 다음은 학기별로 감축한 과목별 시수와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별 시수 현황이다.

* 1학년 자유학년제(221시간)			
영역	시수	조정교과(시수)/창체(시수)	
		1학기	2학기
진로탐색활동	17	진로활동(17)	-
주제선택활동	85	도덕(17), 한문(17), 사회(17)	과학(17), 수학(17)
예술체육활동	85	음악(17), 스포츠(17)	국어(17), 미술(17), 스포츠(17)
동아리활동	34	동아리(17)	동아리(17)

9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스포츠클럽의 시수를 감축하여 총 170시간의 자유학기 활동인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의 시수를 마련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동아리 활동 시수를 자유학기 활동의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였다. 주제선택 활동과 예술·체육활동의 시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와 같은 시수 감축을 통해 자유학기 활동 시간으로 편성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대개 한 학기에 2개 기수로 운영되어 1학년 동안 4개 기수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제선택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을 4개 프로그램 정도 수강하게 되며, 학생은 희망하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은 8차시 또는 16차시로 구성되어 수업이 마무리되고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개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게 나타난다.

3. 서울 소재 중학교 한문과 편성·운영 현황

중학교에서 한문 과목의 편성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각 학교의 한문과 시수 현황을 파악하고, 1학년 편성의 경우 자유학기(년)제 시행에 따른 시수 감축 여부와 자유학기(년)제에서 한문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³⁾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다음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의 화면이다.

3) <https://www.schoolinfo.go.kr>

지 역	교 육 청	학교명	한문 시수	한문 편성 학년	한문 편성 시수	1학년 편성 시수		1학년 감축 시수		운영 시수	한문관련 프로그램	비고
						1	2	1	2			

전국의 중학교를 조사하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표시하였으며, 소속 교육청과 학교를 작성하였다. 기존의 한문시수와 한문 편성 학년, 학년별 편성 시수를 조사하였다. 1학년에 편제되어 있을 경우, 각 학기별 편제 현황과 자유학기(년)제 운영에 따른 감축 시수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유학기(년)제 운영에 따라 한문 교과 시수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한문 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비고에는 기타 참고 사항을 작성하였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정리되었다.

지역	교육청	학교명(중학교 생략)	한문 총 시수	한문 편성 학년	한문 편성 시수	1학년 편성 시수		1학년 감축 시수		총 운영시수	한문관련 프로그램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서울	강남서초	반포	68	2	34							
서울	강남서초	동막역자	102	2	34							
서울	강남서초			3	17							
서울	강남서초	인주	68	3	68							
서울	강남서초	봉은										
서울	강남서초	영동										
서울	강남서초	진선여	102	1	34	17	17	0	0			
서울	강남서초			2	68	34	34					
서울	강남서초	도곡	68	1	68	34	34					
서울	강남서초	방배	68	2	68							
서울	강남서초	수서	68	2	68							
서울	강남서초	신구	68	2	68							
서울	강남서초	신동	68	3	68							
서울	강남서초	안남	68	3	68							
서울	강남서초	내곡										
서울	강남서초	은성	34	1	34	17	17					
서울	강남서초	대원	68	1	68	34	34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다음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교 한문 교과의 학년별 편제 현황이다. 중학교 한문 교과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1학년, 2학년, 3학년에 편제되어 있는데,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에 편제되어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3개 학년에 모두 편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교육청	1	2	3	1,2	1,3	2,3	1,2,3	미편성
서울	강남서초	7	11	6	4	1	1	0	5
서울	강동송파	7	12	5	1	0	3	0	8
서울	강서양천	7	16	5	6	2	2	0	0
서울	남부	4	8	6	3	2	2	0	5
서울	동부	4	10	5	2	1	3	0	3
서울	동작관악	3	8	3	3	1	4	0	6
서울	북부	9	9	2	4	0	4	2	5
서울	서부	4	16	8	5	2	2	0	5
서울	성동광진	0	8	7	1	0	0	0	5
서울	성북강북	4	6	2	5	0	2	2	6
서울	중부	3	5	2	4	3	1	0	7
합계		53	111	54	38	12	24	4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문 교과가 2학년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1학년, 3학년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두 개 학년에 편성될 경우, 1, 2학년 또는 2, 3학년에 편성되어 수업이 연결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물론 1, 3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 학교의 교사 수급이나 다른 과목 편성에 따른 영향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문 교과가 2학년에 가장 많이 편제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선택 교과인 진로와 직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에 진로직업체험 중심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진로상담교사 주도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진로와 직업이 1학년에 편성되고 한문 교과는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의 과목 시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택	한문	170	68	170	34		34	34		34	68					
	환경															
	생활외국어(중국어)															
	생활외국어()		68									34	34			
	보건															
	진로와 직업		34		17		17	17		17	34					
	기타															

위 그림의 학교는 진로와 직업이 1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각각 17시간이 편성되어 있고, 한문은 2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각각 34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8개 제한⁴⁾, 교사의 자유학기(년)제 수업 기피 등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해당 학교의 한문 교사 심층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별 한문 교과 시수를 살펴본다. 한 학기는 17시간 기준으로 교과가 운영된다.

지역	교육청	0h	17h	34h	51h	68h	85h	102h	119h	136h
서울	강남서초	5	0	2	0	23	4	0	0	1
서울	강동송파	8	0	0	1	26	1	5	0	0
서울	강서양천	0	0	1	0	12	1	24	0	0
서울	남부	5	0	0	0	16	0	9	0	0
서울	동부	3	0	0	0	14	1	9	0	1
서울	동작관악	6	3	0	0	10	1	5	0	3
서울	북부	5	0	0	0	21	0	9	0	0
서울	서부	5		2		21	0	14	0	0
서울	성동광진	5	0	0	0	10	0	5	0	0
서울	성북강북	6		1	0	7	0	12	1	0
서울	중부	7	1	2	0	6	1	6	1	1
합계		55	4	8	1	166	9	98	2	6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시수 편성 현황과 비교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4)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교육부(2015), p.68.

한문 교과가 실제 감축된 교과 시수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문 교과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자유학기(년)제 시행에 따른 한문 교과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한문 교과 편성 시수는 17시간 기준 1단위라고 할 때, 4단위와 6단위 편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한 학년동안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학년 편성 시수 조사와 종합해보면 서울 지역 중학교에서 한문 교과는 대개 1~2학년에서 일주일에 2~3시간씩 수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부 학교는 학년, 학기에 따라 시수가 다르게 편성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집중이수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의 학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을 때에 집중이수제의 영향으로 1학년 1학기과 2학년 2학기에 각각 편제되어 있어 수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한 학년에 아닌 학기별 운영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수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3개 학년에 걸쳐 연계성과 위계성을 가지고 수업 운영하는 것이 한문 수업에 효과적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한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1, 3학년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9개의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에 따라 한문 교과 시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학년에 한문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161개교⁵⁾의 약 18%에 해당한다. 이렇게 감축된 시수는 자유학기의 주제선택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한문 과목은 과목 특성상 주로 주제선택 활동에 편성이 된다. 한문 교과에서 감축된 시수를 한문 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의 교사가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문 교과와 관련이 없는 주제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문 교과 시수가 감축된 학교의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프로그램에서 한문 교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영화감상을 통한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
어휘 팟방, 문화 쓱쓱
일상에서 만나는 어휘/이야기가 있는 성어
빛물결 따라 떠나는 여행 이야기 한문과 함께하는 컬러링
두드림 온고지신(한자, 한자어, 성어)
고사성어랑 나랑/나만의 한자 만들기
생태전환교육
역지사지(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보기), 한자성어와 놀아요
나만의 글씨체 제작
한문 맛보기
성어야 놀자
팝업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이 한자 또는 성어를 포함한 한자 어휘 관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전환교육’의 경우, 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생태교육을 떠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각자도생 중인 각지의 선생님들에게 공유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렵거나 관심과 흥미가 부족하고 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규 교과 시간에 진행하기 어려운 한문 교과 관련 내용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1학년, 1, 2학년, 1, 3학년, 1, 2, 3학년에 한문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중학교 수이다.

4. 결론

처음 연구를 계획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한문 교과와 1학년 편성도 적었고, 한문 관련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 연구 분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중학교 한문 교과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중학교 한문 교과의 운영 상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겠다. 다음은 교육부⁶⁾에서 제시한 초·중·고 학교교육의 변화 모습이다.



아마도 이러한 구상은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선택 과목의 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유학기(년)제가 강조되고 학생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자유학년제는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과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⁷⁾ 중학교에서 경험했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의 선택 경험은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문 관련 자유학기 활동의 개발 보급이 필요할 것이며, 개별 학교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선생님의 귀중한 자료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9),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교육부.
-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1학년도 자유학년제 운영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상은, 홍원표(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운영 실태와 시사점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이수안, 박범준, 김민규, 신혜숙, 김진호(2019),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에 대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및 요약,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2권 제3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황은희, 장지현, 양현경(2019),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성수, 이근모, 장승현(2018), 부산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 교사교육연구 제57권 제1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노윤숙(2017),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한문과 수업연구, 한문고전연구 제3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 공민정(2019), 자유학기 인성 함양 한문 수업 사례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5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최상덕(2018),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로: 학생 주도성 및 선택의 강화, 교육광장 68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p.72.

7) 최상덕(2019), p.9.

2부

중등학교 한자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자: 허철(단국대) / 토론자: 조환문(청주IT과학고)

중등학교 한자 어휘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자: 안세현(강원대), 배희정(원곡고) / 토론자: 장재익(광주공고)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자: 정동운(동덕여중), 김성중(계명대) / 토론자: 김동규(낙생고)

중등학교 한문 산문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자: 이군선(원광대), 박기성(화순고) / 토론자: 최식(성균관대)

중등학교 한시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자: 정경훈(원광대), 정훈기(대전서중) / 토론자: 정규돈(경민중)

중등학교 인성·문화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자: 이성형(공주대) / 토론자: 백광호(전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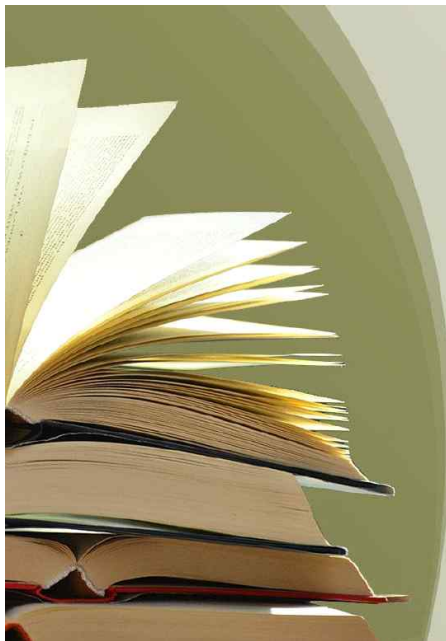
중등학교 한자 교육 개선 방향

-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 관련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허철

 단국대학교 부설 漢文教育研究所
Institute for Han-Character Education Research

차 례



- 1 서론
- 2 한문교과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검토
- 4 결론

1. 서론

중학교 한문교과의 목표

중학교 '한문'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1. 서론

- 한자는 辭와 文의 구성 문자이자 최소 단위
- 한자 익힘과 사용은 한문교과 목표의 최소 목표
- 현행 한문교과 목표에서 제시한 유일한 급간 기준의 유일한 기준

한문교과에서 한자와 한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

1. 서론

현행 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습자는 한문교과에서 제시하는 목표 달성을 충분히 달성하는가?

- ✓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
- ✓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한자 자형의 문제, 필순의 문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에 대한 논의
-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습자의 한자 인지와 사용 능력에 관한 성취 기준과 학습요소 제시의 불완전성에 기초

1. 서론

사회 언어 생활의 변화에 따른 학습 효율성 저하에 따른 한문교과 교육에 변화가 있었는가?

- ✓ 1990년대 이전의 사회 언어 생활은 특정 교과를 통해 학습한 한자만으로도 어휘를 읽고 사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으로 제공
 - 한자 인지 후 자연스럽게 어휘 습득이 가능한 환경
 - 유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 비슷한 수준의 한자 사용층이 존재 : 학교교육 제도와 대중매체의 역할
- ✓ 1990년대 이후 사회 언어 생활은 한문교과에서 익힌 한자 학습의 기능을 사용, 강화,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의 상실
 - 한문 교육용 한자 학습에 불리한 조건으로 변화

1. 서론

- ✓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한문교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한자 교육 관련 학습요소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학습목표와 성취 기준 관련 모호성 제거와 적합한 서술과 내용 요소 제시를 통해 가능.

2. 한문교과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2009 중학교	2009 한문1	2015 중학교	2015 한문1
(1)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3) 한자의 부수(部首)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4)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5)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6)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3) 바른 모양과 순서를 고려하여 한자를 쓸 수 있다. (4) 상형·지사·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5)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9한01-01]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9한01-02]한자의 부수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9한01-03]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9한01-04]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12한문 I 01-01]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12한문 I 01-02]한자의 부수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12한문 I 01-03]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12한문 I 01-04]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2. 한문교과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2015 중학교	2015 한문1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교수-학습법 제시

“‘한자’는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자원(字源) 활용법, 자전(字典) 활용 학습법,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한자의 제자(製字) 원리를 지도하며, 한자카드 활용법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한자를 익히도록 지도하고,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등을 통하여 한자의 쓰기를 지도한다.”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의 검토

1) 서술의 모호성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음과 뜻을 안다는 것은 어휘와 한문을 구성하는 한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기능에 해당
- ✓ 문자 사용과 구분의 문제 – 시각적 차이의 구분과 해당 한자의 음과 의미 파악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의 검토

1) 서술의 모호성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쓸 수 있는 능력”: 쓴다는 다양한 의미로 파악이 가능
 - * 서사의 의미로 파악: 정서법과 관련 – 필순과 바른 모양
 - 바른 모양이란 무엇인가? --- 자형관련 규범의 부재: 기초 획/구조의 제시 부재
- ✓ “(필순, 자원, 부수 등)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 지나침의 기준 모호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의 검토

2) 학습요소의 명확한 제시 부재

- ✓ 제시된 학습요소의 범위 부재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

[9한01-01]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9한01-02]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9한01-03]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9한01-04]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12한문 I 01-01]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12한문 I 01-02]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12한문 I 01-03]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12한문 I 01-04]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자원(字源) 활용법, 자전(字典) 활용 학습법,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한자의 제자(製字) 원리를 지도하며, 한자카드 활용법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한자를 익히도록 지도하고,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등을 통하여 한자의 쓰기를 지도한다.”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의 검토

3) 세분화와 명료화의 필요성

- ✓ “한문교과”는 “공교육”이라는 관점 적용의 필요성 – 효율성 뿐 아니라
균질성, 확장성, 역량의 강화라는 관점이 필요
- ✓ 규정된 시간 속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
켜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의 필요
- 한자 교육 내용 요소의 세분화와 영역 구분에 따른 규정된 개별 학습
요소와 내용 규정 필요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의 검토

3) 세분화와 명료화의 필요성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모든 한자를 대상으로 “한자를 쓸 수 있고” “짜임을 알 수 있으며”, “자체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는 불가능, 불필요
- 짜임과 자체의 발전과정은 학습자가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오랜 기억과
유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성장하는데 의의

3. 현행 한자교육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의 검토

3) 세분화와 명료화의 필요성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이미 제안된 읽기/쓰기 한자의 구분 뿐 아니라 짜임과 자체의 발전과정 학습에 필요한 한자를 교육과정에서 편수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 필순을 익힐 한자, 검색을 위해 알아야 할 부수에 적합한 한자, 의미 파악에 적합한 부수와 관련된 한자, 구조와 조형을 익힐 한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제자 원리를 익힐 한자, 자체의 발전과정을 익힐 한자 등을 구분하여 제시
- ✓ 쓰기(서사)에서 제시한 필순 이외에 구조적 조형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시 - 자형 규범화의 제규정과 내용 요소 확정 필요

4. 결론

- ✓ 한문교과에서 학습하는 한자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목표 달성의 기초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현행 학교 현장 학습자들의 한자 능력(독음, 의미 이해, 활용능력, 유추능력, 서사 습관 등) 과 교재에 표현된 현상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검토, 연구가 필요- 성취기준과 수준 세분화의 기초
- ✓ 한정된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한자 학습을 위한 체계적 구조와 학습 요소, 위계화, 연계화에 대한 구체적 설계와 제시 필요 : 각 학습요소에 투입할 한자군 및 표준화된 자형 규범, 음과 의, 자원 풀이, 통일된 부수, 획순/학습용 어휘군/한문 학습용 문장 등

중등학교 한자 어휘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안세현(강원대), 배희정(원곡고)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개선 방향 및 제언 |
| II. ‘한자와 어휘’ 선행연구 분석 | V. 맺음말 |
| III. 교과서에서의 ‘한자 어휘’ 구현 양상 | |

I. 머리말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영역과 핵심개념을 설정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 요소를 축소하거나 결합 또는 새롭게 선정하여 내용요소를 만들었다. 이때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개념과 내용 요소 중의 하나는 한자 어휘이다.

한자 어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단어의 짜임’과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성어’ 정도의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요소로 ‘단어의 짜임’과 ‘성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부분을 ‘일상용어’와 ‘학습용어’로 내용요소의 일부 변형과 신설을 통해 확장시켰다. 이와 동시에 교육과정 상의 영역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 ‘문화’ 영역과 ‘한문지식’ 영역으로 나뉘어 속해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과 지식적 요소인 ‘단어의 짜임’은 ‘한문의 이해’ 영역- 핵심개념 ‘한자와 어휘’에,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는 ‘한문의 활용’영역-핵심개념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요소로 편성된다.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한자와 어휘’, ‘한자어휘와 언어생활’로 한자 어휘가 중심이 되는 핵심개념이 내용 체계에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는 한자 어휘가 주요한 학습 내용이 되었다는 변화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새롭게 교육과정을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학점제 체제를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이 필요하고, 한문과에서도 이에 맞추어 선택과목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자 어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세미나 안의 과목 예시¹⁾에 나오는 교과목 중 여행 한문, 고사성어 한문 등의 교과목은 한자 어휘가 위주의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된다. 고교학점제 하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진로 선택이 한자와 한문 중심의 진로를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이 된다면,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수요를 잡기위한 일상 또는 타교과와의 융합 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경우 가장 적합한 학습 요소는 한자 어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상황과 흐름을 읽고 전북교육청 소속의 한문교사들이 앞장 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였는데, 그 결과인 ‘한의학 한문’, ‘생활과 한문’ 등의 교과목명이나 주된 학습내용은 한자 어휘이다.

이렇듯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과정에서도 한자와 어휘는 이전보다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한 대목이 될 영역 또는 내용요소라고 할

1) 김왕규(2021)에서 참고.

수 있다.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한자와 어휘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을까? 현재 어느 정도의 범위와 내용, 빈도로 가르쳐지고 있는가는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후 교과서 개발에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와 어휘’의 ‘일상용어’와 ‘학습용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서 한자 어휘 교육의 실태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의 갈피를 잡고자 한다.

II. ‘한자와 어휘’ 선행연구 분석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한자 어휘 영역의 성취기준의 수정에 앞서 2015개정 교육과정 이후 현재 한문과에서 한자 어휘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고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선행연구 속에 나타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선행 연구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한국한문교육학회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김우정(2016)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과정 상의 한자 어휘 관련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했다. 또 한문 교과에서 한자 어휘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 교과교육용 한자 어휘 선정에 대해 빈도, 조어력, 투명도 등을 고려해야한다고여 한자 어휘 선정의 기준이 될 만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배희정(2016)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분석했다. 이전의 교육과정들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변화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또 그중 몇 가지를 골라 수업에 적용하여 과정을 보여주고, 평가표를 제시했다. 새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업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지만, 논의의 내용이 어휘보다는 한자에 치중되어 있다.

윤지훈(2018)은 2015 개정교육과정 개발 이후 교과서의 학습 용어 제시 형태와 내용 요소별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자와 한자 어휘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자와 한자 어휘 관련 기초 연구 수행, 교과 교육학이 이론적 토대 구축, 교수·학습 방법 구안 및 현장 적용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제안하였다.

유영희(2017)는 한자어 교육을 국어교육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국어교육과 교육실습을 마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한자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이때 교사가 적절한 처지를 하지 않는 교육 현실을 파악했다. 고전과 현대 문학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양상을 살피고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처럼 한자 어휘만 따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텍스트 중심으로 맥락을 파악하면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 한자 어휘로 단원 구성하고 또는 교과목을 개발할 때, 현재의 한자 어휘 제시와 교수·학습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양원석(2020)은 한자 어휘 교육을 위한 한자 자의(字義)를 먼저 이해할 것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상에서 말하는 한자 어휘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학습용어의 경우 등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의(字義) 파악이 필요한지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는 한자 어휘로 단원과 교과목을 만들 때 지침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효영(2017)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핵심역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역량과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와 어휘’영역 관련 수업 사례를 연결 지었다. 문자도 그리기, 한자 자르기/만들기, 이름 한자로 이야기 만들기, 상형 문자 카드로 이야기 만들기 등 실제 수업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있었던 수업 방법 및 사례에서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핵심개념인 ‘한자와 어휘’ 중 주로 ‘한자’ 수업 사례에 집중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휘’ 수업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제 수업 사례 연구로 앞으로 한자 어휘 학습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도 있었다.

공민정(2016)은 한자 학습을 통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했다. 실제로 수업 단계를 설정하여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 투입하여 결과를 얻은 실험 설계 연구이자 사례 연구이다. 한자 어휘 학습을 ‘친화-도전-놀이-체득’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과학 수업 중에 어휘를 쉽게 익히도록 하였으며, 한자 어휘 교수-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 수업 설계 초반부에 과학 수업에서 필수 어휘 선정부터 단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한자 어휘의 내용 요소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의 어휘 선정 방법이나 과정에도 적용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광호, 공민정(2019)은 ‘한문과 문제중심학습법의 이론과 실천’ 연구에서 PBL을 중심으로 수업 설계 및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중 ‘고사성어를 활용한 콘티 짜기’,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 쓰기’, ‘한국어 강사가 되어 한자 어휘 지도하기’ 등은 한자 어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어휘 영역 중에 성어 학습에 대한 연구도 2건이 있다.

먼저 백광호, 공민정(2017)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삶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그에 맞는 인재 양성과 역량 함량을 위한 성어 수업을 구안했다. 그 수업 방법으로는 정보검색활용으로 성어 알기, 릴레이툰으로 성어의 속뜻 알기, 한문 지식으로 성어 창작하기, 문제 중심 협동 학습으로 성어의 가치 찾기 등을 구안하고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직접적인 학생활동을 통해서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체득하고, 단어의 짜임을 활용하여 성어를 창작을 통해 성어의 의미와 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힐 수 있다. 또 문제 중심 협동학습을 통해 성어의 현대적 의미까지 찾아가면서 성어를 통한 발전된 문화와 인성 영역의 학습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연구가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김경익(2018)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성어 관련 교수-학습 방법을 검토했다. 성어의 뜻과 유래 제시 방식, 유래 이야기 파악 활동, 교과서 상의 교수-학습 방법 등이 어떻게 교과서 상에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성어 학습에서 목표 도달까지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 사고력 신장을 위한 질문, 성어 학습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학습자 수준에 맞는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 2016년부터 상당수의 한자 어휘 관련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 관련 연구가 다수 있으며, 실제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 사례 연구는 수가 적다. 제한된 여건과 수업 사례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본고의 다음 장에서는 2015 개정 교과서에 구현된 ‘한자와 어휘’를 중심으로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한자와 어휘’ 학습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 성어 관련 연구의 성어 학습은 주로 성어의 의미 파악과 활용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어의 필요한 학습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본고에서는 ‘한자와 어휘’에서 성어를 제외한 ‘학습용어’와 ‘일상용어’를 주로 연구하여 한자 어휘 학습의 실현 정도를 살피고자 한다.

III. 교과서에서의 ‘한자 어휘’ 구현 양상

3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학습 용어’와 ‘일상 용어’의 구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가장 처음 반영이 되는 매체이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개정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 어휘’ 영역의 빈도와 양을 살펴보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어휘 수업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내용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을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로 범위를 정하고 제한한 것은 학교급과 과목의 위계상 중학교에서 어휘를 더 많이 중점점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의 한자 어휘 수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휘 연구에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학습 용어’ 구현 양상²⁾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총 17종이며, 이 중에서 ‘학습 용어’ 구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별 학습 용어 구성 여부와 구성 방법, 학습 용어 수록 어휘 수와 관련 과목 수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 용어 구성 여부와 구성 방법은 다음의 <표1>과 같다..

2) III-1. 학습용어 구현 양상의 내용과 표는 안세현(2021)의 연구 내용을 요약 및 발췌 수록하였다. 교과서명도 안세현(2021)의 약어를 따랐다.

〈표 1〉 중학교 한문 교과서 내 학습 용어 구성 여부

교과서	학습 용어 구성 여부	교과서	학습 용어 구성 여부
교학	X	와이	O 소단원 내 학습용어 섹션으로 수록
금성	O 소단원 내 섹션으로 수록	이젠	O 소단원 내 학습용어 섹션으로 수록
다락	O 소단원 내 섹션으로 수록	장원	X
대명	X	중앙	X
대학	X	지학	O 소단원 내 한자 어휘 섹션으로 수록
동아	O 하나의 소단원을 2개로 구성하고 매 두번째 소단원이 학습용어 단원	천재	O 1개의 소단원으로 구성
동화	O 소단원 내 학습용어 섹션으로 수록	학력	O 1개의 소단원으로 구성
미래	O 소단원 내 학습용어 섹션으로 수록	씨마	O 소단원 내 한자 어휘 섹션으로 수록
비상	O 소단원 내 섹션으로 수록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 상에서의 한자 어휘의 중요도에 비해 ‘학습 용어’를 비중 있게 다룬 교과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단원에 작은 코너나 섹션으로 간단하게 상식차원으로 다루었으며, 소단원으로 구성한 3종의 교과서 중에서 2종은 단 한 개의 소단원 밖에 없었다. 때로는 학습 용어를 교과서에서 다룰 때, ‘학습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다. 또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만화 또는 그림과 함께 제공하거나 대부분 축자식으로 풀이하였으며, 몇 개의 교과서에서는 학습 용어 사전 만들기 등 교육과정 상의 교수-학습 방법을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별로 수록된 학습 용어의 수와 관련 교과목 수이다.

〈표 2〉 중학교 한문 교과서 수록 학습 용어 현황

교과서	관련 과목 수	수록 어휘 수	교과서	관련 과목 수	수록 어휘 수
금성	6	16	와이	10	79
다락	3	29	이젠	5	55
동아	6	34	지학	2	19
동화	10	118	천재	13	69
미래	5	22	씨마	13	70
비상	6	21			

〈표 2〉에서 보듯이 교과서별로 수록된 ‘학습 용어’의 수와 관련 있는 타 교과목 수의 편차가 심하다. 수록 과목의 빈도는 사회 20건, 역사 18건, 과학 17건, 국어 16건, 도덕 10건, 수학 9건, 미술 9건, 기술가정 7건, 보건 3건 체육 5건, 음악 3건, 진로와 직업 3건, 영어 2건 생물 1건 지리 1건 환경 1건 등의 순이다. 사회, 역사, 과학, 국어 도덕, 수학 미술 등의 빈도가 높다. 또 수록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 간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별로 제시한 용어가 공통성이 적고 매우 다양하다. 또 문제가 될만한 점은 중학교 한문 교과서임에도 중학교 교육과정 상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별 학습 용어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功勞’, ‘競爭’, ‘上京’ 등 ‘학습 용어’와 ‘일상 용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한문 교과서에 수록한 ‘학습 용어’를 선정할 때,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해서 어휘의 위계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수록한 교과(군)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범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 교과의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선정해 둔 학년별 과목별 어휘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또 학습 용어를 선정할 때 ‘빈도’와 ‘어휘 투명도’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한문 교육에서 적합한 학습 용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2.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일상 용어’ 구현 양상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일상 용어’ 구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자 어휘 관련 소단원 구성, 일상 용어 관련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주된 교수·학습 방법, 본문 학습 이외에 기타 한자 어휘 관련 학습 활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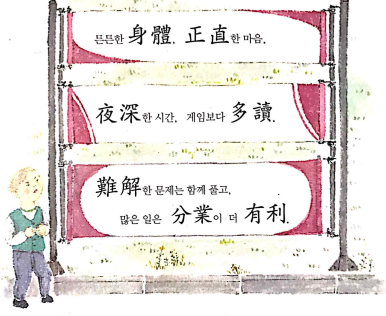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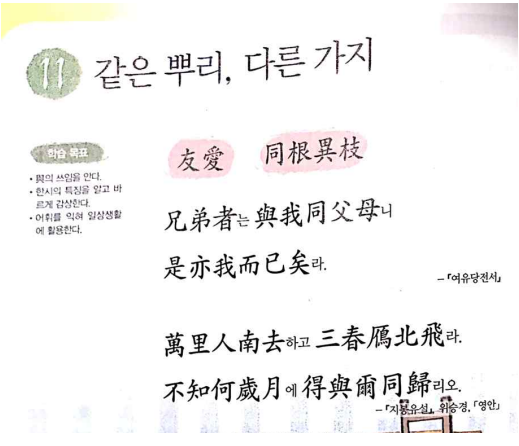
먼저 한자 어휘 관련 소단원 구성 관련이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대단원 및 소단원 배치는 대개 ‘한자 → 한자 어휘 → 단문 → 한시와 산문’의 순서를 준용하고 있다. 한자의 기초를 다루는 I 단원(한문 교육의 필요성,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짜임, 부수, 필순 등) 뒤, II와 III 단원에서 일상용어와 성어를 본문으로 구성하는 편이다. 대명이나 장원처럼 한자 어휘를 본문으로 거의 구성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으며, 반면에 동아(9/20개, 45%)나 와이(9/24개, 38%)처럼 소단원 전체 개수의 40% 가량을 한자 어휘와 관련된 소단원으로 구성한 사례도 있다. 앞선 학습 용어의 경우 17종 가운데 5종에서 학습 용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동아·학력 2종만이 ‘학습 용어’를 소단원의 본문으로 구성한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단원의 구성과 본문 제시 방식을 보면, 먼저 소단원은 주제별(가족, 계절, 학교생활 등)로 소단원을 구성한 경우와 단어의 짜임(주술·병렬 관계 / 술목·술보 관계)에 의거하여 구성한 경우로 대별된다. 혹은 둘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도 있다.

본문에서 한자 어휘를 제시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은 한자 어휘만 제시하는 경우로 대개는 일상 용어, 성어 등의 한자 어휘만을 한자로 표기하여 제시한다. 두 번째 방법은 문구나 문장 속에 한자 어휘 제시로 <대학 : ‘7. 둘이지만 하나’에 ‘튼튼한 身體, 正直한 마음 / 夜深한 시간, 게임보다 多讀 / 難解한 문제는 함께 풀고, 많은 일은 分業이 有利’(55면)> 또는 <지학 : ‘4. 사랑의 학교’에 ‘教師는 사랑으로 學生을 가르치고, 學生은 感謝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곳. 學校는 師弟同

行을 통해 教學相長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30~31면)>과 같은 예시가 있다. 세 번째로 일상용어, 성어, 단문, 시문 등을 함께 제시한 경우로, <예 중양 : ‘5.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易地思之’, ‘推己及人’이란 성어와 함께 『논어』의 ‘己所不欲, 勿施於人.’ 등의 단문을 함께 제시.(34면) ‘9. 가족의 구성’에서는 ‘家族, 結婚, 父母, 子女, 兄弟, 姉妹’라는 일상용어와 함께 『명심보감』의 ‘夫有人民而後有夫婦~’의 문장을 함께 제시.(56면)>가 있다.

 <p>☆ () 안에 알맞은 풀이를 써 봅시다. · 正直 (어뜨다 + 곧다) = ()</p>	
<p>[문구나 문장 속에 한자 어휘 제시 : 대학(55면)]</p>	<p>[일상용어, 성어, 시문 등을 함께 제시 : 중양(64면)]</p>

<그림 1> 교과서에서 한자 어휘 제시 방법

다음으로 일상용어 관련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일상용어와 관련된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체로 ‘단어의 짜임 구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일상용어를 ‘인성 함양’이나 ‘전통 문화 이해’와 연결시켜 학습 목표를 수립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한자 어휘 학습에서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한문의 활용’ 영역의 3개 핵심 개념(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과 관련된 학습 목표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예 와이 : ‘4. 가족’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고 가치관과 인성 함양’을, ‘5. 계절과 절기’는 ‘절기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태도 함양’을, ‘7. 학교에서’는 ‘타인 존중의 태도를 지녀 가치관과 인성 함양’을, ‘8. 거리에서’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익혀 가치관과 인성 함양’을 학습 목표로 제시함.>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먼저 ‘일상 용어의 뜻풀이와 활용’으로 대개 본문에 제시한 일상용어를 단어의 짜임을 설명하며 축자식으로 뜻을 풀이하고 사전적 의미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는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문을 제시하거나 만화(대화 설정)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학생 중심 학습 활동의 사례로 있었다. 동아 교과서에서 동일한 주제의 소단원을 각각 ‘한문의 이해 영역’(○.1.)과 ‘한문의 활용 영역’(○.2.) 2개 소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한문의 활용 영역’은 소단원 전체를 학생 중심 학습 활동으로 구성함. ‘5.2. 학교 이야기’에서는 학교와 관련된 단어(校訓, 教室, 學生, 空冊, 教科書, 時間表)를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조선시대 학교 제도 등을 알아보는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그 다음 ‘활동’에서는 ‘우리 학교의 교훈을 쓰고 교표를 그리며 의미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진행했다.(44~47면) 마지막으로 한자 어휘 교육을 인성 및 문화와 연계한 사례가 있다. 이젠 교과서에서 “多文化란 하나의 국가나 사회에 여러 인종이나 民族의 문화가 함께 存在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各國에서는 다문화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서로 交流하도록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글을 제시하고 한자 어휘에 유의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 그 예시 중에 하나이다.

1 단어의 파임-술목 관계, 술목 관계

(1) 술목 관계: '자술어 +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의 파임.

讀 + 書 → 讀書 [책을 읽다.]
[읽다] [책]
자술어 목적어

授 + 業 → 授業 [가르침을 주다.]
[주다] [알(가르침)]

2 단어의 풀이와 이해

(1) **開會**: 모임을 열다. → 회의를 시작함. 의회, 전람회 등을 열.

(2) **授業**: 가르침을 주다. →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쳐 줌.

(3) **下校**: 학교에서 내려가다. →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 생각하기

1 원복은 1970년대의 교실 모습이다. 당시의 교실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찾아보자.

2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사치이다. '학교'와 관련된 단어를 (예시)와 같이 한자의 뜻으로 풀이하여 이해해 보자.

(예시) 校訓
 → 학교[학]의 가르침[訓]

教室
 →

學生
 →

空冊
 →

教科書
 →

時間表
 →

3 우리 학교 이름의 한자를 알아보자.

○ 생각다지기

옛날 서당에서는?

'서당'은 옛날의 기초 교육 기관이었다. 서당에서는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을 배웠다. 공부한 글을 외우고 뜻을 풀이하고 훈장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講(강)'이라는 시험을 매일 또는 5일이나 10일,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치렀다. 통과하지 못하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거나,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냉수를 마시는 등의 벌을 받았다.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모두 익히면 떡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훈장님께 대접하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 이를 '책거리' 또는 '책뎌기'라고 했다.

[본문 풀이 및 활용의 사례 : 금성(32면)]


[학생 중심 학습 활동의 사례 : 동아(45면)]

〈그림 2〉 교과서의 교수-학습 사례

마지막으로 한자 어휘 관련 기타 학습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상용어는 성어를 소단원의 본문으로 구성한 단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단원의 부수적인 학습 활동에서 유의어, 반의어, 동음이의어 / 의미망 만들기, 학습 노트 작성 등의 한자 어휘 관련 학습을 구성하고 있다. 또는 한자의 음과 뜻을 설명하며 해당 한자가 들어간 한자 어휘를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한자 어휘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학생 활동을 제시했는데, 해당 한자 어휘가 들어간 짧은 글을 짓거나 문장에서 한자 어휘의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한자 어휘의 유래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거나, 전통 문화 계승 및 인성 함양과 연관된 학습 활동도 주목해 볼 만하다.



다음은 신체 관련 한자가 들어간 어휘의 뜻과 문장에서의 활용이다. 사전을 활용하여 빈칸을 알맞게 채워 보자.

齙齒	뜻	
	활용	나는 齙齒가 생겨서 치과에 방문할 예정이다.
手話	뜻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활용	
念頭	뜻	
	활용	운동회 날에 비가 온다는 것은 전혀 念頭에 두지 않은 일이다.

[한자 어휘의 뜻과 예문 채우기 : 다락(35면)]

1 다음 문장 속에서 잘못 쓰인 한자 어휘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틀린 말	바른 말
(1) 운동 전우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2)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장년에 대폭 증가했다.		
(3) 주말에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인 숭내문을 답사했다.		


[문장 속에 잘못 쓰인 한자 어휘 찾아 고치기 : 미래(41면)]

단어의 유래

금슬

금슬(琴瑟)은 거문고와 비슷한 옛날의 현악기이다. ‘금’은 5줄로 된 현악기이고, ‘슬’은 25줄로 된 현악기이다. 두 악기를 연주하면 화음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비유한다. ‘금슬’이 원말이지만, 지금은 음이 변하여 ‘금실’로도 쓰인다.

叔父^{숙부}와 叔母^{숙모}님은 이제 막 결혼한 新郎^{신랑} 新婦^{신부}처럼 금슬이 좋으시다.



[단어의 유래 ‘금슬’ : 교학(37면)]

<그림 3> 교과서의 한자 어휘 관련 기타 학습 활동사례

IV. 개선 방향 및 제언

지금까지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구현된 ‘학습 용어’와 ‘일상 용어’를 살펴보았다. 전체인 한자 어휘의 수록 내용이나 단원이 다른 한문의 영역에 비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일상 용어는 단원 수나 수록 어휘 수, 교수-학습 방법 사례가 다양한 편인데, 이는 지난 여러 교육과정 때부터 쌓여온 연구와 수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학습 용어는 수록 단원이 거의 없으며, 어휘 수도 교과서 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그 개념이 도입이 되어 연구가 많지 않고, 수록 어휘의 범위, 일상 용어와 구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상에서 하나의 내용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적 위상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비해 학교급이나 학생 지식 수준의 위계상, 한자 어휘가 더 강조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학습 용어 구현이 일상 용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과목이나 새로운 과목의 단원에서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문과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으로 ‘한자 어휘’는 교사도 학생도 한문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며, 한문 수업을 집중하거나 한문 교과를 선택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³⁾ 특히 ‘한자 어휘’ 중에서도 ‘학습 용어’가 학생에게 매력도가 높다.

고교학점제로 도입으로 새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도 ‘학습 용어’ 내용 요소를 유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 어휘’가 새로 개설하는 교과목의 주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한자 어휘’나 그 중 ‘학습 용어’가 교육과정 상의 비중과 실제 중요도 및 학습 정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의 구별점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교과서에 구현된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회, 연구자, 한문 교사들의 논의를 통해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의 명확한 구분을 짓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한자 어휘 영역의 내용 요소를 기존의 ‘성어’, ‘학습 용어’, ‘일상 용어’에서 다른 분류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한문에서 한자 어휘 교육을 발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거쳐서든 한번은 필요한 작업이다.

두 번째로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의 각각의 위계와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 용어’는 타 교과목 학습에 필요한 용어를 말하는데 학교에는 너무 다양한 교과와 교과목이 존재한다. 본고의 III.-1의 교과서 분석 내용에서처럼 각 교과서별로 수록한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교과목별로 중복되는 학습 용어가 많다. 아울러 어휘 간의 정확한 위계도 불분명하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 용어의 ‘빈도’와 ‘어휘 투명성’을 파악하여 위계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관계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세현(2021)은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 용어의 출처 범위를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등 6개 과목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어휘 목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자료들은 현재 가장 빠르게 실현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단원 구성 방안과 교육 방법의 개발도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단원 구성 방안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과서에서 제대로 된 단원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다음 교과서에서 ‘한자 어휘’ 영역이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와 같은 일회성의 수업 기법이 아닌 체계적인 교수-학습 절차나 소재의 개발이 있어야 제대로 된 단원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진다. 앞선 선행 연구 중 백광호, 공민정(2019)의 문제해결중심 수업 방법을 활용하며 다양한 ‘한자 어휘’ 학습 소재와 학습 단계를 개발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또는 한자와 한문 학습의 일반적인 순서인 ‘한자-한자 어휘- 단문-산문’의 학습 순서와 한문 교과 내에서의 다른 영역, 타교과 내용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하여 ‘한자-한자 어휘-한문 교과 내 다른 영역(문화, 인성) 연계 활용-타교과 또는 시사적 내용과의 연계 활용’ 등의 단계를 설정하여 대단원 또는 소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배희정(2020)의 학생 면담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한문 교과에 호의적인 인상을 느끼는 이유는 한문 수업에서 배운 한자와 어휘가 다른 과목 공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 선택과목으로 한문을 선택할 때도 학습 부담 때문에 선택이 꺼져지지만 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어휘를 배운다면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설문에서 ‘현재 한문교과에서 배우는 요소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한문 교과에서 중점을 두어 배웠으면 하는 내용’으로 각각 한자(어)와 한자어휘나 성어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얼마 전에 한문교사들의 단체SNS⁴⁾에 공개된 현장 교사들이 고민하여 공동으로 만든 부교재에는 앞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고민이 대략 보이는 것 같다. 부교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재 내용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교재의 활용성이나 내용은 추후 ‘한자와 어휘’ 단원을 구성할 때 일정 부분 참고할만하다. 또 ‘생활과 한문’ 교재의 단위 구성은 ‘일상 용어’ 또는 ‘학습 용어’만으로도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교사들의 연구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이나 차기 교육과정 하에 출판될 교과서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고시 외 과목 ‘생활과 한문’
부교재
활동중심 <생활과 한문>표지

목차			
0. 중문 3			
한문과 생활			
1. 한자와 한문	12	2. 무언이 가리말만	16
3. 정오해로, 한문	19	4. 어떤 교재, 활동	20
5. 무슨 배우기	22	6. 숨어있는 한자	28
7. 한자 활용 가리온 생애	30	8. 남자를 나타내는 한자	31
9. 수를 나타내는 한자	31		
한문과 인성			
10. 한자와 인성	34	11. 한자를 보아도 아는 한문	35
12. 일일한문, 어휘에 알고 있다	36	13. 동문서답으로 적히는 한문	39
14.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41	15.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43
16.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45	17.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47
18.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49	19.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52
20.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55	21.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58
22.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64	23.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66
24. 한문해설로 한문해설	68		

고시와 과목 ‘생활과 한문’ 부교재 목차

목차			
한문과 문화			
25. 생활의 한문은 어디에?	70	26. 네 나라가 어디에?	72
27. 전차 이야기	76	28. 조선 문화의 사대문	81
29. 우리나라 정오해	86	30. 다른 나라, 같은 글	90
31. 네 무언을 무언?	93		
한문과 인성			
32. 한문과 인성, 한문	95	33. 한문과 인성, 한문	97
34. 한문과 인성, 한문	98	35. 한문과 인성, 한문	101
36. 한문과 인성, 한문	102	37. 한문과 인성, 한문	104
38. 한문과 인성, 한문	106	39. 한문과 인성, 한문	108
40. 한문과 인성, 한문	111	41. 한문과 인성, 한문	113

<그림 4> 고시 외 과목 ‘생활과 한문’ 부교재 표지와 목차

이 과목과 교재에서도 ‘학습 용어’ 보다는 ‘일상 용어’가 목차 상 더 두드러지고, 내용을 보면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앞서 말한 코퍼스를 활용한 전문적인 위계와 범주 설정의 과정은 반드시 한번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어휘의 위계와 범위가 설정되고, 단위 구성 방안 등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면 교과서나 실책 교실 수업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 ‘한자와 어휘’가 중점이 되는 과목을 신설할 경우 또는 기존 교과목에서 ‘한자와 어휘’가 더 중요시 될 경우, 내용체계와 학습요소나 성취기준 등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마리 얻을 수 있다.

후반부 단위에는 단문도 나오지만 ‘한자와 어휘’가 교과의 주된 교육 내용이 되면서 내용 요소를 ‘일상 용어’ 내에서 더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점은 ‘한자와 어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기 교육과정에서 두루 적용할만하다. 지금까지 ‘한문 I’과 ‘한문 II’의 체계로 오랜 시간 이어져온 교

4) SNS 오픈채팅방 啍啍同時 한문교사방에 얼마 전 윤세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이 공동으로 제작한 고시의 과목 <생활과 한문> 부교재 파일이 배포되었다.

과목 체계가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유지, 신설, 변경 등을 통해서 변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Ⅰ’과 ‘한문Ⅱ’의 내용체계나 내용 요소는 큰 틀에서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교과목 개설의 이유와 우리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득시키려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체계 예시를 통해 ‘학습 용어’도 내용 요소를 더 구체화하고 확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5. 고교내용			
가. 내용 체계(성취기준)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한 지식	내용 요소
한자의 이해	한자의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임을 짓고 있다.	한자의 기원 한자의 3요소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배열
	한자의 음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운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가 많다.	음운음(1) 나이의 별칭 음운음(2) 천간의 지지 음운음(3) 계절과 24절기 음운음(4) 경조사와 단자 음운음(5) 한자와 호칭법
한문의 이해	한문의 문화	고사절어는 오랜 세월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가치, 태도와 풍자, 비판과 경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사절어의 이해와 활용 대중문화 속 절어
	한문의 인식	한문으로 전해지는 속담을 배우며 옛사람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한다.	한자속담과 문화
한문의 어휘	한문의 어휘	한문 기록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배우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표어·명절 수필과 교육 인상과 삶
	한문의 어휘	유로 정관을 읽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공자와 논어

참고문헌: 《생활과 한문》 5

나. 내용(단원별 핵심내용)			
대단원	소단원	핵심내용	
I. 한자의 기원	한자의 개요	한자의 기원	정형 초기(造字)설
	한자의 기원	한자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각형의 변화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	한자의 발달(한자(漢字)의 발달)	·한자의 발달
II.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한자의 이해

〈그림 5〉 고시 외 과목 ‘생활과 한문’ 내용 체계와 내용

V. 맺음말

‘한자와 어휘’ 그리고 교육과정 상 여기에 해당하는 ‘학습 용어’, ‘일상 용어’, ‘성어’는 한문과 교육내용으로는 물론이며, 다른 교과 학습과 나아가 학생의 상급학교에서의 학업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거듭된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잠시 주춤해지는 듯도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과 분량을 차지하면서 다시 대두되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라는 차기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요구 또는 교사의 요구로 학교 현장에서 다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그 개선점을 찾았다. 또 개선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선행 연구와 여러 교사들이 연구한 제작한 교재 속에서 개선의 방향도 짧게 살펴 보았다. 작게나마 교육과정 개정과 ‘한자와 어휘’ 학습 요소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생략(추후 기록)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¹⁾

鄭東雲*金聖中**

目 次

- I.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 실태의 일면
 - 한문과 교사의 한문 문법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중심으로
 - 1. 중등학교 한문과 교사의 한문 문법에 대한 인식과 의견 검토
 - 2. 단어의 짜임에서 술목관계의 단어와 술보관계의 단어 변별 문제
 - 3. 허사의 쓰임에서 어조사, 개사, 접속사 등의 세부 분류 문제
 - 4. 새 교육과정의 한문 문법 관련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 개정 사항 제안
- II. 수능 관련 문항
 - 1. 문항 분석
 - 2. 문법 관련 문항 분석에 따른 제언

I.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 실태의 일면

- 한문과 교사의 한문 문법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중심으로

1. 중등학교 한문과 교사의 한문 문법에 대한 인식과 의견 검토

중등학교 한문과 교사들이 한문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점에 주의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의 문법 관련 내용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해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법 관련 내용 재구조화 방안 탐색에 있어 주요하고 실제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문과 교사들의 실제 한문 수업에서의 한문 문법 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문 교사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단톡방(채팅방)³⁾에서 제기된 교사들의 한문 문법 관련 질의와 의견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는 실제 한문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 상황을 적실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전국의 학교가 등교중지가 되고 학교 현장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 일부 한문과 교사들이 온라인 상 한문교사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 유례 없는 전국 모든 학교의 온라인수업 발생으로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위하여 약 1500여 명의 전국 한문과 교사들이 대거 한문교사 오픈 단톡방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소규모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던 교사커뮤니티가 1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 현장 교사들의 참여 공간이 되었다. 소속 학교명과 개인 실명으로 가입

1) I.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 실태의 일면은 정동운, II. 수능 관련 문항은 김성중이 집필함.

* 서울 동덕여자중학교 / hansim87@hanmail.net **계명대 한문교육과 / zhung1227@hanmail.net

3) 《啐啄同時 한문 교사방》 [참가자 1163명(2021.19.25). 개설일 2020.02.25.]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https://open.kakao.com/o/g9otXLYb>

되는 오픈 단체 커뮤니티로 학교 현장 한문 교사들의 활발한 소통 공간이 되었고 이곳은 ‘줄탁동시 한문 교사방’이라 불리게 된다. 이 단톡방에서의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의 약 1년 반 동안 대화 내용 가운데 한문 문법 관련 질의와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문과 한문 문법 교육의 실질적인 현황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어의 짜임에서 술목관계의 단어와 술보관계의 단어 변별 문제

[사례 1-1] 2020년 4월 5일

[교사 A] 단어의 짜임에서 "무한"은 술목인가요 술보인가요? 예전인가 있을 유와 없을 무가 들어가는 단어는 술목이라고 들어서요

[교사 B] 술보관계인 거 같아요..

[교사 C] 유, 무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보어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2007에서는 보어 => 빈어)

[교사 A] 유와 무는 있다 없다로 풀이하지만 소유의 개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로도 봐서 술목이라고 설명한 분도 있어서요. 그럼 술목이 되겠지요?

[교사 B] 아 그렇군요. 덕분에 제대로 알았네요.

[사례 1-2] 2021년 9월 23일

[교사 A] 有利의 짜임은 무엇일까요

[교사 B] 술보입니다.

[교사 C] 술목입니다. 있을유, 없을무는 소유의 개념으로 해석되어 술목관계입니다.

[교사 B] 리유처럼 주술로 써도 되는 것 같지만, "~이 유리하다."라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보어로 써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 C]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有, 無는 소유의 개념으로 뒤에 오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됩니다. 성취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在 등 존재의 개념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은 보어가 됩니다.

교사 단톡방의 1년 반 동안 수많은 각양각종의 질의와 응답 그리고 의견 교류 가운데 단일한 주제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난 것이 [사례 1-1]과 [사례 1-2]와 같은 경우이다. 단어의 짜임 가운데 술목관계의 단어와 술보관계의 단어에 대한 변별과 관련한 질의와 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有利(유리), 無限(무한)과 같은 有無동사가 포함된 단어를 술보관계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단어의 짜임과 관련한 한문 문법상의 이해를 묻는 여러 질의만을 모아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 2] 한문 문법 단어의 짜임과 관련한 질의 모음

- [교사 01] 선생님들 다른 질문이요. 단어의 짜임에서 "無限"은 술목인가요 술보인가요?
- [교사 02] 유무의 단어짜임은 '존재'의 유무와 '소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교사 03] 多濕의 경우 '습기가 많다.'인데 주술관계로 보아야 하나요? 술보관계로 보아야 하나요? 국어문법에서는 주어로 처리할 것 같은데 교과서에는 술보로 나와있어서요.
- [교사 04]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질문 나온 거였는데 '가출'은 단어의 짜임이 뭘까요?? '집을 나가다'라고 술목으로 보려면 '출가'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가출의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 [교사 05] 선생님 다재 다능 같은 경우 多 다음 글자도 보어로 보는지요~
- [교사 06] 교과서 술목관계 예시로 무한-한계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전 술보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네이버에도 술보관계로 나오고 술목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여쭙습니다.
- [교사 07] 저는 지난번에 有, 無가 쓰이는 단어의 짜임이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술보가 아니라 술목으로 바뀐 것을 알려주셨던 게 충격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교육과정 해설서를 자세히 본 적 없어서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유한'이 '한계가 있다(술보)'가 아니라 '한계를 가진다(술목)'가 된다는 것인데 둘 다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을 쌤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시나요? 교육과정 해설서대로 '소유에 관한 동사인 무, 유는 술목으로 해석한다'라고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고민입니다ㅠㅠ
- [교사 08] 전 有無 쓰임은 술보라고 알고 있고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게 설명했는데ㅠ 헐~갑자기 멘붕인데요
- [교사 09] 窮人之事는 飜亦破鼻라. 에서 '破鼻'의 짜임은? 술목?술보? 어제 선생님들의 논의 후 급 헛갈려집니다.
- [교사 10] 斷腸의 짜임은 뭘까요?
- [교사 11]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夏至'는 여름이 이르다해서 주술이라고 책에 나오는데 '立春'은 단어의 짜임이 뭘가요? 봄의 기운이 이러서다 하면 풀이순서가 맞지 않고 봄의 기운이 일어서는 봄이라고 수식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데 가르쳐 주실래요?
- [교사 12] 선생님. 開花는 꽃이 피다로 해석하나요? 피는 꽃으로 해석하나요?
- [교사 13] 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大雪은 단어짜임이 수식인데 학생이 눈이 크다로 해석해서 술보도 되지 않냐고 물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더라구요 술보관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 [교사 14] 盲目 풀이 순서 어떻게 보세요?
- [교사 15] 降雨, 降雪도 술보인가요?
- [교사 16] 일식이나 월식 이란 단어도 문법적인 짜임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
- [교사 17] 논어 '傷人乎아'에서 '(불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가'처럼 술목이 맞을까요? '사람이 다쳤는가?'처럼 술보가 맞을까요? 전자로 생각했는데 교과서는 풀이를 '사람이'로 풀어서 헛갈리네요.

[교사 18] 선생님들! ‘多情’이란 말이 교과서에는 술보관계라고 되어있는데요.. ‘많은 정’이라고 해서 수식관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교사 19] 단어의 짜임 가운데 結露는 술보인가요??

[교사 20] 선생님들! 단어의 짜임에서 유한 무한은 현 교육과정상 술목관계로 이루어진 게 맞지요?

[교사 21] 안녕하세요~ 중학교 어떤 출판사 한문 교과서에 無限(한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술목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교사 22] 선생님~ 혹시 단어의 짜임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술목관계와 술보관계에 대해 어떻게 수업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사 23] 한자어의 짜임에 대해 無限이란 단어는 술목관계인가요. 아니면 술보관계로 봐야할까요 풀이는 한계가 없다라고 풀이되며 술목관계로 설명되어서 보통 술어 뒤에 ~가(이)로 풀이되면 술보관계로 봐야하지 않을까 해서요.

[교사 24]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有利的 단어의 짜임이 술목관계인가요? 저는 술보관계로 생각됩니다만 알려주세요.

‘줄탁동시 한문 교사방’에서는 1년 반 동안 다양각종의 한문 교육 관련 질의와 응답, 의견 교류가 있었는데 한문 문법 관련하여 위에 제시한 질의들과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한문 교사들에게 있어 왔다. 이러한 질의 뒤에 그에 대한 응답과 부가되는 의견 제시 등이 상당한 분량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질의들이 제기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한문 교사들이 한문 문법 가운데 단어의 짜임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 2011,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한문 문법 상의 내용(술목 술보관계)이 현장 교사들에게 적실하게 이해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⁴⁾ 단어의 짜임에 대한 질의 가운데 술목관계와 술

4) 이러한 혼란스런 이해가 생기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 논자는 당시 ‘줄탁동시 한문 교사방’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교사A] 술목관계(주술목구조)와 술보관계(주술보구조)에 대한 의견.

立春과 開花 관련해서 좀 긴 글을 올리게 됐네요. 한문과 문법 개념에서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술빈구조 개념을 도입했던 이유가 한문(문언문, 고전중국어)에 고유한 문법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문장을 타동사+빈어 구조로 파악하여 한문과 용어로는 술빈관계(이때 빈어는 기존의 목적어보다 함의가 넓습니다)로 분석하고, 보어의 경우는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로 된 서술어 뒤에서 보충하는 말을 보어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문(고전중국어) 자체의 고유한 문법 분석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랜 시절 단어나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한(풀이한) 구조를 분석하던 우리나라 한문 학교문법 분석으로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登山과 下山이 ‘술빈’과 ‘술보’로 나뉘어지는 상황을 현장 교사들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워 하게 됩니다. 다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절충적인 형태로 기존 분석하던 술목관계(有無동사 포함)와 술보관계로 환원해서 문법 설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의 혼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한문 어휘나 문장을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의 내용으로 문법적인 분석과 설명을 하다 보니 우리말로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해석되는 경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立春, 開花와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장의 경우가 아닌 국어에서 쓰이는 단어, 어휘(한자어)의 한문적인 뜻풀이의 짜임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그 단어, 어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 근거해서 한문적인 뜻풀이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開花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보면, ‘풀이나 나무의 꽃이 펴’이니 開花는 수식관계로는 분석되지 않고, 술보 내지 술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동사 ‘開’가 우리말 풀이로는 ‘열리다(자동사)+ 열다(타동사) / 피다(자동사)+ 피우다(타동사)’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화는 ‘꽃이 열리다+ 꽃을 열다 / 꽃이 피다+ 꽃을 피우다’ 모두 해석 풀이가 가능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풀이 ‘꽃이 펴’를 기준으로 해서 (開/花-서술어/보어)라고 분석하면 단순하고 편한 설명이 될 듯하지만, 문제는 ‘開’라는 한자의 기본적인 의미가 자동사보다는 타동사의 함의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開校, 開學, 開天, 開土, 開會, 開卷有益 등 開가 들어간 많은

보관계의 변별에 혼란스러운 이해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아래 단어와 문장에서 우리말 풀이가 ‘~이[가] ~하다’와 같은 형태로 풀이될 수도 있고 ‘~을[를] ~하다’와 같은 형태로 풀이될 수도 있어, 단어의 짜임을 술목이나 술보 두 가지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有利(유리), 無限(무한), 斷腸(단장), 開花(개화), 立春(입춘), 結露(결로)

-窮人之事(궁인지사) 鬪亦破鼻(번역파비) / -傷人乎(상인호)

위와 같은 단어와 문장의 짜임과 구조를 분석할 때 학교 현장의 교사는 ‘술목’인가 ‘술보’인가 의문점을 갖게 되고 교사들이 의문점을 갖는 만큼 이는 수업에 원활히 설명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교수학습의 내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의 짜임에 관한 질의와 응답 뒤에는 항상 한문 문법[술목 술보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한문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고 호감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의견과 함께 한문 문법 사항을 최소화해서 수업하고 있다는 수업 상황에 대한 토로가 있었다. 아래 한문 문법 가운데 단어의 짜임과 관련해서 한문 교사들의 실제 수업에 한문 문법 수업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워하게 되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제시한다.

어휘들의 의미를 보면, 일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늘이 열린다, 회의가 열린다’ 등 우리말의 풀이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開의 주된 의미는 타동사의 의미로 대상을 ‘열다, 시작하다,’로 봐야 할 듯합니다. ‘학교를 열다, 수업을 열다, 하늘(세상의 시작)을 열다, 땅을 열다, 회의를 열다(시작), 책을 열다(독서)’이니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開 뒤에 그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뒤에 놓이는 것이 온당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문 구조 자체로 보아서는 이런 분석이 타당한데 이 어휘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었을 때 (開/花-타동사/목적어)보다 (開/花-자동사/주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쉽게 풀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술목 관계와 술보관계가 혼동된다고 생각합니다. 立春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풀이로는 ‘봄이 서다(建/시작)’라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고 쉽지만 立春의 원 의미로 보아서는 ‘봄을 건립하다, 봄을 시작하다’의 함의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四立(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모두 四時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로 ‘立’은 ‘建’의 의미로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중략) 여하튼 立자도 우리말로로는 자동사-서다, 타동사-세우다의 뜻으로 둘 다 풀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술목과 술보의 혼동되는 이해와 설명이 생기는 듯 합니다. 立場, 立體, 立地처럼 수식관계로 해석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立法, 立國, 立案, 立證, 立志, 立身揚名, 不立文字 등의 예를 보면,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주어+서술어로 풀이가 돼서 (서술어+보어)로 분석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세우다, 나라를 세우다, 안건을 세우다, 증거를 세우다, 뜻을 세우다, 몸을 세우다, 문자를 세우다 등 (타동사+목적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立春도 이에 준하여 해석하면 우리말로로는 ‘봄이 시작하다/세워지다, 봄의 시작’ 등으로 쉽게 풀이가 되긴 하지만 그 함의는 (봄을 건립/시작하는 절기)라고 보아서 그 단어의 문법적인 관계는 타동사+목적어로 분석해야 타당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문(고전중국어)에서 보어 개념은 형용사 서술어(多, 少, 難, 易), 자동사 서술어(登, 入, 歸 등등)에 국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술어 보어의 적용이 해석에 따라 분석 적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혼동이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정교육과정에서 향후 한문 학교문법 적용 시에 (국어)한자어 짜임 분석에 있어 보어의 개념은 삭제하고, 즉 술보관계란 개념은 없애고, 주술/술목/수식/병렬로만 설명하고, 다만 문장의 구조(통사론)에서 국어의 보어 개념(되다/아니다의 앞의 보어)처럼 주어 뒤/서술어 앞에서 없어서는 문장이 되지 않는 보충하는 말만 보어로 취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법 설명에서 단어의 짜임을 학생들에게 주요하게 설명할 것은 語順의 파악만을 강조하여 서술어 뒤에 오는 글자는 모두 목적어로, 서술어 앞에 오는 글자는 주어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한자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어순을 감안하여)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관점이지요. 한문 문장에서는 서술어 뒤에서 개사를 동반한 보어 어구만 보어로 분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역시 서술어 뒤의 어구나 어절은 모두 목적어로 분석해서 문장을 단순하게 한문 어순에 따라 해석하게 하는 것이 한문 학습에 긴요할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한문과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한자어를 술목 술보 관계로 나눠서 설명해야겠지만 이 경우 (1) 한자어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 입각하여 단어의 짜임을 분석한다. (2) 단어 안의 서술어를 파악하여 서술어의 동사적 성격을 파악한다.(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변별함) 이 경우 우리말로 자동사로 풀이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울지라도 한문 어휘 상 동사의 원래 의미에 근거하여 서술어 뒤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한다. 이런 기준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혼동은 여전할 듯합니다.

[사례 3] 한문 문법 단어의 짜임과 관련한 의견 모음

- [교사 01] 학생들은 한문에서 보어를 국어에서는 부사어로 이해해서 혼동을 겪더군요.
- [교사 02] 실제로 부사어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요. 저도 국어교사고 상처로 한문을 가르치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 [교사 03] 저도요. 소유의 개념으로 풀이되기도 하지만 장소 등을 나타낼 때 ‘~에 있다’ 풀이될 때는 애매하던데.
- [교사 04] 선생님 하마터면 오답으로 애들 계속 가르치고 채점할 뻔 했네요.
- [교사 05] 그래서 저도 명확한 거 주술관계 술목관계 중 확실한 것만 예를 들어봤고 유무 들어가는 것은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석만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 [교사 06] 문법을 강조하면 학생들이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한문을 더욱더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군요..
- [교사 07] 단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 꼭 이렇게만 해석 된다 기 보다는 어떤 문맥에 활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개연성을 알려주고 단어의 짜임은 한문을 잘 해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네요.
- [교사 08] 학문 문법과 학교 문법은 성격을 달리 한다는 논문이 떠오르네요.. 학문 문법은 문법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학교 문법은 문법을 통한 학습이 목적인 거. 문법 때문에 한문을 더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없길. 현장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교육과정 상의 문법 문제도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 [교사 09] 이상한데요ㅜㅜ 억지스럽고ㅜㅜ 有는 억지로 술목이도나 無는 無識 앓을 안 갖고 있다? 우째야 되는 거죠?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혼란스럽네요ㅜㅜ. 無限 한계를 안가진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오마이갓ㅜㅜ
- [교사 10] 저는 되도록이면 문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해서요
- [교사 11] 저도 문법 안 합니다. 기본적인 순서만 가르치고 넘어가요. 어휘, 고전, 성어 등에 집중합니다
- [교사 12] 저도 문법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를 가르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줍니다.
- [교사 13] 저도 문법이 흥미를 떨어뜨리고 안 그래도 어려워 하는 한문을 더 미워할까봐 술목개념 정도만 하네요. 이 有無는 제가 납득이 잘 안가서요ㅜㅜ
- [교사 14] 저도 문법 안 가르치고 강조도 안 합니다. 한문 싫어하는 지름길로 안내할 것 같아서요.
- [교사 15] 영문법에서 하던 걸 한문에 접목하려니 학생이나 교사나 둘 다 진이 빠지지요~ 학부 때도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요~
- [교사 16] 저도 문법은 거의 안 하고 해석이 나올 때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번 온라인수업에 영상강의를 감사히 받아쓰다보니 의도치 않게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ㅜㅜ
- [교사 17] 한문 문법은 애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無를 동사로 보았죠. 그 이유는 有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有의 자원이

고기를 가지고 있다이니 동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법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휘를 분류하기 위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출발하며, 無자 역시 문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동사'라는 절대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에게 멀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학교 한문문법이 선생님들에게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학교 문법이 좀 바졌으면 하는 소망도 있네요.

[교사 17] 2015 교육과정에서 유무 뒤의 문장 성분을 목적으로 특정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좌전의 경우(小人有母, 좌전 은공원년,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를 봐도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머니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순자(天行有常, 하늘의 운행에는 상도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손왕이 천하를 소유하는 것(有天下, 맹자 공손추상, 천하를 점령하다)엔 문제가 없겠네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有와 在의 문제로 애를 먹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날 갑자기 빈어가 됐다 보어가 됐다 하는 문제가 난감했을 뿐이지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쓰는 분의 견해에 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문 관련 종사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이 먼저고, 문장 규칙을 정하고 분류하는 문제는 후순위니까요. 문법 문제로 아이들이 한문을 싫어하게 만든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18] 저는 단어의 짜임이라는 것이 쉽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구요. 사실 '斷腸'의 경우만 하더라도 '斷腸之哀'나 '母猿斷腸'의 의미를 함의하고 풀이했을 때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단장취의식으로 '斷腸'이라는 단어만 놓고보면 '끊어진 창자'라고 풀이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위의 여러 의견을 통해, 단어의 짜임 가운데 특히 술목관계와 술보관계의 변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문과 교사들이 수업 상황에서 한문 문법 학습 요소를 교수학습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점을 적실하게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 한문 문법 사항이 학습 요소 내지 교수학습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제시된 한문과 교사들의 앞서 열거한 질의와 한문 문법에 대한 의견들이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주로 국어 한자 어휘에 대한 단어의 짜임 이해에 관한 것이란 점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다. 한문 문장에 대한 주요 질의와 의견들은 주로 한문 문장 내에서 허사의 쓰임(예컨대 之의 쓰임)⁵⁾이나 해석 풀이의 순서 등에 관한 것이 많았고 이 또한 특별히 어려운 문장에 대한 상황이고 한문 교사들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이 될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추정컨대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일 것이다.

4자성어, 고사성어, 학습용어, 한문 문장[단문, 산문, 한시]에 대한 수업은 한문 문장의 풀이와 이해에 집중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다. 한문 수업에 있어서 4자성어,

5)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질의의 경우이다.

[교사A] 之의 풀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한비자 鄭人買履 본문에서 之의 쓰임에 관해 가르쳐 주세요. 之가 세 번 나오는데 1번 3번의 之는 그것으로 풀이했고 두 번째 之의 쓰임이 궁금합니다.

고사성어, 단문, 산문, 한시 문장에 대한 수업은 주로 문장의 구조 내지 문장 안에서의 단어의 품사나 성분 분석은 해석의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문법적인 사항이 교수학습의 주요 사항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에 ‘단어의 짜임’과 같은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이나 내용 요소가 교과서의 주요 대상이거나 수업 제재의 주요 국면인 경우에 해당 학습 요소의 대부분은 국어 한자 어휘인 경우가 많다. 이런 수업 내용의 어휘들 가운데 앞서 교사들의 질의의 대상이 된 有利(유리), 無限(무한), 斷腸(단장), 開花(개화), 立春(입춘), 結露(결로)과 같은 경우가 있으면 교과서마다 이를 술목관계와 술보관계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교사들의 해석에 따라서도 다르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 경우 2자로 된 단어의 뜻을 한자 낱 글자에 뜻에 따라 풀이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보다 쉽고 단어의 짜임에 유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앞서 교사들의 질의와 같은 고민이 생겨나고 이는 일정 정도 교사를 혼란시키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인 학생들에게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앞서 보았던 교사들의 의견 개진처럼 해당 한문 문법 학습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발생하게 하고 교수자인 교사들은 이를 수업에서(최소 시험 출제에서는 더욱 더) 배제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나게 된다.

3. 허사의 쓰임에서 어조사, 개사, 접속사 등의 세부 분류 문제

[사례 4] 어조사, 개사, 접속사 등의 한문 문법 용어에 대한 의견 모음

- [교사 01] 허사에서 개사와 어조사는 딱히 구분 지을 필요 없이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 [교사 02] 어조사(어) 이거 학생들한테 한자 이름 설명할 때 어조사(어)로 가르치면 안 되나요? 다른 이름이 있나요? 제 수업할 때는 그냥 어조사(어)로 가르치는데 온라인상으로 개방되다 보니.. 개사를 왜 어조사라고 가르치냐고 하는 분들이 있겠조.
- [교사 03] 학생들에게 개사까지 설명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어조사(어)라고 가르치거든요 ^^;;
- [교사 04] 선생님~ 저도 학생들에게 대략적인 설명은 해주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개사에서 처소, 대상의 뜻을 가진 한자로 於가 나오는데 어조사 어니까 어조사도 되므로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냐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 [교사 05] 어조사 - 발어사 夫 무릇 (부) 등 / 종결사 - 也, 哉, 矣, 焉 / 의문, 반어 - 乎 등 개사 - 영어의 전치사와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於, 于, 以 등
- [교사 06] 저는 허사 또는 어조사라고 합니다. 개사, 어조사 등을 세분화하면 어려워하니깐요.
- [교사 07] 전치사, 개사, 후치사 - 특정 문장 성분의 앞, 사이, 뒤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명명된 개념. 접속사, 발어사, 감탄사 등 - 문장 독해에 끼치는 기능에 따라 명명된 개념. 사실 두 가지 개념정리에 따른 용어들이 마구 섞여 사용되는 바람에 혼동이 오는 게 아닐까요? 사실 허사의 용어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한 책도 보지 못한 듯요ㅠㅜ

- [교사 08] 저도 어조사, 종결사, 개사를 합쳐서 어조사(여기를 도와주는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조사(어), 어조사(우)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니야 그건 어조사가 아니라 개사야. 차이점이 뭐냐면 구구절절.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 [교사 09] 뭐 영어도 전치사 접속사 등으로 크게 묶어서 말하는데 복잡할거 있나요. 저도 그냥 而를 접속사라고 말하는 거 빼고 다 어조사라고 해버립니다.
- [교사 10] 저도 거의 허사와 어조사를 하위가 아니라 동일개념으로 가르치고 역할에 따른 용례로써 설명하는 편입니다.
- [교사 11] 저도 실사와 허사로 구분해서 알자고 가르치고 있어요.
- [교사 12] 허사가 활용된 예시를 제시하기가 까다롭다는 거ㅠㅠ 독해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다다라야 하겠지요.
- [교사 13] 저는 중학교 1년짜리 수업. 허사까지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의 전치사 접속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곤 했어요. 1년만 한문과목을 배우니까 한시까지만 가면 많이 했다 하는데, 개사와 어조사의 의미까지는 가르칠 생각도 못하고 항상 진도가 끝났거든요. 하기 나름이긴 할텐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설명해야겠네요.

현자의 한문과 교사들은 허사에 있어서 세부 분류인 어조사, 개사, 접속사 등에 용어에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허사에 대해서 간명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한문 문법(교육과정 문법 관련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 요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문 수업에 있어 허사의 세부적인 분류와 특징 등의 한문 문법적인 학습 요소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앞서의 단어의 짜임에서 술목과 술보 문제와도 연결되어 현장 교사들은 4자성어, 고사성어, 단문, 산문, 한시 문장에 대한 수업에서 주로 문장의 구조 내지 문장 안에서의 단어의 품사나 성분 분석 시 허사의 구체적인 쓰임을 풀이를 통해 해석의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사의 세부적인 분류나 상세한 내용 요소의 문법적인 사항은 교수학습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4. 새 교육과정의 한문 문법 관련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 개정 사항 제안

이상의 한문과 교사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문법 교육의 실태를 교사 단독방의 여러 질의와 의견 등을 통해 그 일단의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학교 현장에서의 한문 문법상의 몇가지 혼란스러운 이해와 여러 교사들의 구체적인 한문 문법에 대한 이해와 의견 개진을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새로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문 문법 관련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안한다.

-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서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등 한문 문법 부분 대거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사들의 문법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상의 한문 문법 학습요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실제로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에서 교사들의 인식과 그에 대한 문법 사항의 배제는 교육과정 현실적인 적용 문제로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문과의 기본적인 성취기준 내지 학습요소로 중학교 교육과정이 기본, 기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을 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의 이해와 활용’ 부분의 세부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을 변경 수정(단어,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 고사성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언어적 활용으로 학습자에게 쉽고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교육과정 내용요소 변경)함이 보다 교육과정이 현실적인 수업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서 허사의 세부적은 분류(어조사, 개사, 접속사 등)는 삭제하고 ‘허사의 쓰임(허사의 개별 글자의 문장 내에서의 쓰임)’ 만으로 허사에 대한 한문 문법 요소를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문법 부분 상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서 국어 한자 어휘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는 ‘단어의 짜임’ 부분은 삭제하고 문장의 구조, 허사의 쓰임으로 한문 문장에 관한 문법적 부분만으로 통합 조정하여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로 제시한다. 단 이러한 한문 문법 사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조정에 있어서 ‘보어’ 개념의 재정립(보어의 최소 적용-형용사 또는 자동사 서술어 뒤에서의 보충하는 어휘적 성분으로 보어를 규정함)하여 문장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 사항을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와 수정 요망되는 부분으로 비교하여 아래 제시한다.⁶⁾

6) 이 수정 사항 예시 제시는 현재의 2015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과목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제시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과목 체계를 변경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20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대상으로 수정 요망되는 사항을 제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의 내용 체계에 대한 수정 요망 사항>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수정 사항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 한자의 부수 / 한자의 필순 / 한자의 짜임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단어의 짜임	삭제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실사와 허사의 세부 분류 삭제
	한문의 독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문장의 구조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문장의 유형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소리 내어 읽기 / 끊어 읽기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자 어휘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다.	일상용어 / 학습 용어 / 성어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문과 문화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의 내용 체계 예시>

영역 및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 한자의 부수 / 한자의 필순 / 한자의 짜임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한자 어휘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다.	일상용어 / 학습 용어 / 성어
한문의 독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문장의 구조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문장의 유형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소리 내어 읽기 / 끊어 읽기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 이해와 감상
인성과 문화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의 내용 체계 예시(중학교 체계와 동일. 단. *부분만 추가)>

영역 및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 한자의 부수 / 한자의 필순 / 한자의 짜임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 *품사의 활용
	한자 어휘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다.	일상용어 / 학습 용어 / 성어
한문의 독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문장의 구조 /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II. 수능 관련 문항

- 중등학교 한문 문법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과 수능과의 관계
-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에 대한 평가 측면 뿐 아니라 중등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
-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중요한 사항
- 수능, 중등학교 현장, 교육과정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체적 존재

1. 문항 분석

1)분석의 대상:

- ①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16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총 6개
- ②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모의’): 18학년도 6월 모의부터 22학년도 6월 모의까지 총 9개
- ③수능특강(이하 ‘특강’): 22학년도(이전 학년도에 대한 것은 추후 보완 예정)
- ④수능완성(이하 ‘완성’): 22학년도(상동)

2)문법 관련 문항 유형

- ‘문법’을 언어학 측면에서의 ‘한문’으로 상정하므로, 언어 단위에서의 ‘단어’가 아닌 개별 한자(형음의),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어휘 관련 문항 등은 제외
- 문항 유형별 정량적 조사는 본 발표 주제와 일정한 거리가 있어 제외

㉠문장에서의 한자 독음

-단순 독음

歲時，作打白餅，切以爲湯，能不傷寒暖而耐久，取其㉠淨潔。
俗謂不食此餅，不得歲云，余強名爲添歲餅。

*餅(병): 떡
-『청장관전서』-

21.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 ① 간결 ② 담박 ③ 정결 ④ 담백 ⑤ 청결

‘21 수능’

-同形語(즉, 同形異音二詞)의 음

伐木, 不自其本, 必復生, ㉠塞水, 不自其源, 必復流, 滅禍, 不自其基, 必㉡復亂.

- 『국어』 -

23. ㉠과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새 | 복 | ② 새 | 부 |
| ③ 색 | 복 | ④ 색 | 부 |
| ⑤ 삭 | 복 | | |

‘21 수능’

㉠문장에서의 단어 짜임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 煖(난): 따뜻하다

- 『맹자』 -

18. ㉠과 짜임이 같은 것은?

- ① 河海 ② 天賦 ③ 黃土 ④ 讀書 ⑤ 登校

‘21 수능’

㉠단어 의미 관계-실사

-유의 관계(단순어)

子張學干祿,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在其中矣.”

* 闕(꺠): 빠다

- 『논어』 -

26.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信 ② 過 ③ 慾 ④ 默 ⑤ 誠

‘21 모의 6월’

-유의 관계(복합어)

㉠日月如流, 事親不可久也. 故爲子者, 須盡誠竭力, 如恐
㉡不及, 可也. 古人詩曰: “㉢古人一日養, 不以三公換.” 所謂
愛日者如此.

* 竭(갈): 다하다
- 『격몽요결』 -

23.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時間 ② 天下 ③ 空間 ④ 世上 ⑤ 人間

‘19 모의 9월’

-광의의 통가

不能㉠舍己從人, 學者之大病. 天下之義理無窮, 豈可是己
而非人?

- 『퇴계전서』 -

18.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似 ② 舌 ③ 合 ④ 捨 ⑤ 利

‘21 모의 9월’

-반의 관계

22.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所憎者, 有功必賞, 所愛者, 有罪必(㉠).

- 『육도』 -

- ① 罰 ② 償 ③ 尙 ④ 恕 ⑤ 然

‘20 모의 6월’

㉡ 다의적 측면(동일 단어의 의미항목 분별; 同音同形詞)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一國之事，當與一國人，共治，不可㉠與一二私人，從欲而治。取一國公論所㉡指望之人，任官㉢責成，卽與國人共治也。公論，乃國人共㉣推之論，非公論，何以會合國人之心也？國人之所願，必從，所不願，亦從，所欲，必㉤從，所不欲，亦從，雖欲不㉥治，得乎？

- 『인정』 -

26. ㉠와 쓰임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ㄴ.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ㄷ. 與損者處, 則名自卑, 而身自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 모의 6월’

㉠ 어순

14.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愛而知其惡, (㉠).

- 『예기』 -

—<보 기>—

가	나	다	라	마
其	善	憎	知	而

- ① 나 - 가 - 마 - 라 - 다 ② 나 - 마 - 다 - 가 - 라
 ③ 다 - 나 - 마 - 가 - 라 ④ 다 - 마 - 라 - 가 - 나
 ⑤ 라 - 마 - 다 - 가 - 나

㉠ 문장, 담화에서의 지배, 지칭

-행위 주체

黃相國喜，微時，㉠行役，憩于路上，㉡見田父駕二牛耕者，
問曰：“二牛何者爲勝？”田父不對，輟耕而㉢至，㉣附耳細語
曰：“此牛勝。”公怪之曰：“何以附耳相語？”田父曰：“雖畜物，
其心與人同也。此(㉣)則彼劣，使牛聞之，寧無不平之心乎。”
公大悟，遂不復㉤言人長短。

* 憩(계): 쉬다 * 駕(가): 멧에를 메우다 * 輟(철): 그치다

-『지봉유설』-

18. ㉠~㉤ 중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2 모의 6월’

-대명사 지칭

虎求百獸而食之，得狐，狐曰：“子無敢食我也。天帝使㉠我長
百獸，今子食我，是逆天帝命也。子以我爲不信，㉡吾爲子先行，
㉢子隨我後，觀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虎以爲然，故遂與
㉣之行，獸見之，皆走，虎不知獸畏己而走也，以爲畏狐也。

* 狐(호): 여우

-『전국책』-

23. ㉠~㉣ 중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 모의 9월’

㉔ 구두(띄어 읽기)

(가) 衆鳥高飛盡, 孤雲㉑獨去閒.

相㉒看雨不厭, 只有敬亭山.

* 閒(한): 한가하다 * 厭(염): 싫어하다

- 이백, 「獨坐敬亭山」 -

(나) ㉓池上亭亭百尺松, 寒天斜日翠浮空.

四時不㉔變專孤節, 肯畏嚴霜與㉕疾風.

* 翠(취): 푸르다

- 박인로, 「四友亭」 -

20.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ㄴ. (가)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對偶)를 이루고 있다.

ㄷ. (나)의 운자(韻字)는 ‘節’, ‘風’이다.

ㄹ. (나)의 둘째 구는 ‘寒天斜日 / 翠浮空’으로 띄어 읽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모의 6월’

㉕ 허사의 용법(기능, 문법적 의미)

-문법적 의미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 有甚㉑於生者. 故, 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 患有所不辟也.

* 辟(피): 피하다

- 『맹자』 -

21. ㉑과 쓰임이 같은 것은?

① 揚名於後世.

② 富莫富於不欲.

③ 合抱之木, 生於毫末.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⑤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22 모의 6월’

-서로 다른 허사의 동일 기능

凡曰某事難者, 皆不爲也, 非不能也. 人之才分, 固有限量, 而肯心所指, ㉠事無不成, 怠心所指, 事無不毀. 人之喜事者, 以有肯心而常覺㉡於易也, 人之厭事者, 以有怠心而常覺於(㉢)也.

* 厭(염): 싫어하다
- 『홍재전서』 -

22.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① 而 ② 矣 ③ 于 ④ 又 ⑤ 耶

‘19 수능’

㉢어순

15.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 無說己之長.

- 최원 -

<보 기>

가	나	다	라	마
之	無	道	短	人

① 나 - 가 - 마 - 라 - 다 ② 나 - 다 - 마 - 가 - 라

③ 다 - 나 - 마 - 가 - 라 ④ 다 - 마 - 나 - 라 - 가

⑤ 마 - 다 - 나 - 라 - 가

‘20 수능’

2. 문법 관련 문항 분석에 따른 제언

1) 새 교육과정에서 문법 학습 요소의 과목별 확정 시 참고 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 학습 요소 중 ‘문장의 유형, 문장 성분 생략, 도치, 품사의 활용’ 등과 관련된 문항은 찾기 어려웠다.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답항에

근거할 때 평가 요소를 ‘도치’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子謂顏淵曰：“用之則行，舍之則藏，惟我與爾，有是夫。” ④子路曰：“子行三軍，則①誰與？”子曰：“暴虎馮河，死而無悔者，吾不與也，必也臨事而懼，好謀而成者也。”

* 顏淵(안연): 사람 이름 * 爾(이): 너

* 馮(빙): 맨몸으로 건너다

- 『논어』 -

13. ①의 풀이로 옳은 것은?

- ① 무엇을 주겠습니까
- ②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 ③ 언제 합께하겠습니까
- ④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 ⑤ 누구와 합께하겠습니까

‘19 모의 9월’

①따라서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문법 학습 요소를 위계화 내지 과목별 배치할 때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후의 단상과 제언

수능 관련 문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관련 교재를 만드시고 문항을 출제하신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컸다. 부족한 능력으로, 2012년 수능 특강 교재 집필에 참여하던 때의 어려움도 다시 떠오르면서 이러한 귀하고 값진 문항들에 대해 채언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격변의 시기인 현재, 한문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설령 정치하지 못한 견해라도 소견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번 발표를 맡은 필자의 소임일 것이다. 교재 집필, 문항 출제 등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한다.

①단어의 의미 문제

모든 언어가 그렇듯 ‘한문’에서도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를 ‘의미항목’이라고 한다. 한문 사전에서는 보통 이 ‘의미항목’에 따라 ‘단어’의 의미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모든 언어의 사전과 마찬가지로, 한문 사전 간에도 ‘의미항목’의 분류는 다르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의미항목’만으로 한문 문장에 대한 적절한 역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의미항목’은 의미항목 중심변체가 지니는 의미를 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용법의’ (‘文脈義’)인 비중심변체의 의

미(즉 개별 문맥에 딱 들어 맞는 의미)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가 한문 문장을 풀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까지 될 수 있다. ‘대표뜻’(편의상 ‘甲’으로 지칭), ‘의미항목’(편의상 ‘乙’로 지칭), ‘문맥의’(편의상 ‘丙’으로 지칭)가 일치하는 경우는 하나의 의미(보통 ‘甲’) 제시로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⁷⁾ ‘乙’과 ‘丙’이 같은 경우는, ‘甲’ 외에 추가로 한 가지(즉 ‘乙’이자 ‘丙’)만 제시하면 되지만, ‘乙’과 ‘丙’이 다른 경우, 다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甲’ 외에 ‘乙’과 ‘丙’을 모두 제시하거나, ‘甲’ 외에 ‘丙’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상용할 수 있는 한문학습사전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학습자는 ‘甲’ 외에 1개의 의미만 추가될 경우, 이 의미가 ‘乙’인지 ‘丙’인지 알 수 없을 것이고, 한국어, 영어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현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해당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할 경우, 만일 ‘丙’으로만 지속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丙’으로 인해, 해당 ‘단어’의 의미는 변화 무쌍한 변체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한문에서 ‘단어’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 있다. 다만 불행이자 다행(?)인 것은 현재 한문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다양한 의미 변체(즉 ‘丙’)로 접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일 것이다. 접하는 글감 자체가 적으니 ‘단어’의 의미 변체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평가의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혼란이다. 다음 두 문항을 보자.

近世, 有田舍人, 亦當夏月之夕, ㉠加足於門櫳之上, 仍着睡矣. 有蛇入盤于禪中, 不㉡出. ㉢覺而料之, 則難免矣. …(중략)… 兒, 捷起附耳, 曰: “潛臥勿動.” 卽㉣出井甃間, ㉤得一蛙而來, 觸柱聲㉥出. 蛇聞之, 紋身修然而㉦出, 遂得免(㉧).

* 櫳(룽): 난간 * 仍(잉): 인하다 * 禪(곤): 잠방이 * 捷(첩): 빠르다
 * 甃(쥬): 벽돌담 * 蛙(와): 개구리

- 『어우야담』 -

4 ㉠~㉧의 풀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1033-0160

<보기>

㉠: 걸쳐 놓다 ㉡: 깨어나다 ㉢: 잡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22 특강, 110-111면.’

7) 각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전에 따라 ‘丙’을 ‘乙’로 상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론으로 서술한 것이다.

‘加’에 대한 사전의 의미항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p>3【加】가 ㄱㅏ ㄹㅑ(jiā) ⑤ 01749</p> <p>金文 𠂔 小篆 𠂔 草書 𠂔 會意</p> <p>① 더할 가(增也). 보태다. 늘리다. 減(12505)의 대(對). [論語·子路]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② 올릴 가(上也). 높다. [北史 30·盧同傳] 吏部加階之後 簿不注記. ③ 포겔 가(重也). 또는 포개지다. [儀禮·鄉飲酒禮] 有諸公則辭加席. ④ 뽐낼 가(高也). 우쭐거리다. [禮·內則] 不敢以富貴加於父兄. ⑤ 입을 가(著也). 옷을 입다. 또는 입히다. [穀梁傳·僖 7] 朝服雖敝 必加於上. ⑥ 넘을 가(超越). 능가하다. 더났다. [史記 87·李斯傳] 雖申韓復生 不能加也. ⑦ 업신여길 가(陵也). 억누르고 욕보이다. [論語·公冶長]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p>	<p>⑧ 베풀어질 가(施也). 미치다. [孟子·盡心上] 古之人得志 澤加於民. ⑨ 맡을 가(擔任). 담당하다. 또는 벼슬 자리에 있다. [孟子·公孫丑上] 夫子加齊之卿相. ⑩ 엮을 가(置也). 덮다. [論語·鄉黨] 加朝服 拖紳. ⑪ 더욱 가(益也). 더한층. [禮·儒行] 言加信 行加義. ⑫ 맛있을 가(美也). 맛이 좋다. 嘉(03091)와 통용. [左傳·文 16] 時加羞珍異. ⑬ 얹을 가(架也). 둥지 치다. [淮南子·時則] 鴈北鄉 鵲加巢. ⑭ 쏘 가(射也). [詩·鄭風 女曰雞鳴] 戈言加之 與子宜之. ⑮ 벼슬이름 가(官名). 우리 나라 부여(夫餘)에서 썼던 벼슬 이름. [後漢書·夫餘傳] 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狗加. ⑯ 더하기 가(加法). 덧셈. <例> 加減乘除. ⑰ 성 가(姓也).</p>
--	--

『교학대한한사전』⁸⁾

<p>力【加】5 ㄱㅏ ㄹㅑ(jiā) 3 ㄱㅏ ㄹㅑ(jiā)</p> <p>筆順 ㄱ ㄹ ㅏ ㅑ 加 加 加</p> <p>字解 ①더할가 ②보태, 늘림, 많게 함. ‘倍一’, ‘既富矣, 又何一焉’《論語》. ③높게 함, 올림. ‘一階’, ‘有諸公則辭一席’《儀禮》. ④뽐냄, 중. ‘一思’, ‘老有一惠’《左傳》. ⑤더하여질가 ⑥보태어짐, 높, 많아짐. ‘祀一於舉’《國語》. ⑦높아짐, 올라감. ‘獻子一於人一等矣’《禮</p>	<p>記》. ③업신여길가 모멸함, 능멸(凌蔑)함. ‘我不欲人之—諸我也’《論語》. ④입을가, 쏘가 착용(着用)함. ‘一冠’, ‘一朝服’《論語》. ⑤칠가 공격함. ‘宵一於郕’《左傳》. ⑥있을가 처(處)함. ‘一於齊之卿相’《孟子》. ⑦미칠가 이름. ‘刀鋸不一’《韓愈》. ⑧가법가 수에 수를 보태는 일. 또, 그 산법(算法). ‘一減乘除’. ⑨더욱가 한층 더, 오히려 더하게. ‘一勇’. ‘今之時, 與孟子之時, 又一遠矣’《韓愈》. ⑩성가 성(姓)의 하나. 字源 金文 𠂔 小篆 𠂔 會意. 力+口. ‘力’은 팔의 상형으로 ‘힘’의 뜻. ‘口’은 신(神)에게 올리는 축문(祝文)의 뜻. 힘과 축문을 합쳐서, 종교적·물리적 작용을 가하라는 뜻을 나타냄.</p>
---	---

『한한대사전』⁹⁾

㉠에 쓰인 ‘加’의 의미는 아마도 『교학』에서의 ‘⑩엮다’ (乙에 해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민중』에서는 ‘④입다’를 제시했는데, 개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환언하면 ‘丙’을 ‘乙’로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걸쳐 놓다’는 풀이는 무엇에 해당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丙’으로 상정하기도 어려운, 중심변체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비중심변체를 제시한 것이다. 문맥에 따라 뜻을 정한 것(즉 ‘因文定義’)이 아닌, 글자만 보고 뜻을

8) 교학사, 2018년

9) 제2판, 민중서림, 1999년

10) 『한어대사전』에서 3번째 항목에 “謂置此於彼之上；把原來沒有的添上去。°《論語·鄉黨》：“疾，君視之，東首，加朝服，拖紳。”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들어 낸 것, 즉 의미항목의 고유한 의미를 벗어나서 문맥에 의지해 주관적인 추측만 한 경우로, 이른바 ‘望文生義’인 것이다.¹¹⁾

子曰: …(중략)… “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

* 蕩(탕): 제멋대로 하다 * 絞(교): 급하다

- 『논어』 -

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의미로 옳은 것은?** ◎ 21033-0194

① 害惡
② 自責
③ 順從
④ 名分
⑤ 承認

‘22 특강, 134면.’

이 문제의 답항인 ‘害惡’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이점은 앞의 문항은 본문 풀이에도 ‘걸쳐 놓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데 비해, 이 문항은 본문 풀이에는 ‘폐단’이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害惡’으로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弊端’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害惡’이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분명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해악	해가 되는 나쁜 일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물론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5개 보기 중에 ‘害惡’ 외에 고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은가?” 만일 답만을 찾기 위한 문항의 측면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글감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장이고 교과서 및 각종 번역서¹²⁾의 번역도 ‘폐단’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 문장을 가르칠 때 교사들은 분명 ‘폐단’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만약 “‘其蔽也狂’을 번역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그 해악은 경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정답으로 인정할 것인가?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납득할 것인가? 수능 관련 문항은 평가의 의미 외에 그 자체로 교수학습에서 역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교수평가일체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역측해 본다. ‘丙’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중심변체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비중심변체를 제시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평가해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어의 풀이를 묻는 문항의 경우는 ‘甲’ 혹은 ‘乙’ 정도를 염두에 두어야지, ‘丙’까지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 교수학습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분명 ‘丙’(혹은 그보다 더 멀리 나간 변체)까지 고려할 수는 있지만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에서는 ‘乙’ 정도까지로 제한하여 의미를 묻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만일 ‘丙’을 지나치게 고려한다면 이것은 학습

1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책, 장사오위 저 ; 이강재 역(2012),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 서울(한국), 차이나하우스. 84면 참조.

12) 정태현, 성백효, 김학주 세 분의 『논어』 관련 번역서가 모두 그렇다.

자에게 문턱을 통해 ‘丙’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번역문을 그대로 암기하기를 바라는 것일 듯하다.

㉠어순의 문제

수능 관련 문항은 학교 현장의 수업의 방향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는 듯하다. 풀이 순서 관련 다음과 같은 문항들은 아마도 교사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까 억측해 본다.

有丐者, 言飢於忠寧大君, 忠寧以聞, 太宗曰: “中外飢民, 已令有司, 賑濟, 毋致飢餓, 何不謹奉行如是耶? 忠寧, 見予矜恤飢寒, 有所見聞, 輒必來告. 然, 垂死之民, 見王子然後, 獲食, 非可繼之道也.”

㉠命治主者罪.

* 丐(개): 빌다 * 賑(진): 구휼하다 * 毋(무): 말다 * 矜恤(궁휼): 가엾게 여기다 * 輒(첩): 번번이

- 『연려실기술』 -

3 ㉠의 풀이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21033-0171

① 命 → 治 → 主 → 者 → 罪

② 命 → 主 → 治 → 者 → 罪

③ 主 → 罪 → 治 → 命 → 者

④ 主 → 者 → 罪 → 治 → 命

⑤ 治 → 主 → 者 → 命 → 主

‘22 특강 118면’

답은 ‘주관하는 자의 죄를 다스리도록 명했다’ 라는 본문 풀이를 따랐다. 그러나 ‘명하여 주관하는 자의 죄를 다스리게 했다’ 혹은 ‘주관하는 자의 죄를 명하여 다스렸다’ 로 한다면 과연 오류라 할 수 있는가? 물론 답항에는 상기와 같은 번역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에게 답을 고르게 하는 것으로만 수능 관련 문항의 방향을 잡을 수는 없다.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子貢曰：“必①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曰：“去食，自古皆有死，②民無信不立。”

- 『논어』 -

● 21076-0054

24 ㉠의 풀이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信 → 立 → 不 → 民 → 無
- ② 信 → 民 → 立 → 無 → 不
- ③ 信 → 民 → 無 → 不 → 立
- ④ 民 → 信 → 無 → 立 → 不
- ⑤ 民 → 無 → 立 → 不 → 信

‘22 완성 9면’

‘不’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한문의 구조에 근거한다면 ‘不-立’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굳이 번역으로 이해하더라도 ‘서지 못한다’만 맞고 ‘못 선다’는 틀리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 부정 부사를 먼저 해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현대 한어인 중국어 교육과 관계된 언급이지만, 육점명의 다음 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 대상 중국어교육에서 가장 기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은 중국어의 습관적 표현이다”하는 말이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어법 문제를 질문했을 때, 특히 “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종종 “이것은 중국어의 습관이다”라고 대답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응한다. 이러한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학생들은 가장 듣기 싫고, 무서운 대답을 들은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중국어 학습에 영향을 주어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에는 대체로 어법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¹³⁾

이러한 문항들을 대비하여 수능을 준비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전부 어순을 설명해야 한다. 대단히 버거운 일이다. 주지하듯 한문의 통사 구조는 풀이 즉 한국어 번역과 대응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동시에 납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칫 학생에게 강요할 수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20 수능’ 15번 문항의 방향이 적절할 듯하다.

13) 陸儉明 저 ; 중국어교육연구회 역(2013), 130면.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한문을 가르칠 때 “이 구절은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인 셈이고, 결국 “한문에는 대체로 문법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㉔불완전한 보기 제시

한문에서의 ‘문장’이란 무엇인가? 결코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문장’의 정의에 흔히 등장하는 ‘완전한 의미’는 중등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할 듯하다.

曾子^㉑之妻^㉒之市, 其子隨^㉓之而泣. 其母曰: “女還. 顧反爲女殺彘.” 適市來, 曾子欲捕彘殺^㉔之. 妻止^㉕之曰: “^㉖特與嬰兒戲耳.” 曾子曰: “嬰兒非與戲也. 嬰兒非有知也, 待父母而學者也, 聽父母之教. 今子欺之, 是教子欺也. 父欺子而不(㉗)其母, 非所以成教也.”

*彘(체): 돼지 *嬰(영): 아이
- 『한비자』 -

28 ㉑~㉕ 중, <보기>의 ㉖와 쓰임이 같은 것은?

<보기>

孟子^㉖之平陸.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22 완성 5면’

‘孟子’는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平陸’은 다르다. ‘孟子之平陸’이 명언, 명구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학생들이 미리 인지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람이 아닐까? 또한 처음 접한 ‘孟子之平陸’이란 문장을 보고, 『맹자』 원문의 맥락처럼, ‘平陸’은 지명이고, ‘之’는 ‘가다’라고 분석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맹자가 평륙에 대해서는”¹⁴⁾이라고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면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㉕여론

한문교과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문에는 현토를 제시하고, 평가 문항 등에서는 표점을 사용한다.¹⁵⁾ 수능에서는 현토를 묻는 경우도 없고, 현토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현토가 있을 경우, 본문의 이해가 훨씬 정확하고 수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¹⁶⁾ 수능에서 한문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문교과를

14) 이 경우 ‘之’는 어조사다.

15) 교과서에서의 이에 대한 불일치 문제는 김성중, 「한문 교과서 번역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동방한문학』, 2020에서 다룬 바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김성중, 「바람직한 한문 문법 지도 방안」, 『한자한문교육』, 2014, 참조.

필수로 하자' 라는 식의 주장은 말할 수는 있지만 자칫 다른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감쇄시키는 것으로 선언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하고 보다 정치한 근거를 마련하되 다른 것들에 대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치밀한 논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소견들은 이러한 맥락의 소치이다. 수능 문항에서 표점이 아니라 현토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학계에 구한다. 당연히 여러 어려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토의 제시가 학생들이 수능에서 한문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의 고민과 노력은 일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등학교 한문 산문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이군선(원광대학교), 박기성(화순고)

1. 서론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에서 한문 산문을 제재로 한 단원의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목표(성취기준)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고등학교 현장에서 한문 산문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의 한문 산문 수록 현황을 한문 산문을 제재로 한 단원과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 관련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학교 현장의 한문 산문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한문 산문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고등학교의 경우 한문과에 배당된 수업 시수가 산문을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그다지 많이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위의 연장선에서 대부분의 산문은 교과서의 뒷부분에 배치되어 산문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있어 줄거리가 있는 글이 아니면 관심을 끌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분량 면에서도 산문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교과서의 한문 산문 단원에 대한 정리 및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산문과 관련하여 성취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리고 교과서 단원구성에서 한문 산문을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등학교 『한문 I』의 산문 제재 수록 현황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한문산문을 제재로 한 단원은 빠르면 3단원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간에 한시 단원을 제외하고는 마지막까지 한문 산문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교과서별 한문 산문 제재 관련 단원 구성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본문내용
금성 출판사	Ⅳ.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	9. 김선생, 번뜻이는 재치를 발휘하다	차계기환
		10. 어머니, 남몰래 선행을 베풀다	홍서봉 대부인
		11. 김만덕,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다.	김만덕
	Ⅵ. 민족의 얼, 겨레의 숨결	15. 민족의 영산 ‘백두산’, 생명의 땅 ‘독도’	백두산, 독도
		16.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 추석	추석
		17. 백성에게 준 최고의 성물, 스물여덟 글자	훈민정음
	Ⅶ. 동양 고전에서 삶의 길을 찾다.	18. 배우고 때로 익히면	논어
		19.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맹자
		20.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제자백가
	Ⅷ. 머물고 싶은 공간, 문학의 숲	21. 만 냥을 빌려 경제 활동을 시작한 ‘허생’	허생
		22. 봄날 밤, 동산에서 잔치를 벌인 ‘이백’	춘야연도리원서
		23. 뛰어난 안목으로 천리마를 알아본 ‘백락’	잡설
다락원	넷. 삶을 움직이는 글	8. 신중한 언행 不言長短	황희
		9. 남을 배려하는 마음 母氏之心	홍서봉 대부인
		10. 조선 예술가 崔興孝·李澄	최흥효, 이정
	여섯. 내 나라의 역사	14. 우리 민족의 시조 檀君	단군
		15. 고구려를 세운 주몽 朱蒙	주몽
		16. 잊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渤海	발해고서
	일곱. 찬란한 우리 문화	17. 우리나라 명절 풍속 添歲餅·角力之戲	떡국, 씨름
		18.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宮城·瞻星臺	궁궐, 첨성대
		19. 우리 땅, 우리 글 獨島·訓民正音	독도, 훈민정음
	여덟. 동양 사상의 숨결	20. 공자의 가르침 論語	논어
		21. 맹자의 말씀 孟子	맹자
		22. 여러 사상가의 생각 諸子百家	제자백가
대명사		5. 임기응변의 지혜	홍섬
		6. 끊임없는 노력	김득신
		7. 나눔의 보람	김만덕
		8. 바람직한 토론 태도	이황
		9. 배움의 시기	稼說
		10. 창의적인 생각	의산문답
		11. 진정한 우정	관포지교
		12. 깨달음의 실천	황희
		13. 꿈에 대한 열정	김성기
		14. 스승의 가르침	사설
		15. 큰 사람의 길	대학, 중용, 논어
		19. 재치있는 대답	차계기환
		20. 아름다운 효행	진정표
		21. 공직자의 자세	맹사성
		22. 임금의 백성구제	태종
		23. 대담한 담판 외교	서희
		24. 공익의 실천	문익점
		25. 소중한 우리 영토	안용복, 발해고서, 대마도
대학서림	Ⅲ. 세상을 사는 멋과 지혜	5. 제출하지 않은 답안지	최흥효
		6. 먹지 않는 지혜	野鵲
		7. 보물을 사양하다.	子罕辭寶
	Ⅳ. 이야기 고사성어	8. 어부의 이익	漁父之利
		9.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指鹿爲馬
		10. 완벽하게 돌아오다.	完璧
	Ⅵ. 선택의 기로	14. 남이 모르는 선행	손숙오
		15. 참다운 의술	조광일
		16. 아이와의 약속	증자
	Ⅶ. 성현의 가르침	17.哲人을 만나다	논어, 노자
		18.哲人, 정치의 출발점을 제시하다	맹자
		19. 기록의 중요성	발해고서
	Ⅷ. 미래를 위한 기억	20. 사유화할 수 없는 역사	조선왕조실록
		21. 민중을 위한 개혁	田論
	Ⅸ. 근대로 향하는 조선의 풍경	22. 백성을 사랑한 군주, 개혁을 꿈꾸다	정조
		23. 成市의 기운 가득한 한양과 이야기꾼	傳奇叟

동아 출판사	Ⅳ. 우연과 일화	7. 도깨비 그리기 8. 닭을 빌려 타기	한비자 차계기환		
	Ⅵ. 동양 사상 알기	12. 인간의 도리 13. 갈등의 해결	논어, 맹자 제자백가		
	Ⅶ. 역사와 소설	14. 알지 이야기 15. 춘향 이야기	김알지 춘향		
	Ⅷ. 고전의 향기	16. 스승의 참모습 17. 종로의 옛 모습	사설 鐘街記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8. 거위의 지혜 9. 양심의 소리	野鵝 王密	
미래엔	Ⅴ. 성어, 우래로 배우다	12. 비유로 말하기 13. 관점을 넓혀 보기	刻舟求劍, 助長 尾生之信, 三人成虎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 사관의 정신 15. 예술가의 삶 16. 그리운 영웅	閔麟生 崔北 李舜臣		
	Ⅶ. 철학, 길을 묻다	17. 인류의 스승 공자 18. 목자와 맹자 19. 노자와 한비자	논어 목자, 맹자 노자, 한비자		
		20. 천리마와 백탁	잡설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21. 고구려의 시조 22. 조폐왕의 최후 23. 목민의 길	주몽 항우 목민심서		
		Ⅲ. 속담과 격언	7. 내면을 밝히는 글 8. 관계를 밝히는 글	설원 여씨춘추	
		Ⅳ. 일화와 인물	9. 김 선생의 재치 10. 예술가의 열정 11. 김만덕의 나눔	차계기환 이징, 학산수 김만덕	
Ⅵ.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15. 우리의 명절 16. 단군 신화 17. 발해고서		설날, 추석 단군 발해고서		
비상교육	Ⅶ. 철학 고전 읽기	18. 논어 19. 맹자 20. 도덕경·장자	논어 맹자 도덕경·장자		
		Ⅷ. 한문 산문 감상	21. 온달 22. 두 아들에게 23. 잡설	온달 기연아 잡설	
	씨마스	Ⅲ. 한자문화권의 교류와 소통	7. 연행, 세계 인식의 통로 8. 통신사, 문화 교류의 장 9. 국경을 초월한 우정	열하일기 해유록 담헌서	
Ⅳ. 이야기로 얻는 교훈			10. 신중한 말과 생각 11. 책임을 다한 자세 12. 나눔을 실천한 삶	황희 김수행 김만덕	
		Ⅵ. 선인들의 발자취	16. 창조적 문화유산 17. 세상을 담은 그림 18. 나라를 위한 희생	주자소 김홍도 안중근	
Ⅶ. 옛 성현과의 만남			19. 공자, 맹자 20. 노자, 장자 21. 목자, 한비자, 순자	논어, 맹자 도덕경, 장자 목자, 한비자, 순자	
		Ⅷ. 다양한 고전의 세계	22. 기지를 발휘한 토끼 23. 아들을 떠나보내며 24. 천리마를 알아보는 눈	귀토지설 農兒墳志 잡설	
이젠 미디어			Ⅵ. 풍속과 지리	17. 세배와 떡국 18. 숨바꼭질과 줄넘기 19. 독도와 백두산	세배, 떡국 숨바꼭질, 줄넘기 울릉도,독도, 백두산
		Ⅶ. 기록의 유산		20. 낙랑과 호동 이야기 21. 굳게 마음을 먹고	왕자호동 양연
				22. 자식에게 보낸 편지 23. 왕이 실록을 보려 하매	寄二兒, 寄兩兒 맹사성

	VIII. 사상과 철학	24. 과학적인 안목	의산문답
		25. 경제를 살리는 길	북학의
		26. 어진 삶	논어
		27. 의로운 실천	맹자
장원교육	V. 고전에서 찾은 인간상	17. 향득과 왕상의 효성	향득, 왕상
		18. 계찰의 신의	계찰
		19. 퇴계와 허형의 선택	이황, 허형
		20. 사랑을 실천한 김만덕	김만덕
	VI. 신화와 역사	21. 신화 이야기	단군
		22.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태종실록
		23. 우리 땅, 독도	안용복
		24. 대한국인 안중근	안중근
	VII. 철인과의 만남	25. 군자와 소인	봉당론
		26. 추사와 세한도	세한도
		27. 삶을 바꾸는 논어	논어
		28. 맹자의 즐거움	맹자
지학사	II. 지혜와 감동을 전하는 인물	6. 소년, 이웃을 살린 지혜	김종수
		7. 김성기, 소리에 대한 열정	김성기
		8. 다산,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	거중기
		9. 대장금, 현대에도 살아있는 옛사람들	대장금, 김중선
	IV. 우리 땅을 걸으며 만나는 역사	14. 백두대간으로 떠나는 여행	택리지
		15. 조선의 궁궐 탐방	경성
		16. 소중한 우리 역사, 발해	발해고서
	V. 성현이 남긴 이치와 도리	17. 공자가 추구하는 인간상	논어
		18. 맹자가 바라는 세상	맹자
		19. 제자백가의 주장	노자, 묵자, 한비자
	VI. 재미와 가르침을 주는 명문	20. 빛을 되찾은 해와 달	연오랑세오녀
		21. 도원에서 맺은 결의	삼국지
		22. 호랑이의 꾸짖음	호질
		23. 황소를 타이르는 글	격토헌소서
		24.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	잡설
천재교육	III. 역사 속 인물과 일화	6. 임금님의 감시자	민인생
		7. 가난한 이들의 의원	조광일
		8. 농부의 귀속말	황희
	V. 가치 있는 문화	12. 재미있는 전통 놀이	달맞이, 율놀이
		13. 멋스러운 산	금강산, 지리산
		14. 조선의 과학 기술	측우기
	VI. 변화의 시대	15. 민심을 얻는 길	정보위
		16. 탕평의 길	탕평책
		17. 자주와 자강	자주자강
	VII. 천년을 넘어선 대화	18. 배움의 즐거움	논어
		19. 사람의 본성	순자, 맹자
		20. 편견을 넘어서	노자, 장자
YBM	VIII. 명문 속으로	21. 눈과 귀의 잘못	일야구도하기
		21. 비수에 담긴 뜻	형가
		22. 유한한 인생의 즐거움	춘야연도리원서
		8. 각주구검	각주구검
		9. 호가호위	호가호위
		10. 맹모단기	맹모단기
		11. 우공이산	우공이산
		15. 잠을 권하는 물건	책
		16. 형제가 금덩이를 던지다.	형제투금
		17.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리	차계기환
		18. 홍익인간	단군
		19. 귀토지설	귀토지설
		20. 허생전	허생전
		21. 논어	논어
		22. 맹자	맹자
		23. 답연아	답연아
		24. 사설	사설

이를 보면 금성출판사 『한문 I』은 한문 산문을 제재로 대단원 Ⅳ, Ⅵ, Ⅶ, Ⅷ에 12개의 소단원으로 단원을 구성하였고 다락원 『한문 I』도 대단원 Ⅳ, Ⅵ, Ⅶ, Ⅷ에 12개의 소단원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대명사 『한문 I』은 대단원 구성이 없이 5~15, 19~25까지 18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서림 『한문 I』은 대단원 Ⅲ, Ⅳ, Ⅵ, Ⅶ, Ⅷ, Ⅸ에 16개의 소단원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동아출판사 『한문 I』은 대단원 Ⅳ, Ⅵ, Ⅶ, Ⅷ에 8개의 소단원으로 하였고 미래엔 『한문 I』은 대단원 Ⅲ, Ⅴ, Ⅵ, Ⅶ, Ⅷ에 14개의 소단원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비상교육 『한문 I』은 대단원 Ⅲ, Ⅳ, Ⅵ, Ⅶ, Ⅷ에 14개의 소단원으로, 씨마스 『한문 I』은 대단원 Ⅲ, Ⅳ, Ⅵ, Ⅶ, Ⅷ에 15개의 소단원으로, 이젠미디어 『한문 I』은 대단원 Ⅵ, Ⅶ, Ⅷ에 11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원교육 『한문 I』은 대단원 Ⅴ, Ⅵ, Ⅶ에 12개의 소단원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지학사 『한문 I』은 대단원 Ⅱ부터 산문이 나오며 대단원 Ⅳ, Ⅴ, Ⅵ에 15개의 소단원으로, 천재교육 『한문 I』은 대단원 Ⅲ, Ⅴ, Ⅵ, Ⅶ, Ⅷ에 15개의 소단원으로, YBM 『한문 I』은 대단원 구성없이 14개의 소단원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출판사)	대단원 수	소단원 수	전체 단원 수
금성출판사	4	12	23
다락원	4	12	22
대명사	-	18	25
대학서림	6	16	23
동아출판사	4	8	17
미래엔	5	14	23
비상교육	5	14	23
씨마스	5	15	24
이젠미디어	3	11	27
장원교육	3	12	28
지학사	3	15	24
천재교육	5	15	22
YBM	-	14	24

이렇게 보면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아출판사(17), 이젠미디어(27)과 장원(28)을 제외하고는 22~25개로 소단원을 구성하였고, 이 중 산문을 제재로 한 단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아출판사(8)와 이젠미디어(11), 장원교육(12)을 제외하고는 대략 50%를 넘고 있다.

3. 고등학교 『한문 I』의 산문을 제재로 한 성취기준 현황

산문을 제재로 한 각 교과서들의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목표 선정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 종류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성취기준에 제시한 것은 표 작성의 편리상 한문과 교육과정의 해당영역 핵심 개념의 성취기준에 속한 단어로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의 ‘한문의 독해’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는 ‘내용과 주제’로 하였고, ‘한문의 독해’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서술방식’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는 ‘인성’으로 하였고, ‘한문과 문화’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는 ‘전통문화’로 하였으며, ‘한문과 문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는 ‘한자문화권’으로 대신하였다.

먼저 살펴볼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한문 I 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성출판사 한문 I 은 ‘내용과 주제’ ‘서술방식’ ‘인성’ ‘전통문화’ ‘한자문화권’에 고르게 학습목표를 안배하였는데 ‘인성’과 관련한 학습 목표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출판사)	소단원	산문 관련 학습 목표	성취기준
금성출판사	9. 김선생, 번뜻이는 재치를 발휘하 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선인들의 해학을 이해한다.	인성
	10. 어머니, 남몰래 선행을 베풀다	선인들의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인성
	11. 김만덕,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 다	서사적 서술 방식의 글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선인들의 ‘나눔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서술방식 인성
	15. 민족의 영산 ‘백두 산’, 생명의 땅 ‘독도’	묘사적 서술방식의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우리 국토에 대한 글을 읽고 나라 사랑의 가치관을 함양한다.	서술방식 인성
	16.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 추석	명절과 풍속에 담긴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고 창조적으로 계승하 려는 태도를 기른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 의 태도를 지닌다.	전통문화 한자문화권
	17. 백성에게 준 최고의 선물, 스물여덟 글자	의론적 서술 방식의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세종의 애민 정신을 이해하고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서술방식 전통문화
	18. 배우고 때로 익히면	공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인성
	19.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맹자의 사상을 알고 현대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을 기른다.	인성
	20.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제자백가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한다.	인성
	21. 만 냥을 빌려 경제 활동을 시작한 ‘허 생’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2. 봄날 밤, 동산에서 잔치를 벌인 ‘이백’	산문의 서성적 서술방식을 이해하고 글을 감상한다. 선인들의 인생관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서술방식 인성
	23. 뛰어난 안목으로 천리마를 알아본 ‘백 탁’	산문의 의론적 서술방식을 이해하고 글을 감상한다. 인재 등용과 관련한 선인의 지혜를 이해한다.	서술방식 인성

이어 살펴볼 교과서는 대명사 한문 I 이다. 대명사 한문 I 은 ‘전통문화’와 ‘한자 문화권’과 관련한 학습목표는 제시하지 않았고 ‘서술방식’과 관련한 것이 1개, ‘인성’과 관련한 것이 5개이다. 그리고 22개 학습목표 중에서 ‘내용과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16개를 차지하고 있다. 한문 산문관련 단원이 25개의 소단원 중에서 18개로 많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보면 ‘내용과 주제’와 관련된 학습목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 (출판사)	소단원	산문 관련 학습 목표	성취기준
대명사	5. 임기응변의 지혜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임기응변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인성
	6. 끊임없는 노력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7. 나눔의 보람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8. 바람직한 토론 태도	바람직한 토론 태도를 말할 수 있다.	인성
	9. 배움의 시기	산문을 풀이하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10. 창의적인 생각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11. 진정한 우정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12. 깨달음의 실천	말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인성
	13. 꿈에 대한 열정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14. 스승의 가르침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15. 큰 사람의 길	선인들의 사상이 담긴 글을 풀이할 수 있다. 군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19. 재치있는 대답	선인들의 해학적 삶을 말할 수 있다.	인성
	20. 아름다운 효행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을 알 수 있다.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서술방식 내용과 주제 내용과 주제
	21. 공직자의 자세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할 수 있다.	인성
	22. 임금의 백성구제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23. 대담한 담판 외교	산문을 풀이하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24. 공익의 실천	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산문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내용과 주제
	25. 소중한 우리 영토	산문을 풀이하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다음은 장원교육 한문 I 이다. 장원교육 한문 I 은 산문 관련 단원에서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제시한 학습 목표 2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습목표를 ‘내용과 주제’와 관련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14개의 학습목표 가운데에서 12개의 학습목표가 ‘내용과 주제’ 관련이다. 물론 한문 산문에서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고 다른 핵심개념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한문 산문 단원을 한문 산문과 관련하여 제시한 학습목표가 대부분 ‘내용과 주제’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교과서 (출판사)	소단원	산문 관련 학습 목표	성취기준
장원교육	17. 향득과 왕상의 효성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생각해 본다. 효성을 소개한 한문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내용과 주제
	18. 계찰의 신의	신의를 지킨 일화를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19. 퇴계와 허형의 선택	양심을 지키고 실천한 일화를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0. 사랑을 실천한 김만덕	나눔을 실천한 만덕의 일화를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1. 신화 이야기	신화를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2.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역사를 기록한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서술방식 내용과 주제
	23. 우리 땅, 독도	독도에 대한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4. 대한국인 안중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5. 군자와 소인	자신의 주장을 밝힌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6. 추사와 세한도	자신의 의견을 밝힌 산문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27. 삶을 바꾸는 논어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서술방식
	28. 맹자의 즐거움	맹자를 풀이하고 그의 사상을 이해한다.	내용과 주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교과서의 한문 산문 관련 단원에서 학습목표에 따라 성취기준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내용과 주제’와 관련한 학습목표를 제시한 것이 104개며 ‘서술방식’과 관련한 학습목표를 제시한 것이 42개이고 ‘인성’과 관련한 것이 74개며 ‘전통문화’ 관련 22개 ‘한자문화권’ 관련이 17개다.

성취기준 출판사	내용과 주제	서술방식	인성	전통문화	한자문화 권	계
금성출판사	1	5	9	2	1	18
다락원	9	4	4	1	1	19
대명사	16	1	5	-	-	22
대학서림	3	1	9	2	-	15
동아출판사	2	4	5	2	-	13
미래엔	7	1	5	2	1	16
비상교육	13	5	3	1	-	22
씨마스	5	3	7	2	3	20
이젠미디어	7	4	6	2	1	20
장원교육	12	2	-	-	-	14
지학사	10	7	6	4	5	32
천재교육	8	4	10	1	-	23
YBM	10	1	3	-	-	14

모든 산문은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이 없을 수 없지만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학습목표를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문 제재 관련 단원에 이렇게 학습목표를 제시한 것은 교과서를 구성할 때 이들 단원에 이들 성취기준과 관련한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고등학교 산문 교육 실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공통과목의 이수기준을 마련하거나 선택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등 시범학교를 연구·운영 중에 있다. 이에 맞춰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한문 과목은 보통교과군의 선택과목(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가정, 제2외국어, 교양과목들과 함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택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만큼 학생들의 교과 선택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문 교과의 학습 필요성과 학습 이점을 부각하거나, 학습하기 어려운 교과라는 기존 인식에 변화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과, 더 나아가 학점 이수하기 어려운 교과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교과목이 폐강되는 일은 다반사가 될 것이며, 수능 한문의 존속과 한문 교원의 감축이라는 현안들과 접목되어 한문 교과의 위상에까지 적신호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한문 교과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현시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한 노력 가능점을 생각해보자. 대학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감을 안겨주는 선택과목은 선택지 범주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고 의사 표출이 확고하며, 진로 탐색에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많은 교과목 중에서 특정 교과를 선택한다면, 어떤 면을 중시하겠는가? 이에 맞춰 한문 교과는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겠는가?

먼저, 학점 이수에서의 수월성이다. 고교학점제에 의해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고등학교 졸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은 선택과목의 학습 내용 난이도와 성취기준 도달 가능성을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한문 교과의 차시가 진행되면서 학습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학생 역량을 넘어선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학습 내용과 적정의 성취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입 평가에서의 성취도이다. 고교학점제에 의해 선택·이수하는 교과마다 절대평가 방식의 학업성취율(성취도 A~D)로 내신이 산출되는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율에 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한문 교과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문장의 길이가 긴 산문 제재에 이르러 학습 의욕이 정체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입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업성취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의 구성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대학교의 한문학, 고전학 등 인문학 관련 학과의 진학을 위하여 한문 교과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은 수월한 학점 이수과 높은 성취도 확보를 위해 학습 난이도와 부담감 정도를 가늠해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부분이 산문 제재 수록 단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거나 산문 제재 관련 단원의 성취기준이 난해하고 불균형한 상황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한문 교과의 인식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현행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한문 교육의 방향을 찾아 보고자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문 산문 교육의 실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한문 교사들이 응답한 한문 교육 관련 일반 항목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의 한자, 한자어휘, 단문, 산문, 한시 등의 제재마다 부가 자료 및 학생활동을 융합하여 연간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둘째, 지필고사, 학력평가, 체험학습, 공휴일 등으로 인해 교과 연간 계획(연간 68시간, 학생당 1주 2시간)대로 시수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한문 I 교과서의 소단원 15 이내에서 연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넷째, 한 소단원을 학습하는데 평균 3차시 이상이 걸리며,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병행하고 있었다. 다섯째, 중학교에서 한문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배경지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업출발점을 잡고 있었다. 여섯째, 한자와 한자어휘 제재 단원을 무난하게 학습하던 학생들이 산문 제재를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교과에 대한 흥미를 급격히 잃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공통의 특징들을 통해 수업 시수가 산문 제재 단원을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한문의 기초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있어 산문 제재는 교과의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여 학습 부담감만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고등학교 한문 산문 교육의 실태와 관련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설문 문항 ① “한문 교과 교육에서 산문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에 대하여 “20% 이내”라는 선택지에 답변이 집중되었다. 성어의 유래와 관련된 단문과 비교적 짧은 산문은 함께 제시되는 성취기준에 대해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지만, 40~70자를 초과하는 긴 산문은 모든 풀이를 하고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조차 쉽지 않은 수업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다수의 한문 교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긴 산문에서 주요 단문 일부를 발췌하거나, 부가 자료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부 교사는 긴 산문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설문 문항 ② “한문 산문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교과서의 구성상 산문 영역이 후반에 있어서”가 전체 답변의 약 30%를 차지하였고, “수업시수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제시된 성취기준이 어려워서” 등의 순이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는 중간 한시 단원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단문과 비교적 짧은 산문, 뒷부분은 긴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문이 교과서의 뒷부분에 배치된 상황에 부족한 연간 수업 시수라는 악조건까지 더해져 긴 산문을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설문 문항 ③ “한문 산문을 교육하며, 어느 부분(성취기준)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는지요?”에 대하여 “작품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을 말할 수 있다.”에 가장 많은 답변이 달렸다. 이어서 “작품의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작품의 가치 등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의 다양한 서술방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등의 순이었다. 앞서 살핀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의 산문 제재 수록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목표(성취기준)가 ‘내용과 주제’, ‘인성’, ‘서술방식’, ‘전통문화’, ‘한자문화권’ 순이라는 점과 상통하는 답변 결과이다. 그만큼 한문 교사가 교과서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고, ‘전통문화’, ‘한자문화권’ 등의 성취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설문 문항 ④ “한문 산문 제재와 관련하여 어느 것을 주로 가르치는지요?”에 대하여 약 60% 이상이 “일화”를 주로 가르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명문교육”, “사상류 산문”, “절기, 풍속류”의 순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있어 즐거리가 있는 일화를 통해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문보다는 긴 산문으로 이루어진 “일화”는 원만한 분량의 산문을 풀이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성취기준 “내용과 주제”를 다룰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분석하는 학습 활동에서 성취기준 “인성”까지 다룰 수 있는 이점도 염두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절기, 풍속류”는 교과서 뒷부분에 위치하여 길게는 80자를 초과하는 긴 산문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가르치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성취기준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관련 용어 및 단문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설문 문항 ⑤ “학생들이 느끼는 한문 교과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에 대하여 “어려워함”이라는 답변이 약 75%에 달하고 있었다. 그 나머지도 “매우 어려워함”과 “보통”, “진도에 적응해나감”이라는 답변으로 나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라는 답변은 극히 드물었다. 설문 문항 ⑥ “연간 수업 진행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한문 제재는 어느 부분인가요?”에 대하여 “한문 산문”이 대다수였고, “단문”, “한시”의 순이었다. 이는 한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한문 교과를 어렵게 인식하고, 특히 한문 산문 제재에 이르러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에게 한문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이수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문 교육의 방향을 찾고자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한문 산문 교육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았다. 결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문 교과를 선택하게 하려면 현재보다 더욱 쉬운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을 마련해야하며, 그에 따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재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문 제재 중에 특히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한문 산문 제재를 다각적으로 변화시

켜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 분량이 긴 산문의 구성 비율을 낮추거나, 산문 제재 관련 성취기준을 학생들의 역량에 맞추어 조절하거나, 기존의 긴 산문에서 다루었던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단문 등의 한문 제재로 대체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5. 결론 - 향후 산문 교육의 방향

위에서 살펴 본 현행 교과서 수록 한문 산문 관련 단위 분석과 현장에서의 산문 교육현황 조사는 향후 산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산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한문 산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문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재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문 교과는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에 속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 범주에 놓이게 될 예정인데, 길고 난해한 한문 산문 제재를 현행과 같이 교과서에 수록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하기를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선택과목의 목록에서 한문 교과를 먼저 배제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한문 산문 교육의 실태와 관련한 설문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간 학습 분량 중에서 긴 산문은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산문이 교과서 뒷부분에 위치하거나 수업 시수가 부족한 이유에서였다. 산문 제재 단위에서 다루는 성취기준이 “내용과 주제”에 집중하는 현상은 교과서의 성취기준 제시에서 기인되었으며, “일화”와 같은 산문 소재는 주로 다루면서 “절기, 풍속류” 등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분량과 성취기준의 복합적인 원인이었다. 결국, 설문을 통해 특히나 어려워하는 긴 산문 제재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재구성,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의 난이도 조절 등 다각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산문 제재 수록 단위를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 전통문화 관련 용어 - 예를 들면 간지, 절기, 명절, 민속놀이, 풍속 등 -와 관련한 단위를 구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한자문화권의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성어를 다루어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단문을 활용하여 내용과 주제 및 인성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다룬다면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한문 산문의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을 보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보아도 산문이 대략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한문 산문을 제재로 한 단원의 수도 그 정도는 줄여주는 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성취기준의 제시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보면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흥미 혹은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문교과는 선택받지 못하고 소외과목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갈수록 학생들이 한문을 멀리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방향의 전환을 과감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한문과의 성취기준을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일화를 중심으로 산문 관련 성취기준을 소화한다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적은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옛날의 방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등학교 한시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정경훈(원광대학교), 정훈기(대전서중)

별지

중등학교 문화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이성형(공주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문화 교육의 현황과 요구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본고는 중등학교 한문과 문화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일찍이 백범 김구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弘益人間이라는 우리 國祖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여 문화 강국을 소망하였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 9월 20일에 발표한 UN산하 기구인 세계 지식재산 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년 대비 5단계나 순위가 상승한 결과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상승에 있어, 문화·창의 서비스 수출과 상표, 세계 브랜드 가치 등의 세부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이 성장하여 국가의 위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와 분석은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이 지향할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 개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문과의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는데, ‘문화 교육’과 관련해서도 서술의 중요성이 점증되어 왔다. 아울러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한문과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문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위해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문화 교육’과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중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 교육에 대한 수업과 평가의 현황에 대해서 고찰하고,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강조하기를 요청하는 한문 교육 현장과 학계의 주장이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한문과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문화 교육’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 교육’은 ‘문화’와 ‘교육’의 합성어인데, ‘문화’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화 교육’은 의미와 성격이 달라진다. 대체로 문화 교육을 어의에 따라서 구분하면 ‘문화에 대한 교육’, ‘문화를 통한 교육’, ‘문화를 위한 교육’으로 세분된다.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문화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문화를 통한 교육’은 ‘문화’ 현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사회 비판 능력을 갖춘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며, ‘문화를 위한 교육’은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하는 문화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다만 세 관점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혼재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문화 습득 교육’, ‘문화 이해 교육’으로 분류된다. ‘문화 습득 교육’은 문화를 내면화 하는 것이 핵심으로,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문화 이해 교육’은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명확히 인지하여 습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교육이다.¹⁾

문화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교육하는 일반사회 교과와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의 내용 요소가 ‘윤리·철학→국민 양성→시민 양성→세계 시민 양성’으로 변천되어왔으며, 문화 자체에 대한 교육보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 교육을 위해서 문화 관련 쟁점 교육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²⁾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은 ‘한문과 문화’ 영역에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 요소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이다. 즉 한문과의 ‘문화 교육’은 크게 ‘전통문화 교육’과 ‘언어문화 교육’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백광호는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시대별로 서술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의 의미를

1) 유종열(2018),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사회영역에서의 문화교육 내용 변천」, 『사회과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120~123면 참조.
2) 유종열(2018),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사회영역에서의 문화교육 내용 변천」, 『사회과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120~123면 참조.

고찰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는 ‘전통’을 “단순히 한문으로 기록된 옛 것, 因習, 또는陋習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는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에 와서 다시 재조명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시대적·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문화’를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예술·문학·예절·의상·언어·의례·규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양식을 총괄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전통문화’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옛 날부터 내려오는 선인들의 문화유산 중에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한문과의 ‘문화’와 관련된 김은경, 김왕규, 류준경, 백광호, 윤세훈의 연구를 통해서 ‘문화’ 영역이나 ‘전통문화’의 범주,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고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의 정의와 교수·학습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³⁾

류준경은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문화 교육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구체적 교육 목표와 내용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함을 지적하였다. 대안으로 ‘언어문화’의 측면에 주목하고, 한문과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실 언어생활과 밀접한 교과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걸맞은 우리의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라는 성격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⁴⁾ 이 주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에서 한자 어휘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점과⁵⁾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에서 한문과의 기여 및 한문과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전통문화’는 우리나라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병렬은 전통적 가치관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가치관으로 이는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과거의 세대로부터 오늘날의 우리 세대에게로까지 전해져오는 것들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도덕성 함양→민족 정신과 민족 문화 계승→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의적 발전’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양상으로 수용되었음을 밝혔다.⁶⁾

3) 白光鎬(2017), 「漢文 教科書에서의 ‘傳統文化’ 內容 分析和 具現 方案」, 『漢文學論集』 第46輯, 277~306면 참조.

4) 류준경(2015),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교육 방향」, 『한문교육연구』 제4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59~191면 참조.

5) 백진우(2020), 「학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방안」, 2020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59~171면 참조.

6) 송병렬(2018),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 수용 양상」, 『漢字漢文教育』 제44집.

3. 문화 교육의 현황과 요구

가. 문화 교육의 현황

주지하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하였고, 유의사항과 기대효과를 진술하였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고등학교 한문 I』를 제작·배포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현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였다. 여기에서 문화 교육과 관련된 사례로 ‘우리 전통문화 자세히 보기’, ‘나만의 시구(詩句) 부채 만들기’, ‘전통문화 영역 교과 독서’, ‘행주산성 답사를 통한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에 대한 교수·학습과 평가 사례를 소개하였다.⁷⁾

다음으로 정효영은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보다 구체적 제시하였다.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는 ‘토의·토론을 위한 주제 제시 →주제 설명 및 사전 자료 수집 방법 제시 →모둠 구성 →모둠별 토의·토론을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모둠별 토의·토론 및 내용 정리 →모둠별 발표 및 의견 교환’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전통문화 관련 내용 학습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시 및 발표’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문화 유산 답사하기’는 ‘지역 문화유산 조사 →답사 계획서 작성 →답사 자료 수집 →답사 실시 →답사 보고서 작성 및 발표’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는 ‘토의·토론을 위한 주제 제시 →주제 설명 및 사전 자료 수집 방법 제시 →모둠 구성 →모둠별 토의·토론을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모둠별 토의·토론 및 내용 정리 →모둠별 발표 및 의견 교환’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는 ‘한자문화권의 개념 파악 →한자문화권 의 언어·문화 조사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언어·문화사전 만들기’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는 ‘한자문화권 국가 파악 →교류 사례 찾기 →발표’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한문과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 전통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서는 ‘한문의 독해’와 ‘한문과 문화’의 성취기준이 함께 달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한문과의 차별성 확보와 흥미 유발을 위해서는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범위 내의 텍스트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⁸⁾ 이는 문화 역량을 교과서에서 제재 발굴과 단원 구성으로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한문과에서 ‘인성’과 ‘문화’ 영역의 성취기준은 ‘정의적 태도, 능력’과 관련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과 현장 교사들에 의해서 교수·학습 및 평가와 연계하

7) 교육부 외(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고등학교 한문 I』, 예당문화인쇄.

8) 정효영(2016),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과 문화’ 영역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분석」, 『漢文教育研究』 46호, 275~304면 참조.

거나 수용한 현장 연구 事例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⁹⁾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발표하였다. 평가준거 성취기준 초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에서 제기된 교육과정과의 연계된 표현의 사용 요청과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 평가 준거의 도달점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명료한 외현적 행동 동사로의 진술 요청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은 성취기준이 태도 형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달점 행동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교과 전문가 워크숍의 지적이 제기되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최종 수정되었다.¹⁰⁾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보고서는 현장 적용과 향후 교육과정의 평가 기준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화 교육’은 성격상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과정에 대한 평가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는 다양한 평가 사례의 지속 및 일반화 노력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와 제안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요구 연구에서 ‘한문과 문화’의 성취기준에 대하여 매우 낮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사유로는 모호한 수업의 범위와 현재적 가치 추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한자문화권의 공통된 기록 수단인 한자를 이해하는 정도의 성취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¹¹⁾

다음으로 최근의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교과 전문가와 현장 교사 및 세미나를 거쳐 수정·보완된 ‘한문 I’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발표하였다. 한문과의 교과 역량을 기본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 ‘한문 문해 역량’, ‘문화 이해 역량’, 교과 지원 역량인 ‘정보활용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기대 역량인 ‘창의적 사고 역량’,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역량 중심으로 제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체계성의 불일치나 핵심 개념의 분리 문제를 감안하여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9) 金王奎(2016), 「『漢文의 活用-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領域의 內容 要素와 成就基準 분석」, 『漢文教育研究』 46호.

김은경(2016), 「『한문과 인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漢文教育研究』 46호.

10) 장호성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5~78면 참조.

11) 정효영(2020),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요구 읽기」, 『한문교육연구』 54호, 114~115면 참조.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대해 제기 되었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영역명의 혼란, 6가지의 교과 목표별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의 불균형과 타당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구조화 하였다. 영역은 ‘한자와 한문’과 ‘언어생활과 문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핵심개념을 ‘한자의 특징’, ‘한문의 독해’와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인성과 문화’로 제시하였다.

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교과 기본 역량으로 ‘문화 이해 역량’을 제시하였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향으로 “①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해당 문화권의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③정보(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④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음식 등의 취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토론하도록 한다.”를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의 활용-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로 제시되었던 내용 체계가 ‘언어생활과 문화-인성과 문화’로 내용 체계가 재구조화되었다.¹²⁾

마지막으로 올해 8월 27일에 전국한문과교수협회의 자료에서 고교학점제에서의 한문과 과목 구조화 안에서 6과목을 제안했다. ‘문화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으로 융합 선택 과목의 ‘전통문화와 한문’을 제안하고 “‘전통문화와 한문’은 한자문화권의 전통 속에 형성된 다양한 문화유산이 담긴 자료들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같은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둔 과목이다. 특히, ‘전통문화와 한문’은 특정 교과에서 전담하기 어려운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간 학습도 가능한 과목이다.”로 소개하였다.¹³⁾

4. 결론 및 제언

- 현재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의 성격과 주안점을 구체화 할 필요성 있음.
- ‘문화 교육’과 ‘인성 교육’의 범위와 영역을 명료화 할 필요성 있음.
-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성취기준은 ‘전통문화’와 ‘창의성’을 연계하되,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의 제시로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여 ‘문화 교육’은 ‘언어 문화’에 대한 학생과 현직 교사의 요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교과서 개발에도

12) 윤영순 외(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제2외국어/한문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C 2021-10, 99면 ; 110~111면 ; 142면 참조.

13) 이날 전국 한문과와 한문교육과 교수 15명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의 협의가 있었는데, 과목 신설에 관해서는 학습용어, 문해력 향상과 관련된 과목 개설이 필요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점증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수요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부각하여 한문과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토론문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문

김경익(울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시행을 근간으로 하는 2022 교육과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표해 주신 윤지훈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문 교육 정책과 방향의 지향이 되는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를 담당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박사님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발표자의 견해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크게 교과 역량,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목 재구조화, 교과서 편찬상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활용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활용방안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것으로, 한문 교육 구성원이 일정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과 역량 재구조화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발표자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5개 교과 역량의 큰 틀을 유지하되,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측면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기본 역량, 기대 역량, 지원 역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제시하신 역량의 범주와 교과 역량의 반영 가능성은 어떠한지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한 역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론에 해당하는 교과 교육과정은 그 체제와 주요 사항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발표자께서 예상하시는 2022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역량의 자율성, 교과 특성 반영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각 교과 역량의 개념과 추가, 통합, 삭제 가능성 그리고 역량 범주 간 관계성입니다.

교과 역량 중 ‘한문 문해 역량’과 ‘문화 이해 역량’이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문 독해’와 ‘한문 문해’의 개념상 차이를 질문드립니다.

또한 문화 이해 역량은 현행 교육과정의 ‘한문과 문화’에서 제시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 요소가 있을지요.

소견으로는 지원 역량과 기대 역량은 교육의 일반성, 기본 역량은 한문 교과의 특수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문 교과 학습에서 각 역량은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과목 재구조화 및 내용 설정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문 교과 내 과목 간 위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선택과목의 내용 요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을 편

성하고 각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각 선택과목의 성격과 목표가 다르게 제시되겠지만, 현재는 일반선택의 ‘한문’의 내용 요소를 ‘언어생활과 한자’와 ‘심화 한문’에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한문’ 또한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을 비추어보면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Ⅰ’, ‘한문Ⅱ’에서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표면상 위계의 준거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한문 교육 공동체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개발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진로선택의 ‘한문 고전 읽기’와 융합선택의 ‘언어생활과 한자’의 내용 요소를 다른 관점에서 구성해 본 것입니다.

영역	내용 요소
문학 한문 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과 범위 - 이해와 감상 - 작품의 내용과 형식 - 한문 한문학과 중국 한문학 - 문학 작품의 시대적 배경 - 작품의 문체별 특징 - 한문학 작가
역사 한문 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한문 자료의 종류 - 역사 한문 자료에 담긴 정신 - 한국의 역사 자료 - 동양의 역사 자료
철학 한문 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의미 성찰 - 유가의 철학 - 도가의 철학 - 철학과 시대 상황

<진로선택 ‘한문 고전 읽기’ >

영역	내용 요소
한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모양, 음, 뜻 - 단어의 짜임 - 한자 어휘의 개념과 범위
학습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용어의 개념과 범위 - 학습 용어의 의미 구성 - 학습 용어의 체계 - 학습 용어의 활용
일상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용어의 개념과 범위 - 일상용어와 의사소통 - 일상용어의 활용
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어의 개념과 분류 - 유래가 있는 성어 - 성어와 삶의 의미 - 성어의 활용

<융합선택 ‘언어생활과 한자’ >

교육과정 개정 시기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윤지훈 박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문과 교육과정 학교 급별(교육 내용) 위계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의 토론문

강미향(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확산 등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한문과 교육과정 학교급별 위계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는 변화가 필요한 한문 교실 수업을 견인하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제가 연구자의 글을 읽으며 학식을 넓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만, 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연구자의 연구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큼니다. 이에 제가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한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문과 교육내용의 학교 급별 위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로 한문과 교과 특성을 고려한 언어교과인 국어(과), 영어(과), 그리고 외국어(과)와 내용 교과인 수학과를 선택하여 교과별 위계화 양상을 고찰하셨는데, 선택하신 교과가 한문과의 교과 특성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 선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범박하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분석하신 내용을 통해 각 교과별 위계화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제가 궁금한 점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어떤 부분을 한문과 위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로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한문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표2>의 영역 A부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성취기준 등의 수량, 추가, 증감, 등이 위계설정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2>의 영역 B ‘한문의 활용’의 ‘한문과 인성’ 및 ‘한문과 문화’는 학교급별 과목별로 동일해 보여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위계설정이 안 된건지, 아니면, 제가 위계설정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 있거나 혹시 숨어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구자께서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구체적 장면과 특정 맥락을 결합하여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기술하는’ 방식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위계설정을 학교급별 과목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한문과 교육과정 학교 급별 위계 설정 구성 요인을 <표 3>을 통해 제시하면서 성격은 학교급별로 공유하고, 총괄목표는 공유하되 세부목표의 상세가 필요하고, 내용체계에 대한 부분은 학교급별 위계설정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현행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해 가능하나 <표 3>에서 제시해주신 2022 개정 고등학교 일반선택, 융합선택, 심화선택에서도 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일반선택, 융합선택, 심화선택이라는 과목의 성격과 총괄목표를 공유해도 될 것인지, 각 교과목이 고등학교 과정이기는 하지만 1,800

자를 포함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로 설정함이 옳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序言과 餘言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육과정의 내용 選定 및 위계 設定은 다기한 變因이 작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기한 變因의 작용이 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교과별로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選定 및 위계 設定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變因은 무엇이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다 진화된 한문과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 활기를 찾아줄 수 있을지 연구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진 지식이 얕아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자질 구례한 어리석은 물음들로 토론을 대신에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한문 교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세욱(유신고등학교)

1. ‘내신 성적이나 수능에서 주요 교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한문 과목’이라고(p.1) 규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에 ‘한문’이 ‘이수기준과목’이다. 토론자의 재직교는 이를 교육과정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다. 발표문에 대한 이견은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3학년도 이후 교과이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2005학년도부터 교과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과이수기준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교과이수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에 따른 교과이수기준 I 과 선택과목 유형에 따른 교과이수기준 II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기준 I 과 기준 II 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과이수기준 I]		
교과영역	모집단위	교과이수기준 I
탐구	전 모집단위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 + 과학 교과 중 3과목
	공동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 + 과학 교과 중 4과목
생활·교양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 진로희망에 따라 과학 II 과목 이수를 권장함

2. ‘선택을 받기 위한 능동적 대처(p.1)’에 대한 일련의 방안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단위 학교마다 약간의 다른 경로가 있지만, 대략 두 가지의 경로를 거친다. 먼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단위 학교와의 ‘협상’의 경로이고, 다시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유인’의 경로이다. 이 둘 사의 관계를 보면 먼저 ‘협상’이 성공해야 ‘유인’이 가능한 선후 관계이다. ‘선택을 받기 위한 능동적 대처’의 방안이 대부분 후자인 학생 선택 유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단위 학교의 협상을 위한 방안의 사례가 ‘어휘력 저하 문제와 한문교육의 새로운 과제 부각 ‘인데 발표문의 ‘**사회과 교사가 수업 중 상당 부분을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를 풀어서 개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p.7)’라는 지적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토론자의 학교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업 중 상당 부분을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 풀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지적으로,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이동시키자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결과적으로 3학년에서 2학년으로 합의된 사례가 있다.

3. ‘매력적인 과목 신설(p.5)’은 ‘제2외국어’와 같이 연동되어 진행되기에 한문과 고유

의 전략이 될 수 없다. 다른 교과와의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점하려면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는데 ‘**고시의 과목**’ (p.8)의 활용과 ‘**진로 연계 과정 개발**’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지적이다. 4%가 1등급인 9등급제의 ‘한문 I’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어려운 교과이고 만약 절대 평가의 진로 선택교과 등과 ‘한문 I’이 매치업될 때 필패는 당연하다. 이에 PF 과목인 ‘한문고전’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토론자의 경험으로 보면 ‘고시의 과목’의 활용에도 또한 문제는 있었다. 대략 ‘교재’와 ‘자격’ 및 ‘시수배정’의 문제이다. 교과서가 없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관련 자료를 모아 교육용 교재로 인정 심의를 받아야 했고 이 부실한 교재는 부실한 수업으로 이어졌다. 발표자가 인용한 손형태(2020:84)는 기존의 출판된 도서를 인정 도서로 삼자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교육감 인정에는 몇 가지 기준(동일한 도서명 및 비용 약 500만원~800만원의 심사비) 등이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고시의 과목**’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 다른 과목 교사의 상처 과목이 될 우려가 있고 (진로 과목이면) 기준 시수 5단위에 가감이 ±3까지 가능해 수업 시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안을 제시하면 ‘고시의 과목’에 대한 한문의 정체성을 가진 교재를 개발하여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교과 위상으로 삼으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로 연계 한문과 교재(p.9)**’는 이런 교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단 ‘교재’와 ‘자격’ 및 ‘시수배정’의 문제를 초래할 미봉책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중국어의 선택률 저하**’도 선택의 변수가 될 수 있어 한문과도 같은 상황에서 고민해야 한다. 토론자가 담임하고 있는 수원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대략의 중국어/일본어 선택 과정과 동기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 1) 중학교 중국어 학습자 → 일본어 선택 (7명)
 <일본어 선택의 이유>
 일본어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서 (3명)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1명)
 일본어에 흥미가 생겨서 (3명)
- 2) 중학교 일본어 학습자 → 중국어 선택자 (0명)
- 3) 중학교 중국어, 일본어 동시 학습자 (총 5명) → 중국어 선택자 (1명)
 <중국어 선택의 이유>
 중국어에 흥미가 있어서(1명)
- 4) 중학교 중국어, 일본어 동시 학습자(총 5명) → 일본어 선택자 (4명)
 <일본어 선택의 이유>
 일본어가 더 실용적이어서 (1명)
 일본어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서(3명)

5) 중학교 중국어 학습자 → 중국어 선택 (5명)

〈중국어 선택의 이유〉

내신 성적에 유리할 것 같아서 (5명)

6) 중학교 일본어 학습자 → 일본어 선택 (5명)

〈일본어 선택의 이유〉

내신 성적에 유리할 것 같아서 (5명)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도 중등교원(중·고교 교사) 선발 예정 공고에서 전국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이라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 문제는 단위 학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과 한문과」의 토론문

김진봉(등촌중)

이 발표문은 학교정보공시의 자유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 380여개이 서울 소재 중학교의 교과 시수 편성을 확인하여 한문과의 편성과 자유학년제의 영향으로 감축된 한문 교과이 시수, 그리고 한문 교과 관련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몇 가지 짧은 질문을 통해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5p. 자신이 선택한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개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게 나타난다.
 -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일 경우,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게 나타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으로 강제 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집중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근거가 있는지요?

2. 7p. 전국의 중학교를 조사하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표시하였으며,
 -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공시대상 중학교가 3259개교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380여개 중학교는 연구 대상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개인의 연구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몇 개 학교만 추출하거나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심도있게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많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발표하는 모습에 경의를 드립니다. 우문현답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중등학교 한자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의 토론편

조환문(청주IT과학고)

지금까지 성취기준 중 한자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첫 번째 쓸 수 있다와 바른 모양이라는 의미의 이중성을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 드립니다.

5쪽, 한문교과에서 제시하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3쪽 한자 교육 내용 요소의 세분화와 영역 구분에 따른 규정된 개별 학습 요소와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시작점에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한문 시수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교육용 한자의 숫자를 합당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5쪽에서 현행 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습자는 한문교과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충분히 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한자 자형의 문제, 필순의 문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에만 치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인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한자 인지와 사용능력에 관한 성취 기준에 대해 제시한 것에 찬성합니다.

지금과 다른 생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한문을 익히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연구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등학교 한자 어휘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의 토론문

장재익(광주공고)

별지

「중등학교 한자 문법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의 토론문

김동규(낙생고)

한문과 수업에서 문법은 가르치기도 그렇고 안 가르치고 그런 ‘계류’과 같다고 봅니다. 어휘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문법적 설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법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과 생각은 엉뚱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문법 수업은 어렵고 재미없는 수업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이 대부분 현장 교사들의 대화와 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토론이나 질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발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학교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술목’ ‘술보’ ‘술빈’ 등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용어’와 ‘내용’이 바뀌는 것이 1차 이유이며, 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지 않음이 2차적 이유이며, 국어사전에서의 풀이와 한자 어휘의 풀이가 다른 경우가¹⁴⁾ 종종 있어 발생하는 문제가 3차 이유라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항속적인 교육과정이 안 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매번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의 내용 체계 예시]에서 언급하신 한자와 어휘 중 단어의 짜임에 관한 항목을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휘를 가르칠 때 어휘의 풀이에 대한 근간인 문법(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식, 술목, 술보 등의 문법적 용어의 의미에 집중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단어의 짜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어의 짜임에 대한 설명과 서술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문법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교과서마다 다루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국어 어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어휘를 학습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본다면 단어 풀이에 대한 범위를 국어사전에 한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한문 문장 내에서 단어의 풀이가 내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한문의 독해 영역에서 ‘문장의 구조(품사의 활용 묶어)’ 서 별도로 다루어 주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허사에서 개사, 어조사, 전치사 등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허사라는 큰 개념으로 묶어 제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허사로 쓰이는 한자의 뜻을 제시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之를 ‘가다’, ‘어조사’, ‘허사’, ‘~의’ 등 역할과 쓰임을 뜻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청합니다.

14) 입춘이 경우 국어사전에서는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양력으로는 2월 4일경이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일 년 중 봄이 시작한다는 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어의 짜임에 따라 푸는 과정에서 ‘봄이 서다,’ ‘봄을 세우다’ ‘봄에 임하다.’등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문제에 관한 발표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한문 수업과 시험을 학생들이 어렵게 여기는 까닭은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뜻과 문맥의 불일치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수업 시간 학생들의 질문 역시 그런 부분, 문맥이나 두리뭉실한 풀이로 이해가 안 되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 뜻으로 풀이하는 경우 이해가 안 되어 문맥의를 통해 풀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맥의가 되더라도 제시한 것처럼 ‘걸쳐놓다’가 아닌 ‘없다 나 놓다’ 장도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자의 대표 뜻으로만 한정 된 문항 제작은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의미가 통하는 다시 말해 대표 뜻이 아니더라도 의미항목에 한하여 제시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악과 폐단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에서 유의어로 폐단과 해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시된 유의어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런 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폐단과 해악 중 어느 어휘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어휘의 유사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 15번 문항에 대해 적절한 문항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문항에서 학생들은 문장을 풀이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보다는 수학처럼 공식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之와 無의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답지를 다양하게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순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맥에 따라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구 형식과 같이 풀이보다는 눈으로 보고 공식화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지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완전한 제시의 문항’은 저 역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명이나 인명과 같은 경우 별도의 주석처리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사와 실사의 구분에 대한 문항은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토의 문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습요소로 작동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현토를 언급하고는 있습니다만 교과서마다 다르게 사용된 현토가 자칫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가지 논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한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시각으로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능 한문은 한문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필요한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한자를 배워도 한문을 풀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풀이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문이나 풀이 자체도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고 문법 지식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연구하신 논문을 잘 읽었으며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학교 한자 산문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의 토론문

최식(성균관대)

별지

「중등학교 한시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의 토론회

정규돈(경민중)

별지

「중등학교 인성·문화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의 토론문

백광호(전주대)

백신 2차 접종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옥고를 제출하신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발표문을 읽고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 제목

연구 내용이 “중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 교육에 대한 수업과 평가의 현황에 대해서 고찰하고,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강조하기를 요청하는 한문 교육 현장과 학계의 주장이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 하는 것이라면, 발표문 제목을 「중등학교 한문과에서의 문화 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2. 연구 내용의 범위

〈일반적인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과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내용 요소를 다루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문화 교육'〉이라기보다, 학교에서 교과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 가운데 사회과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하여, 〈일반적인 '문화 교육'〉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을 다루어야 할 것 같고, 〈학교에서의 '문화 교육'〉으로 하면 사회과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나 음악·미술 교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요?

3. 분석 내용

한문과의 '문화 교육'을 '전통문화 교육'과 '언어문화 교육'으로 분석하였는데, '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한문과에서의 '문화 교육'을 '전통문화'와 '한중일 한자문화권'로 나누는데, 발표문의 '언어문화 교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 제언

금일 발표문을 전달받을 때, “관련 자료 수집에서 머물고 발표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과 달리, 현황과 요구가 잘 정리되었다. 다만, 논문 투고 시, 〈결론 및 제언〉에 있는 훌륭한 제안들-“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성격과 주안점”, “전통문화와 창의성을 연계하되, 수업과 평가에 제시될 다양한 사례”, “언어 문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요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자의 분석에 따른 “요구 조사 및 분석” 등-이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5. 이 글에서 말하는 “문화 교양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6. 기타

1) 표기 통일 : 예) ‘세계 지식재산 기구’와 ‘세계지식재산기구’, 2쪽 ‘전통문화’와 4쪽 ‘전통 문화’

2) 후속 연구자를 위한 출처 표기 : 예) 2021년 9월 20일에 발표한 UN산하 기구인 세계 지식재산 기구(WIPO)가 발표한 ‘2021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매일경제 2021.09.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4070>

韓國漢文教育學會

2021年 秋季學術大會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탐색

발행일: 2021年 10月 02日

발행처: 韓國漢文教育學會

<http://www.hanmunedu.or.kr>
